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54 1981년10월26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October 26,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웅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OCT 28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한인회 이사회 결정—

이사장에 함병섭 회장단이TV직영

박인순 한인회장단 취임후 2차 이사회가 22일밤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열려 ①정관개정위원회 설치, ②회관이전연구위임, ③TV한국 운영체제강화, ③이사장 보선등 당면 안건을 긴급처리하고 밤12시15분께 폐회했다.

이날 16명의 이사가 참가한 가운데 함병섭부이사장(코리아타운 번영회장) 사회로 열린 81년도 제8차 이사회에는 보선된 9명의 이사중 6명이 참가했다.

신임이사중 3년조는 강공선(전 캐라반운영위원장), 강찬영(변호사), 이병권(체육회장), 장순채(아리랑식당 대표), 홍거만(사업)씨등 5명, 2년조는 김태진(실업인협이사장), 박주삼(태권사범), 오기환(브래드만 제빵회사 부사장), 유좌석(한인천주교사무장)씨등 4명이다.

이로서 이사수는 회장단(부회장 장영채, 고순복)3명 포함 30명이 됐다.

■정관개정심의위■

이사회는 과거 4번씩 상정됐다가 부결된 한인회 정관을 재정, 보완하도록 정관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심의위원은 회장단 3명과 강공선, 강찬영, 장인철이사등 3명과추후 추천될 외부인사 6명등 총 12명이다.

이 위원회는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한다.

박인순 회장은 개정·추진이유를 "회장단과 이사회간의 마찰을 피하고, 지속성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또 회장중심으로 돼있는 정관을 이사회중심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현 정관은 76년도에 개정된 것이다.

■회관확장연구위■

블루어 코리아타운번영회등이 요구하는 한인회관 이전문제를 연구·검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회관관리위원회(위원장 조한철)에게 위임한다.

■TV한국 운영권■

이사회 소속 TV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목) 해체하고 집행부가 직접 TV 한국을 운영한다.

주 30분 방영되는 TV한국은 체제상 TV 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운영돼 왔다.

박회장은 TV한국의 맹점으로 ①과거 1시간 방영에서 30분으로 단축된 점, ②기술적인 문제, ③방영시간의 혼란스런 변동등을 지적, 집행부가 그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1시간여의 논란이 있었다.

■재정감사보고■

오현구 감사는 금년들어 9월말 현재 한인회의 총수입은 16,177달러, 지출 16,340달러, 적자 163 달러라고 보고했다.

한인회는 회관 관리위에 지불하는 사무실 임대료 월 150달러를 지난4월부터 체납, 적자폭은 훨씬 더 클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선출■

지난 7월11일 최양욱 이사장 사임후 후임으로 함부이사장을 선출했다.

◇박인순회장단 취임후 두번째 열린 한인회 이사회. 왼쪽부터 오현구, 박주삼, 강공선, 김태진, 홍승해, 장영채(부회장), 박인순회장. 오른쪽 앞쪽에는 강찬영 변호사, 그 옆에 이영목이사.

22개국 수뇌 회동

「부국과 빈국」문제 토의

트루도수상 공동의장에 피선

(칸쿤 멕시코―UPI) 세계인구의 3분의2를 대표하는 22개국 지도자들이 「부국과 빈곤국 사이의 간격」이라는 주제로 2일간(21～22일)회의에 참석차 20일부터 속속 칸쿤에 도착했다.

멕시코대통령 호세·포르티요는 중공수상 조자양과 필리핀대통령 페르디난드·마르코스, 유고슬라비아, 나이제리아, 알제리아 대통령들을 영접하기 위해 20일 하오늦게 칸쿤으로비행했다.

레건 대통령을 비롯하여 일본의 스즈끼·젠코 수상, 영국의 마가레트 대처수상, 프랑스의 프랑소와·미테랑 대통령, 캐나다의 피에르·트루도 수상등 22개국 정상회담 참석자들의 대부분이 이날 칸쿤에 도착했다.

한때 어촌이었으나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유원지의 하나가 된 칸쿤에 미리 도착해있는 지도자들은 탄자니아 대통령주리어스·나이리어 등이다.

회의 참가자들은 거의모두가 주제인 부국과 빈곤국의 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에관해 합의가 이뤄질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지 주최국인 멕시코만이 북반구지도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조처를 강구하는 결정이 내릴것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문선명 교주 미국법정에 출두

유죄 인정되면 최고5년징역형

(뉴욕)미연방법원에 세금포탈혐의로 기소됐던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 동경을거쳐 뉴욕에 도착, 22일 법원에 출두했다.

법원밖에선 천여명의 문교주 추종자들이"종교적탄압과 인종차별의 희생자"라면서「우리는 승리하리(We Shall overcome)」라는 노래를 부르며 무죄를 주장하는 데모를 벌였다.

문교주는 법정에서"나는 무죄다"고 힘주어 말하고 약 16만달러의 탈세혐의를 전적으로 부인했다.

재판을 담당한 스튜와트 판사는 25만달러의 보석금과 여권보관을 명령했다.

그러나 문씨는 종교적 이유로는 출국할수 있으나이 경우 5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야한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재판후 그를따르는 추종자들에게 거듭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이와같이"종교적 탄압과 인종차별정책은 미국을 수치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소된 문씨와그의보좌관 가미야마씨가 유죄로 판결되면 최고 5년징역과 10,000달러의 벌금을 물게된다.

◇문씨를 추종하는 미국인 통일교인들이 법원밖에서 항의데모를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미주본사 주최 문예콩쿨

장원 김유나·김혜인

한국일보미주본사가 북미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예콩쿨의 입상자가 확정됐다.

중·고교및 대학생이 참여한 이번문예콩쿨엔 조국애를 고취하는 내용의 시사체수필문 52편이 응모됐다.

영예의 장원은 LA근교 알함브라고교 12학년에 재학중인 김유나양과 미시건주 안도버고교 11학년 김혜인양이 차지했다.

연령별론 11학년 전후의 여학생이 많았고 이민온지 2년전후의 학생출품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장원2명은 본국 문공부장관상을 받고 부상으로6박7일간 모국을 방문하게된다.

문예콩쿨 심사는 황갑주씨(시인), 이선주씨(한국학연구회 회장)와 한국일보 LA지사 임갑손 영문판편집장·유현수 논설위원이맡았다.

시상식은 오는 11월10일 하오5시 한국일보 LA지사회의실에서 열린다.

◁금주의 행사▷

(10월26일～11월1일)

◇10월24일～11월29일 : 매주 토, 일 민중신문사배 바둑대회
곳 : 한국기원(653A Bloor St. W.)
연락처 : 469-1103

◇10월31일(토) 하오2시 이대동창회 요리강습
곳 : 1409 Goldmar Cres. Missi.
연락처 : 624-5817

◇10월31일(토) 상오8시30분～하오4시 낚시대회
곳 : Bellwood Conservation Park
연락처 : 755-9902, 298-7806

◇10월31일(토) 하오6시 베타와이즈멘즈클럽 월례회
곳 : 홍승규 부회장댁
연락처 : 822-3163

◇11월1일(일) 하오3시30분 김지일 박사 강연회(이민생활의 정신건강과 그리스도적사랑)
곳 : St. PAUL성당강당
연락처 : 863-0415(천주교노인회)

◇11월1일(일) 하오6시 김재준 박사 출판기념회
곳 : 한인연합교회 친교실
연락처 : 925-6261

해외이민 석달에 1만

제한조건 완화후 증가추세

(서울23일=연합)22일한국정부 공식통계에 의하면 지난 3개월동안 총10,109명이 정부로부터 해외이민 허가를 받았으며 이들의이민비용은1590 만 달러였다.

지난 8월 정부가 실직으로 해외이민제한 조건들을 모두 철퇴한 이래 이민자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일인당 평균이민 비용은 1573달러, 5인가족인 경우는 7,864달러이다. 현재정부는 1가족당 10만달러 까지 소지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여름방학동안 1857명의 대학생들이 해외방문을 하여 317만5천달러를 썼다.

—정 정—

10월24일자 1면 〈여행관계〉 특집기사중 코미션 약 16～17% 는 원가의 16～17% 이므로 항공표 실가격의 약 14% 정도입니다.

이런 계산으로는 코미션 금액이 180～90달러이므로 정정합니다. CP표의 코미션은 이 수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오늘 신문
주간한국 포함
한국재벌 특집
14면 발행

—社 告—

칼럼 〈제5계절〉 부활

본보의 전신 〈캐너더뉴스〉의 인기연재칼럼 〈제5계절〉이 오는 28일(수)부터 부활됩니다.

75년9월1일 권순창·박영림·박희민·이석현씨등 4명의 글로부터 시작된〈제5계절〉은 79년3월3일 문우일·김원장·정번헌·박문회씨등 4명의 글을 마지막으로 중단될 때까지 약3년반동안 많은 인기속에 계속됐읍니다.

이번 〈속·제5계절〉의 첫 필진은 토론토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후예 안토니오·코레아씨(아파트 관리인), 박충도(문협회장), 유형승(중앙시립도서관분류과장), 김숙히(씨알한국인학교 부교장)씨의 4명이며 이들은 매주 1번씩 순번으로 칼럼을 담당, 각자 3회씩 자유주제로 집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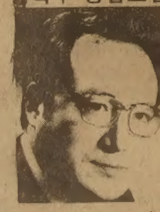
현실과 내일에 소중한 보배이 될 〈속·제5계절〉을애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일보 —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35-3549

갈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R) 424-2599
635 BLOOR ST. W. (한국관 앞)

한국일보 가두 판매처

본사는 주3회 각식품점에 신문을 배달, 판매하고 있음.

〈본보 취급 식품점〉
●서울식품 : 367 PITFIELD RD. 291-8317
●동양식품 : 1662 JANE ST. 248-5131
●한국식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단풍식품 : 712 BLOOR ST. W. 532-1054
●고려식품 : 680 BLOOR ST. W. 531-2242
●삼복식품 : 2437 FINCH AVE. W. 743-8270
●한밭식품 : 466 SOUTH SERVICE RD. 274-5401
(총 9개소)

1부당 30¢
현재 주3일 배달.
※〈주간여성〉도 판매함 $2.00

한국일보 발송부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WANIN TAEKWON-DO
THE LEADING STYLE IN THE ART AND SCIENCE OF TAEKWON-DO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무도진수와 지도권위로
1. 고상한 인격도야와 신체단련을 시킨다
2. 강한 개성의 확립과 신념의 인간을 만든다
3. 위기를 무난으로 피하는 자기능력을 키워준다
4. 문제아 선도및 학업능률을 향상시킨다
※한국인 자녀를 특별할인우대 · 한국인사범 직접지도
KYONG LEE TAEKWON-DO CENTRE
H.Q.: 615 YONGE ST., at Isabella, Toronto (416) 929-5511
NORTH: 2281 YONGE ST., at Eglinton, Toronto (416) 483-4002
EAST: 1865 LAWRENCE AVE. E. at Pharmacy, Scar (416) 759-2500
OVER ALL CALL: (416) 962-3000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5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립스 골리 빈스·트렘블리가 콜로라도 록키와의 대전에서 여러선수들의 도움을 받으며 선방하고 있다. 디펜스맨 밥·맨노가 네트앞에 쓰러져 있고, 릭·바이브가 록키의 멀린 말리노우스키의 머리를 재치며 크로스첵하고 있을 때 배리·멜로조가 다리를 감고있다.

우편성 우편공사로발족

서비스 개선에 최소6 개월

(오타와) 정부기관 이었던 캐나다우편성은 16일을 기해 국영기업체 캐나다우편공사로 개편 발족했다.

공사 초대 사장으로는토론토대중 교통위원회(TTC)및 캐나다박람회(CNE) 회장을 지낸 마이클·워런, 회장에는 르네· 매랑씨가 취임했다.

워런 사장은 우편서비스 개선에는 최소 6개월~1년이 걸리므로 국민들은 인내를 계속해 달라고 부탁했다.

우편성의 금년 적자는 사설속달회사들의 증가로 약 5억달러가 될 것이 예상된다.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한 새로운 매네지먼트 제도가 시급히 요청됐었다.

워런사장은 나는 우편공사직원들의 파업권을 박탈하는 것에 반대한다. 나는 직원들의 파업을 사전에 방지, 우편공사 내에 상호신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실업자 증대

경제불황 영향 커

(서울23일=연합)작년한국의 경제불황은 제강제철, 기계, 자동차, 전자산업등기간산업계에 큰 영향을미쳐 실업자를 증가시켰다.

제강제철계에서는 국영포항제철을 제외한 9개주요 제철회사가 1천명(전체의5%)을 레이오프(임시해고), 기계산업분야에서는창원공업단지 종업원 2천명(7%)이 해고당했다.

자동차 조립공장 5천명(15%), 자동차 부품공장의 1만8천명(31%)이 해고 당했다.

삼성전자등 5개의 전자회사들은총 1만5천명(15%)을 해임했다.

이와같은 고용감축은 재고증대와 판매부진으로 인한 공장가동율이 떨어진데 원인이 있다.

80년 공장가동율은 73%로 79년에비해 9%가 낮다.

폼페이 유적보호계획

이탈리아정부가 발표

〈폼페이, 이탈리아—AP〉 이탈리아정부는 20일 폼페이시의 유적들을 눈, 비와 지진등 천재지변과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산모양의 둥근 천정을 씌우는 국제적인 「폼페이유적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빈센조 스코리 문화환경성 장관은 약1억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 프랑스, 멕시코를 방문할 예정이다.

폼페이시는 2천년전에 건립된 로마제국의 찬란한 문화를 지니고 있던 도시로 서기 79년 근처에 있던 베스비어스화산이 폭발, 재에 묻혀 폐허가 됐다. 그당시 이시에는 2만명의 로마시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에 큰지진이 일어났을때 폼페이유적 약1백개 건물에 금이갔다.

나바노틸로바 초청경기

이덕희, 맨들리코바도 출전

(서울22일=연합) 세계여자테니스 랭킹2위인 마티나·나브라틸로바와 3위 한나·맨들리코바가 서울문화방송과 대한 테니스협회의 초청으로 11월17일서울을 방문, 시범경기를 갖는다.

미국에 귀화한 체코출신 나브라틸로바와 체코의 만들리코바는 2일간 방문중 김수옥등 국가대표선수들과, 그리고 한국유일의 여자프로테니스 이덕희와 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방문에 앞서 11월9~15일에 도꾜에서 열리는 국가대항별 세계여자테니스대회에 각각 소속국가별로 참가한다. 이 대회에는 한국 이덕회선수를 비롯한 국가대표들이 출전할 예정이다.

〈스포츠 단상〉 ④

캐나다 최고의 인기 NHL하키

스포츠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제 겨울이 곧 닥쳐오는데 무슨소리냐고 하는 독자도 있을것이다.

야구 정규시즌이 종료, 마지막 월드시리즈를 남겨놓고, 동부의 뉴욕 양키즈와 서부의 LA다저스가 불을뿜기고 있다.

북미사람들의 최고 인기종목중 하나인 훗볼은 캐나다에서는 금년11월 몬트리얼에서 있을 CFL결승전으로 끝이나지만 미국에서는 내년 1월의 수퍼볼때까지 열전을 더해갈 것이다.

역시 미국사람들의 인기종목인 농구도 10월중 이미 개막, 내년4월까지 계속된다.

이곳 캐나다에서 최고인기 종목이라면 역시 하키를 빼놓을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하키앞에 반드시 아이스를 붙이거나조금 유식한 소리로 빙구(氷球)라 한다. 이곳에서는 하키하면 으레 아이스하키를 뜻한다.

캐나다에서 어린이에게 트루도가 되겠느냐? 웨인·그레츠키가 되겠느냐? 하면 당연히 그레츠키같은 하키선수가 된다고 할것이다.

역시 하키의 꽃은 프로하키 NHL이다. 81—82시즌은 지난 10월3일 일제히 개막, 초반의 기선을 잡기위해 안간힘 들이다.

이번시즌 역시 지난2년간 NHL패권을 잡아 스탠리 컵을 차지한 뉴욕아일랜더와 전통의 몬트리얼 캐네디안이 강력한 우승후보 일것이다.

그러나 이들팀의 우승결정전은 내년이고, 우선 우리의 관심인 토론토 메이플립스를 주목해 보자.

작년에 정규리그 16위로 간신히 플레이오프(Play off)에 올랐다가 아일랜더에 3:0 으로 나가 떨어졌던 메이플립스의 금년도전망도 밝지만은 못하다.

23일현재 메이플립스는2승2패2무로 소속 노리스디비존에서 4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21일밤 메플립스·가든에서 열린 약체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는 간신히 4:4로 비겼다.

이 경기에서 주목할만한 선수는 79, 80시즌까지 토론토선수였던 래리·맥도날드, 빅맥(Big Mac)이란 별명을 가진 맥도날드는 캐나다대표 선수 출신으로이날 2골과 1개어시스트를기록했다.

금년도 NHL의 경기방식은 많이 바뀌었다. (1)NHL소속 21개팀은 시즌동안 80게임씩 치른다. 소속디비존팀과 6~7게임, 다른디비존팀과 3게임씩 치른다. (2)플레이오프(결승리그)도 완전히 바뀌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키 위해 소속디비존에서 최소4위차지 해야한다. 디비존 결승리그는 1위 : 4위, 2위 : 3위의 5전3선승제의 준결승을 치른후, 결승에서 7전4선승제를 벌인다. (3)4개디비존 우승팀은 각각 7전4선승제의 준결승, 결승을 벌인다. 심스디비존은 노리스디비존, 패트릭디비존은 아담스디비존과 만난다.

NHL전적과 토론토 메이플립스의 경기일정은 별항과 같다. (유승민 기자)

홈게임은 CHCH-TV를 통해 중계된다. 어웨이 게임, 때에 따라 중계된다.

◇NHL경기전적(10월23일 현재)

캠벨리그

노리스디비존	승	패	무승부	심스디비존	승	패	무승부
디트로이트	3	2	2	에드몬톤	5	3	0
미네소타	3	2	2	LA	4	3	0
위니펙	3	2	1	밴쿠버	2	4	2
토론토	2	2	2	콜로라도	1	5	2
시카고	2	3	2	칼가리	1	5	2
세인트·루이스	2	4	1				

웨일즈리그

패트릭디비전	승	패	무승부	아담스디비존	승	패	무승부
필라델피아	5	0	1	보스톤	5	1	2
N.Y. 아일랜드	4	1	1	퀘벡	5	4	0
피츠버그	3	4	2	버팔로	3	1	3
N.Y. 레인저스	2	5	0	몬트리얼	3	0	3
워싱톤	1	6	0	하트포드	1	3	2

1981-82 토론토 매플립스 경기일정

홈		어웨이	
10 월			
Sat. Oct. 10	Chicago	Tues. Oct. 6	Winnipeg
Wed. Oct. 14	Minnesota	Thurs. Oct. 8	Minnesota
Wed. Oct. 21	Colorado	Sat. Oct. 17	Quebec
Sat. Oct. 24	NY Rangers	Fri. Oct. 23	Buffalo
Sat. Oct. 31	Winnipeg	Tues. Oct. 27	St. Louis
		Wed. Oct. 28	Pittsburgh
11 월			
Wed. Nov. 11	NY Islanders	Sun. Nov. 1	Chicago
Sat. Nov. 14	Philadelphia	Wed. Nov. 4	Edmonton
Sat. Nov. 21	Boston	Fri. Nov. 6	Colorado
Sat. Nov. 28	Buffalo	Sat. Nov. 7	Los Angeles
		Wed. Nov. 18	Hartford
		Fri. Nov. 20	Pittsburgh
		Tues. Nov. 24	Philadelphia
		Wed. Nov. 25	NY Rangers
		Sun. Nov. 29	Detroit
12 월			
Wed. Dec. 2	Hartford	Sun. Dec. 6	Boston
Sat. Dec. 5	Washington	Fri. Dec. 11	Washington
Wed. Dec. 9	Winnipeg	Wed. Dec. 16	Vancouver
Sat. Dec. 12	Montreal	Sat. Dec. 19	Winnipeg
Wed. Dec. 23	Pittsburgh	Sun. Dec. 20	Chicago
Sat. Dec. 26	Detroit	Sun. Dec. 27	Hartford
Wed. Dec. 30	St. Louis	Thurs. Dec. 31	Detroit
1 월			
Sat. Jan. 2	Minnesota	Wed. Jan. 6	Minnesota
Sat. Jan. 9	Los Angeles	Thurs. Jan. 7	Calgary
Wed. Jan. 13	Colorado	Mon. Jan. 11	Boston
Sat. Jan. 16	Edmonton	Fri. Jan. 15	Buffalo
Mon. Jan. 18	NY Rangers	Sat. Jan. 23	St. Louis
Wed. Jan. 20	Calgary	Sun. Jan. 31	Chicago
Mon. Jan. 25	Minnesota		
Wed. Jan. 27	Winnipeg		
Sat. Jan. 30	Quebec		
2 월			
Wed. Feb. 10	Vancouver	Wed. Feb. 3	Vancouver
Sat. Feb. 13	Chicago	Sat. Feb. 6	Edmonton
Mon. Feb. 15	Minnesota	Sun. Feb. 7	Calgary
Wed. Feb. 17	Detroit	Thurs. Feb. 18	Detroit
Sat. Feb. 20	St. Louis	Tues. Feb. 23	St. Louis
		Wed. Feb. 24	Minnesota
		Sat. Feb. 27	Montreal
3 월			
Mon. March 1	NY Islanders	Thurs. March 4	NY Islanders
Wed. March 3	Los Angeles	Sat. March 20	Winnipeg
Sat. March 6	Montreal	Sun. March 28	Detroit
Wed. March 10	Chicago	Tues. March 30	St. Louis
Sat. March 13	Winnipeg		
Wed. March 17	Quebec		
Mon. March 22	Chicago		
Wed. March 24	St. Louis		
Sat. March 27	Detroit		
4 월			
Sat. April 3	Washington	Sun. April 4	Philidelphia

〈관광 안내〉 대서양연안 자동차여행

프렌취풍의 낭만과 정열

퀘벡의 가울은 크고 작은 구름들이 오색으로 단장된 모양에서 그 아름다움을 찾는다.

캐나다 다른 지역에서 온 여행자들은 라우렌티 앙을 북미의 가장 큰 스키휴양지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몬트리얼 북쪽 40~80마일에 이르는 이 유명한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산들에 둘러싸이고, 1천여개의 호수들에 접하고 있는 150개 이상의 휴양지를 가진 일년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명소들이다.

라우렌티앙에 있는 호텔들은 연례행사로 가을마다 포도주 저장 기념축제를 연다. 몬트리얼의 여러 호텔들은 음식솜씨로 유명한 라우렌티앙의 주방장들을 고용하기 위해 호텔의 최고급방을 제공하면서까지 유치작전을 벌인다.

이러한 조건과 9월말과 10월의 불타는 듯한 숲을 가미하면 이곳은 봄철와 파리를 잊게해줄 정도로 추억의 장소가 된다.

몬트리얼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불어권 도시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까페에 모여들어 마시고 즐기는 여름에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처럼 생각되나 가을에도 그곳에 갈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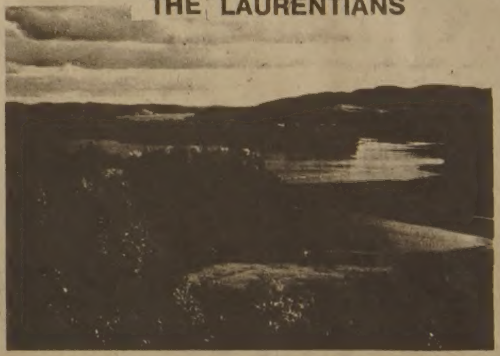
그중에서도 여름의 인파가 물러간 후 구 몬트리얼의 자갈포장길을 유유자적걷는 맛도 비길데 없는 즐거움이다.

9월내내 샥·까떠에 플레이스와 그밖의 곳에서 가두까페는 계속 문을 연다.

늦가을의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방문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벅석대는 시내지하도를 활보하는 것도 몬트리얼 방문의 즐거움중 하나다.

몬트리얼 시내에는 서브웨이와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7마일 이상되는 지하도가 있다. 지하도를 통하여 호텔, 기차역, 술집, 극장, 레스토랑, 사우나, 꽃집등 어느 곳이고 갈 수 있다. 심지어는 지하로 교회도 갈 수 있다.

ST. LAWRENCE SEAWAY



THE LAURENTIANS

몬트리얼은 여러 모로 보아 종합도시이다. 5천개가 넘는 레스토랑이 있어 세계각국의 음식맛을 볼 수 있고, 프로야구(엑스포스)와 풋볼(알루아)은 9월과 10월중 올림픽·스타디엄에서 관람할 수 있다.

몬트리얼 동쪽 168 마일에 소재한 퀘벡시티도 빼놓을 수 없는 가을 관광지이다.

프랜취캐나다의 혼이 서린 성략의 도시 퀘벡시티는 3백년 이상 묵은 건물들이 프랑스풍 분위기를 자아내고 세인트·로렌스강의 전경과 산보하며 지하술집에서 풍겨 나오는 "드주 냄새를 맡는 것도 낭만적이다. 붐비지 않는 가을의 서늘함은 뜨거운 여름의 한낮보다 이런 광경엔 안성마춤이다.

"구 퀘벡의 산보여행" (Walking Tour of Old Quebec)의 포켓여행안내서를 이용하면 퀘벡주의 3세기반 역사를 간직한 회색돌로 장식된 고색창연한 수도 퀘벡시티의 관광을 만끽할 수 있다. 이 여행안내서는 생·루이게이트(St. Louis Gates) 바로 안에 있는 시여행자 안내소 (60 rue d' Auteuil에서 얻을 수 있다.

이때 레스토랑 안내서도 동시에 얻어두는 것이 좋다. 만약 이 고도의 생활을 흠뻑 즐기고 싶으면 옛날 호텔과 시내에 있는 옛저택들을 개조한 여행자의 집들에 대한 안내서도 얻어두면 편리하다.

또하나 라우렌티앙 가을경치에 필적하는 퀘벡 가을의 장관은 퀘벡시티에서 가스페(Gaspé)반도까지980 마일의 순환여행이다. 대서양 연안을 끼고 깎아지른 암석들 사이로 오르내리며 자동차여행을 하는 것은 영원한 추억거리가 된다. 가스페의 북동쪽 코너의 풍경은 그중 금상첨화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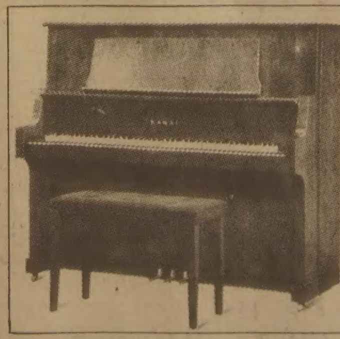
(계 속)

GRAND OPENING SPEC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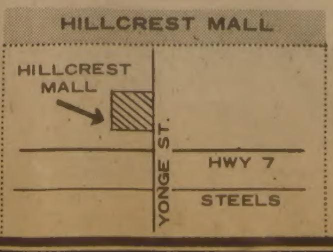
"개업특별 할인세일"

~~~ 기간 : 10월31일까지 ~~~

㊉UPRIGHT PIANO



KL-702



안녕하십니까?
교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속에 날로 번창하고 있는 저희 KAWAI KEYBOARD센터는 금번 HILLCREST MALL안에 또하나의 KEY BOARD 센터를 개설하고 여러분께 특별할인 봉사코저 하오니 계속 많으신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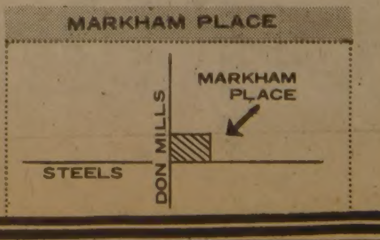
대표 : 윤 호 섭
전화 : 883—9407, 881—8211
세일즈 매니저 : ALLEN DUMA

KAWAI KEYBOARD CENTRE

CE-7,
(OPEN WALNUT)
REG. $3,125
SPEC. $2,685

㊉GRAND PIANO

KG-1C
REG. $8,995
SPEC. $7,645


~~~

스페인에 「포르노전쟁」

곳곳에 성자유화 물결

누드잡지 · 야릇한 광고
뒷골목 매춘부 40여만

프랑코 총통의 서거로독재체제가 붕괴한 이후 스페인에는 성자유화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다.

정부당국은 최근 포르노순찰대를 출동시켜 누드잡지와 매춘부등에 대한 일체단속을 펴고있는데, 당국의 대포르노전쟁은 승산이 없을것 같다. 스페인의 관계당국이 반포르노 캠페인에 나선것은 이번이 3번째.

프랑코체제 말기까지는 가두에서의 단속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예컨대 서점앞에 장식해놓은 고야의 명작「나체의 마야」를 본 경찰관이「공중도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철거를 명령하면 간단히 끝났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양상이 달라져, 내무성의 단속이 큰 곤란에 직면해있다.

내무성은 최근 각지방지사들에 대해 포르노가 일반인들의 눈에 띄는것은규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가운데는 가두로 부터의 매춘부추방, 영화관 앞에걸린 에로틱한 포스터 일소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40년간의 엄격한 독재체제에서 돌연 해방되어 서구각국및 북미와 마찬가지로 성의 자유화로치닫고있는 이 나라에서 이같은 포르노 규제는 용이하지가 않다.

수도 마드리드의 많은영화관에서는「소프트코어」의 포르노영화를 상영하고, 신문판매대에는 표지를 누드사진으로 장식한 외설잡지들이 넘쳐 흐르고 있다.

또 신문에는「라켈스양, 루시아양과 함께 한잔마시고 마음껏 즐길수 있는……전화번호는…」등등 갖가지 이상야릇한 광고들이 눈에 띈다.

한 주간지 보도에 의하면 스페인에는 현재 40만명에 달하는 매춘부가 있다고 한다. 2년전 교통경찰관들에 의한 특별순찰이마드리드에서 시작 되었는데, 그때의 단속대상은 무법운전사가 아니고, 「나체의 여성」과 신문판매대등에 놓인 포르노 잡지였다.

푸에르타·델·소르 광장등 주로 마드리드 구시가의 중심부에서 행해진 일체단속은 완전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스페인 거리를 누비는 누드여성이 시민의 눈을 끌고있다.

반포르노 캠페인이 시작된지 2개월이 지났을때 내무성 대변인에게성과를 물었더니「아직은 시기상조다.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성에대한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내무성이이번 캠페인의 성과를 발표할수있게 되기까지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것 같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지난 22일자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㉛중 ×표 부분에 오늘의 대목이 빠졌기에 첨가합니다.

22. 법의 형태

고작해야 한중의 말린고기였다. 그러나 그때쯤엔 새들이 알을품고 작은 도랑에는 알을까려 올라온씨커들이 우글우글 했기때문에 그만한 양식이면 충분했다. 벨리카리가 도보로 나흘째 여행을 했지만 겨울에 개썰매로 한나절 가는 거리였다. 특히 이 지역은 작은 두 호수사이에 있는 바위산이었고 바위돌이 어쩌나 큰지 겨울의 이글루는 여기에 비하면 아주작게 보일정도였다. 이 바위사이에 꼬불꼬불 나있는 길이 사슴이 지나다니는 곳이었고, 이 근처에 벨리카리가 덫을 놓았었다. 그의짗은 가죽신발은 햇볕에 닳아서 수증기가 무럭무럭나는 바위를 기어올라갈때 자꾸 미끄러 졌다. 그의 등뒤로 물에찬 들판이 아지랑이 때문에 흔들려 보였다. 파란 이끼가바위를 덮었고, 땅에서 자라는 이끼도 자갈밭에 재색과 푸른색의 잎파리를 올려 밀고 있었다.

벨리카리가 첫번째의 덫을 발견해보니 치어 있었다. 한중의 털을보니 흰여우가 치었던 것이 틀림 없었는데 모래에 나있는 발자국을보니 굶주린 늑대가 덫이 친후에 다녀갔다는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두번째 덫은 그대로 있어서 배낭에 넣고 계속해 다음덫 을 찾아보았다.

그의앞에 큰 바위가 골짜기처럼 둘로 갈라져 있었고, 벨리카리가 그 입구에 가까이 가자 두마리의 큰 북극토끼가 바위밑 컴컴한 곳에서 뛰어나와 잿빛의 유령처럼 소년앞으로 휘달아나 버렸다.

벨리카리는 전연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활집에서 활을꺼내 화살을재워 막 앞으로 나아갈려고할때 까마귀의 목소리가 후덕지근한 고요함을 깨트리고 앞에서 들려왔다. 벨리카리는 골짜기의 깊은 그림자속에 잠시 멈추어섰다. 그리고 그의 심장은쫓기는 토끼가슴처럼 통당거렸다. 그는 갑자기 공포에 떨렸고 어쩌할바를 몰랐다. 그의 마음속에는 까마귀의 신이 자기에게 말하고 있으며 자기가 가는길목에위험이 있다는것을 경고해주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어떤위험일까? 어쩌해야좋을꺼? 그게 사람을 골짜기 끝으로 유인해가는 바위귀신인 아누아일까? 아니면 사람의피를 빨아먹는 긴다리 하나를가진 귀신 빠이자일까? 벨리카리는 통 알재간이 없었다.

그는 자기가 온길로 살금살금 뒤돌아서서 사향소뿔로만든 활에 살을하나메워 돌아갔다. 골짜기를 빠져나와 컴컴한 골짜기옆에 솟은 바위꼭대기로 올라가서 보이지 않던 앞쪽의 후미진곳을 자세히 내려다보았다. 골짜기가 막 다시 솟아오는, 돌을던지면 닿을만한곳에 바렌에서 제일큰아클라라는 곰이 보였다. 그는 놀래서 온 몸의 피가목구멍을 꽉 조여오는것 같았다.

아클라, 북극의 백곰보다 서있을때는 두배나 큰 무서운 갈색의곰. 아클라, 극소수의 백인이 들어본신비로운 괴물, 모래에난 앞발의 자국이 사람의 팔길이 만큼 긴 무서운 아클라, 이 사람들의 말중에서 무서움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이름인 아클라!

이 곰은 너무나 희귀해서 이할미우트의 대부분사람들은 그의 발자국을 한번도 보지못하게 되는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로 바렌에 갈색의 큰 곰이 살고있었다.

지금 벨리카리는 그곰을 보았고, 그가들은 수많은이야기중에 이놈이 얼마나무서운가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까마귀의신이무엇을 경고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젊은이의 패기를 갖고 벨리카리는활을 힘껏재어 가날픈 화살을 활에서 튕겨 보냈다. 검은신은 정말 고맙게도 소년이 쏜 화살이 큰 갈색곰이있는 훨씬 전에 떨어지도록 해주어 아클라는 바위에 엎드려있는 작은 소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등성이 너머로 육중한 몸을 느린걸음으로 옮겨갔다.

벨리카리는 한시간이 지난후에야 바위에서 내려와서 무서움에 떨면서골짜기를 돌아 세번째의 덫을 찾아냈다. 덫은 처음는 자리에서 무엇에 끌려갔고, 쇠줄이 연약한 나무가지처럼 끊겨 버렸다.

그 주위는 검은새털이흩어져 있었고, 덫과 주위 돌에는 채 마르지않은 피가 묻어 있었다. 벨리카리에게 경고를한 까마귀가 그 덫에 치었는데 이제는 발목과 머리윗쪽에붙은 주둥이 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벨리카리가 여우를 잡으려고 놓은덫에 이 까마귀가 와서 치고 말았던 것이다. 아클라가 닥아오자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그리고 벨리카리가 경고를 듣고 곰이 까마귀를 잡아먹을때 오던걸음을 멈추었기 때문에 소년은 살았고 그대신 새는 죽고말았다.

벨리카리는 상당히 무섭기는 했어도 마지막 덫을 찾아낼때까지 무사히 여행을 마치었다. 그는 재빨리 행동했으며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덫을 모두 걷었다. 마지막 덫을 찾아내자 뒤로 돌아서서 뛰지는 않았어도매우 빠른 걸음으로돌아왔다. 잠시 멈춰서 까마귀의 발목과 부리를 주어서 어깨에 두루고 다니는 부적 주머니에 넣었다. 동네까지 걸어서 아직도 반나절쯤의 거리까지 왔을때 한때의 까마귀를 또 만나게 되었다. 이번에는 이한때의 까마귀를보고 놀라지도 않았고, 어리둥절하지도 않았다. 그대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랐다. 까마귀떼는 검은구름처럼 남쪽에서 날아오고 있었다. 아마 200여마리나 될것 같았다. 까마귀는 공중에 높이떠서 북쪽으로 똑바로 날아왔다. 그중의 작은무리의 선두는 행진의 선두가 곡예를 부리며 뒹구는 것처럼 공중에서 거꾸로 떨어지며 재주를 넘었다.

사실 이들은 굉장한 장관을 이루었다.

벨리카리는 산위로 올라가 까마귀가 빙글빙글 도는곳을 내려다 보니 거기에 무엇이 오는지 보였다. 멀리 남쪽으로 칙칙한 육지의 표면이 움직이고 있었다. 육지는 아지랑이때문이 아니고 걸어오는 사슴으로 물결을 일으키고있었다. 벨리카리는 무서운 아클라도, 지난겨울의 비참함도 모두 잊고 미친듯이 산아래로 뛰어내려가며 동네가 보이자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무슨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모든동네사람들이 텐트에서 나와있었다. "툭투미에"(사슴이 온다!)하고 소리를 지르자 모두들 이곳에 사슴이다시오고 있다는것을 직감했다.

그래서—제3일—세번째의 이야기가 끝이났다. 이들 삼일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는 이들이야기에 관련된 수천의 날이 지난중에서 선택한 것이며 강가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광활한 평원을 밝히는 모닥불을피워놓고 밤을새워 꽃피우는 이야기 중에서 얻어진 귀중한 것들이다. 이들 과거에 속하는 사건과 이야기들은 이땅에 사람의 음성과 기억이 살아있는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것이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產을 위협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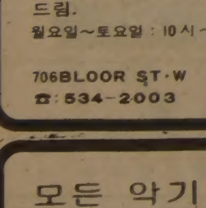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d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 (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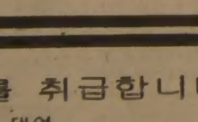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 사 광고국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534-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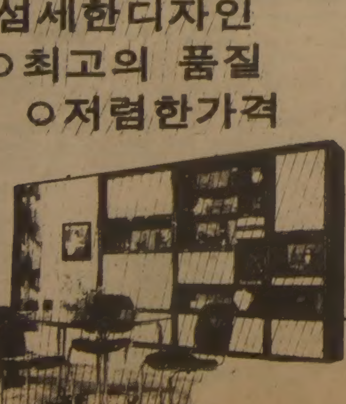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생활가구 · 생활예술
ecosys
MODERN FURNITURE
멋과 품위 ■ 자랑하는 가 구 점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섬세한디자인
○최고의 품질
○저렴한가격



2300 YONGE ST. TORONTO
Yonge Eglington Centre
486—0397 김만구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 598—0451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관용렐 5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주40시간 이상)
MAIN & GERRARD ST. 지역
☎ : 691-3363

풀타임 남자헬퍼구함, 경험자에 한함 :
오후3시~밤12시, QUEEN과 DUFFERIN
☎ : 534-3338(아침9시~3시까지 전화) 미세스 김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
시간당 $4 이상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362-2300

자수기계 OPERATER구함
경험있는 분은 월급이 많음
☎ : 769-4726

"급 구"
① 윤전기및 인쇄용카메라 기술자
② 윤전기및 인쇄카메라 기술 배우실분
☎ : 533-2361. 미세스 김

재봉사 구함 :
FINCH & DUFFERIN
☎ : 636-8348

경험있는 풀타임 남자헬퍼구함 :
미시사가 지역
☎ : 823-2445(R), 822-4895(B) 미스타 심

파트타임 여자헬퍼구함 :
월~금 하오3시반~하오9시반, 토 상오8시~하오6시
☎ : 598-1140 (칼레지 써브웨이 안에 있음)

주말에 가게에서 일할 경험있는 파타임
스카보로지역 학생헬퍼 구합니다.
☎ : 267-4770

얌전한 아기를 보아주실분 구함.
입주 또는 출퇴근 가능.
SCARB. E. ☎ : 284-3031

플라자 내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600, 아스킹 $32,000, 리스8년+옵션
☎ : 255-5038 미세스 BORDA

매매및 양도

74년형 닷지 I 밴트럭 팝니다.
성능이 우수함
☎ : 248-4578 미스타 홍

핀볼 기계와 비데오 게임 : 액셀런트 비즈네스 매매
☎ : 767-7998, 762-5455
OR 245-5544 PAGER #4701

좋은지역에 위치한 바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주매상 : $3500~4000 리스 : 4년
ASKING : 29000+스탁(좋은 OFFER를 줌)
주소 : 1430 DUNDES W.
☎ : 531-0773 Mr.김 (직접내방바람)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530-0748 DAVID

삐커 프렌차이스 매매 :
좋은 비지네스 직접내방원함(FINCH & BIRTCHMOUNT)
(스카보로지역) ☎ : 293-1893 (CALL 9AM~3PM)

스토아달린 빌딩 팝니다.
☎ : 653-4633
Mrs. 코메스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550
☎ : 523 : 7101 (해밀톤)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 HIGH PROFIT, ●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 PREMIUM LOCATION.
●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 ASK. MR전, MR. 친 ☎ : 745-5555

빌딩매매 : ASKING $490,000, 4개 아파트와
음식점 최저 다운은 $100,000.
464 SHERBOURNE ST. 직접내방 요함

도나스 샾 매매 : 이윤 좋고 매우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
시간짧음 (주6일 열음, 하루 11시간 영업)
관심 있는분은 직접 내방요함 55 KENSINGTON AVE. Tor

일본식 식당과 SHOGUN라운지 매매 :
일본식 식당 : 85좌석, 라운지 : 105좌석,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으며 개업한지 3개월 되었음.
동업자나 사실분은 Correct Call로 연락바람.
HALIFAX, N. S.
☎ : 집(902) 443-5789, 식당 : (902) 429-6155
라운지 : (902) 429-6955. MR. KIM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535 2804 미세스 김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플라자내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 $5600 아스킹 : $32,000리스 : 8년+옵션
☎ : 255-5083 Mrs. BORDA

비자와 매스터카드로!
VISA
오시지 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본 사 · 광고국 : **533-2361**

성업중인 몬트리올에 위치한 그로서리
(맥주와 포도주 취급) 스토아를 급매코자함
주매상 : 5천3백달러이상 보장, 권리금 : 4만5천
+스탁(만달러 정도), 현금 : 2만5천
☎ : (514) 486-0944
(95% 영어지역)

매매(PINBALL MACHINE)
성능좋은 ELECTRIC혹은 ELECTRONIC TYPE 14대
가격 개당 $275~$475.
☎ : 266-5037

DRY CLEARNING PLANT FOR SALE
2 STORES GOOD INCOME
☎ : 922-2241 (ROSEDALE AREA)

메뉴팩츄얼 재고정리 세일 :
자꾸, 단추, 합사, 씽글바늘재봉틀, 아이들 겉옷들.
148 AUGUSTA AVE. 2층
☎ : 366-5439

A. M. F. M. 카셑(자동차) $85부터
CITY AUTO RADIO SALES SERVICE INSTALLATION
102 TURBINE DR. WESTON, ☎ : 743-5669

● 오릴리아 지역 하이웨이부근 : 레스트랑, 기스바
(3.9에이커 면적), 에어콘, 3베드룸아파트, 아스킹
$149,500
● 오릴리아-배리 가스-스낵바 :
주요하이웨이, 에어콘시설.
$235,000+스탁
● 오릴리아 버라이어티 · 기푸트SHOP
바쁜거리 3베드룸아파트, 엑스트라 가게,
렌트 : $125,000+스탁, 보다 더한
보다 더한 소식을 원하는분
☎ : 862-0788(Ex.) 53 WALTER CONSTABLE

이주 관계로 팝니다. 희망자 방문요망
햄버거, FISH & CHIPS, 스테이크 식당,
6일 매상 $2000(일요일 휴무)
23 HELENE ST. NORTH MISSI.
☎ : 274-7010
CENTURY BURGER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악 기 점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자동차 수리 일체). 226-5430(R)
20 ROGERS RD. 변 달 원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에어콘 · 히팅 · 냉장고

에어콘 · 냉동 · 전기 · 히팅 ·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 259-5822, 255-8301 (R) 252-2963 MR. 오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 · 신경과 · 부인과 · 침구과 · 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넘파 · 김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가나안 카텐 · 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기 타

SOMÉ JEWELLERY 쏘메쎄리
●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숙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630 BLOOR ST. W. TOR.
☎ : 535-7772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니폰 · 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다이아몬드 · 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구 혼

"구 혼"
냉동기술 1급 자격증 소유한 31세의 대졸남성
정숙한 여성원함.
☎ : 654-1922. 김 윤 수

모눈종이 위의 生 <233>

趙善作 作
金光培 畵

돌개바람불다 ⑭

유장훈 갈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다는 듯이 적실한 배신감마저 얼굴에 나타냈다.

나는 그런 그와 더 이상 얼굴을 맞대고 있기가 싫었다. 그것은 유장훈 갈뚝 뿐만도 아니었다. 어디가에서 잠을 깨어 이곳으로 돌아올 그. 그와 다시 얼굴을 맞대어 어쩌자는 말인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유장훈 갈뚝에게 머리를 까딱해 보이고 밖을 나왔다.

유장훈 갈뚝은 그런 나를 멀뚱히 바라보다가 갑자스럽게 뒤쫓아 나와 복도에서 내 어깨를 잡았다.

『아까 그거, 미스 안이잖 [illegible] 좋은 거 아뇨? 아, 어젯밤 술집의 파트너가 미스 한이었나, 맞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나는 그를 향해 비죽이 웃어 보였다.

『그럼 잘못들은 모양이죠?』

『그래, 그래, 맞아. 그런데 어디 가려는 거요? 그 친구 만나보지도 않을 거요?』

『아뇨』

나는 유장훈 갈뚝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리고 복도를 걸으며 말했다. 『안녕』 등뒤에서 그가 좀 다급한 말씨로 말했다.

『어젯밤 일, 나만 알고 있겠소. 미스 안도…』

그를 돌아보고 웃어 보일까 하다가 나는 그만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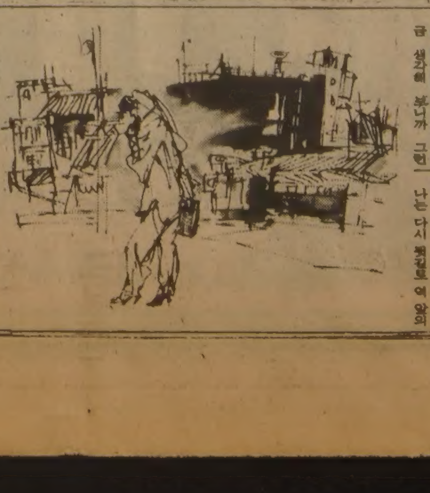
여관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밝은 겨울아침이었다. 간간히 바람이 불었지만 거리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보도에서 나는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틈에 섞였다. 얼마쯤 걸으니까 지난밤의일이 아주 먼데서 전해져온 다른 사람들의 미미한 소문처럼 가락가락해졌다. 유장훈 갈뚝마저도 그렇게 내 뇌리에서 떨어져 갔다. 이상한일이었다. 혹시 내가 백치가아닐까 하는 생각도 나는 문득 했지만, 곧 그런 깨우침으로부터도 떨어져 버렸다.

겨우 이틀밤을 보낸 거리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는마치 그곳에서 몇년을 살아온 사람처럼 풍경들이 눈에 익었다. 큰 길로 나오니까 그런 느낌은 더욱 그랬으며, 보도를 오가는 사람들마저도 오랫동안 사귀고 지나온 사람들의 얼굴같은 느낌이었다. 얼굴을 돌고 나는 천천히 걸어서 버스 터미널로 갔다. 서울행 티켓을 한장 샀는데 그것은 사십분 뒤에 출발하는 차편이었다. 사십분 동안 나는 더 거리를 걷기로 했다. 아침식사를 해두면 꼭 알맞은 시간이었지만 위(胃)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다시 뒷길로 역 앞의 광장 쪽을 향해 걸었다. 고만고만한 숙박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거리였다. 뒷길로 접어들면서 나는 혹시 어느 여관 이가의 현관에서 불쑥 뛰어나오는 그와 부닥뜨리지 않을까 염려했고, 내 발걸음은 공연히 빨라졌다. 그러나 뒷길을 모두 빠져 나오도록 그런 우연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역 앞 광장에 앉고 있는 작은 돌개바람 하나와 만났다. 뒷길을 빠져나와 내가 역 앞 광장에 눈을 주었을때 돌개바람은 바로그곳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밀감 따위를 파는 노점들이 늘어선 양지, 어디쯤에서 생겨난 작은 바람의 소용돌이는 잠시 우물쭈물 제 자리에서 멈칫거리는 듯싶었다. 그러나 곧 방향을 바꾸어 맹렬한 속도로 광장을 가로질렀고,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듯 싶더니 그곳에서 짧은 생애를 마쳤다.

나는 다시 버스 터미널 쪽을 향해, 이번에는 머리를숙이고 걸었다.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변 의 섭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수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우리말 國際化시대 開幕
라이온스 국제이사회서 10번째 公用語로 채택

우리말의 國際化時代가 開幕됐다. 자유우방국가의 1백53개국이 가입하고있는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日本 京都에서 국제이사회의를 열고 韓國語를 라이온스의 국제公用語로 채택, 10번째의 公用語國으로 昇格했다. 이로써「奉仕의 유엔총회」로 불리는 라이온스 국제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라이온스회의에서 우리國語가 美·日·佛·獨·스페인語등의 9개국어와 함께 동시통역이 돼 나오게됐으며 각종 라이온스문서작성도 한국어로 기록하게되는등 世宗大王의 한글창제이래의 최대의 慶事를 맞았다.

話題의 샘 ①

한글創製후 最大慶事…會議·文書에 쓰기로

◇1백53개회원국

라이온스 회원국은 자유우방의 1백53개국이나된다. 봉사의 네트워크로는 유엔總會규모를 무색케할만큼 방대한 민간단체로 꼽힌다. 이들은 自國內에서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1백53개국이 다 모이는 국제대회를 1년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다. 그간 국제대회에서 쓰는 말은 英·佛·獨·日·스페인·이탈리아·핀랜드 포르투갈·스칸디나비아語등 9개국어.

이들 9개국어는 라이온스 회원수가 5만명이상에 달하는 나라의 국어이거나 여러나라에서 국어로 쓰고있는 이유로 해서 라이온스에서 公用語로 쓰는것이다. 그러나 한국어는 한국이외에선 쓰는 나라가 없어 公用語채택은 그간몇가지문젯점이 제기됐었다. 동시에 스페인·핀란드·이탈리아등은 라이온스 회원수가 한국보다 적은 3만명 내외인데도 이들 나라 말을 공용어로 채택하고있다는「比較優位」論이 국제라이온스이사회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또 문젯점이 있었다. 公用語를 하나 더 추가하는데 드는 비용이 연간 20만달러나 된다는 재정상의 문제로 반론이 제기됐었다.

시카고에 있는 국제라이온스본부의 한국어課 인원을 보강하고 각종회의에 한국어 동시통역인을 배치하는등 인력과 기술문제가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라이온스연합회 朴昇善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한국 라이온스勢를 업은 강력한 제의가 인정을 받게됐다.

한국의 라이온스勢는 클럽 7백80개소에 회원이 3만2천명에 달한다. 라이온스 조직은 최소한 35개 클럽이상이 모여 1개의 地區를 결성하게 되는데, 한국엔 지역별로 9개의 單一地區와 이들 단일지구가 2개이상 모인 4개의 複合地區라는것이 있다.

單一지구의 최고책임자를 總裁, 복합지구는 협의체라서 議長을 각각 두고있는데 이들 13개의 單一및 복합지구의 최고책임자 13명이 모여 무기명투표로써 한국라이온스연합회의 회장을 互選하게 돼있다.

13명이 모여 서로 연합회회장을 할만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總裁건 議長이건, 聯合會長이나 임원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는 누구나 1년간뿐인게 특징.

『라이온스회원이면 누구나가 임원·의장·총재·연합회장을 할 자격이 있기때문』이라는것이 朴昇善연합회장의 설명이다.

이같은 임기1년규정은 국제라이온스협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현 국제라이온스협회의 회장은 무라까미·가오루씨로 日本人이다. 무라까미회장은 1917년 미국인 멜빈·존즈에 의해 라이온스클럽이 創始된 이래, 65년만에 국제라이온스협회 회장에 선출된 유일한 동양인이다.

국제협회에는 회장외에 제1·제2·제3부회장 직제가 있어 부회장이 3명이 있으며 국제이사회의 理事가 전세계적으로 28명이다. 한국엔 金用雨씨가 국제이사로 유일하게 활약중이다.

앞으로 한국라이온스협회의 당면 목표는 제3부회장을 한국에서 맡는 일.

◇꾸준한 봉사활동

한국에 라이온스가 탄생한것은 23년전인 59년의 일로,

會員 3만2천명…年間 30억규모 奉仕活動

3백9단일지구 하나뿐이었다. 초대총재는 全禮鎔씨로 현재 그 法統을 이어오고있는 3 1 6 A 복합지구 총재인 朴昇善씨는 20代총재가 된다.

라이온스가 회원수나 봉사활동면에서 급성장을 한것은 최근5~6년 사이의 일. 3 1 6 A지구(서울·강원·제주)의 경우 회원수가 1만1천여명으로 이를 클럽수로 보면 2백30개 클럽에 이르러 숫적인 팽창이 기본단위를 초과하고있는 상태다.

이때문에 내년부터는 江原道를 單一地區로 分立하고 서울도 3개로 分立시키기로 계획중인데, 해마다 치르는 3 1 6 A지구대의원대회때엔 1천여명의 대의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행사라서 分立은 불가피한 실정.

라이온스회원들은「봉사의현장엔 으레 라이온스들이 있다」고 말할이만큼 각종형태의 봉사를 해왔다. 개중에는 회원자질이나 처신문제에 극히 부분적 지적이 없었던것은 아니나,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의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공헌도에서 큰 물줄기를 형성하고있음을 부인할수 없다.

흔히들「돈 많은 사람들의 친목단체」로 편한 善心이나 부리는것으로 보는 눈도 없지 않았지만 라이온스만한 일반적 봉사단체도 그리 흔치는 않다.

나도 무의촌 의료봉사, 언청이 수술, 맹인 개안수술같은 의료봉사에서 수재민구호활동, 장학금지급, 사회복지시설지원, 장병위문, 무료법률구조, 자연보호·캠페인등등 지역사정과 형편에 따라 十餘一般의 정성을 쏟고 있다.

노력봉사를 제외한 봉사규모를 돈으로 치면 연간 30억원에 달한다.

회원구성은 사업가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의사·변호사·교수·정치인·연예인등, 직업이 다양한데, 회원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봉사의 여력이 있을만한 뚜렷한 직업을 가져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인격과 덕망·공헌도·경제적 기반이 인정받을수 있어야한다. 회원들은 모임을 가질때마다『자기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근면 성실하여 힘써 사회에 봉사한다』는 8개항의 윤리강령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게 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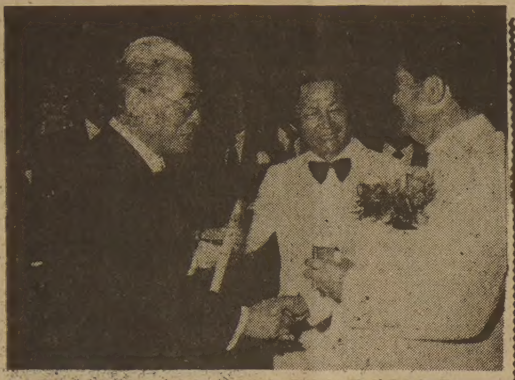
『불행한 사람을 동정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우의를 돈독히 하며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읽으면서 라이오니즘을 다진다.

이래서 L字배지는 국경과 종파, 민족을 초월해 세계 곳곳에서 동지애를 교환하며 인도주의 사업이 계속 되고있는데 京都대회를 끝내고 국제이사 부부 14쌍이 지난 11일~13일까지「라이온스 최대성장국」인 한국을 다녀간 일도 큰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북괴가 판 땅굴에서 올림픽 개최지 잠실등을 돌아보면서 한국의 현실과 참모습을 재확인하게, 됐고 이 기회에 올림픽이 열리는 88년을 전후해서 라이온스국제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할것을 한국대표들이 제안했다고 한다.

『라이온스 국제대회는 회원국이 1백53개국에 달해 각국대표들과 임원·회원합해서 30만명이 모이는 굉장한 행사죠. 개최국에선 큰 페스티벌이 벌어집니다.』

6년전 멕시코 국제대회때엔 이 나라 특산품 보석인 오팔이 대회기간중에 바닥이 났을 정도로 대회의 파급효과는 엄청나다는게 朴회장의 설명.

한국어의 국제화시대 개막과 함께 라이온스국제대회 한국유치가 성공한다면 올림픽유치에 이은 1등국가의 지위는 더욱 다져질것 같다. 〈朴愚兼기자〉


◇국제라이온스 탄생이래 65년만에 동양인으론 처음으로 국제라이온스협회장이 된 무라까미·가오루씨Ⓐ가 京都국제대회에 앞서 한국을 방문했다. (가운데가 朴昇善한국라이온스연합회장, 왼쪽은 前田駐韓日本大使)

◇국제라이온스협회장 환영을 위해 롯데호텔에 모여 개회식을 갖는 라이온스와 라이오니스。

海外同胞版

在日同胞 85%가 우리말 모른다
70萬名중 1세는 15%…韓國學校에 보내지도 않아

해가 갈수록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점차 우리 말을 사용할줄 아는 동포수가 줄고있다. 이는 70만 재일동포중 1세들의 수가 이젠 15%정도밖엔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가 母國語를 모르는 세대들이기 때문.

일본의 경우 현재교포민족교육기관은 東京韓國學校를 비롯, 京都 한국학교와 大阪建國학원, 大阪 金剛학원등 4개소.

이 4개소의 韓國학교에는 모두 1천4백명가량의 初·中·高校生이 다니고 있지만 ●그중 상당수들 본국서 온 공관직원이나 상사직원들의 자녀들이 차지하고있어 실제로 재일동포중 자녀들을 韓國학교에 보내고있는 수는 얼마되지 않는다.

최근 金剛학원 大阪한국학교 理事長에 취임한 朴勝究씨(64·勝濱工業社長)는 조국과 재일동포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民族敎育문제라고 말하고 앞으로 2세들에 대한 민족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재일동포 전체의 團合된 敎育觀이 요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동포사회의 지도층인사들은 말로만 民族敎育을 부르짖으면서 자녀들은 日本학교에 보내고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실정에대해 大阪한국학교의 李鍾贊교장은『민족학교에대해 동포사회가 좀더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동포가정에서의 민족교육을 뒷받침할만한 가정교육의 필요성도 아울러 강조했다.

李교장은 일본 안에있는 한국학교에 대해 우리 民族학교는 현재 1개 學級당학생수가 30~40名선으로 이상적인 일류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民族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大阪한국학교 金剛학원을 지원하기위해 동교의 이사장직을 맡은 朴勝究씨는 京畿도 安城태생, 1940년 同志社대학을 나와 55년 초대 大阪興銀 理事長을 지낸 在日동포사회원로의 實業人.

본국으로부터 많은 청소년들을 데려와 기술을 습득시키고 있다.

앞으로 日本사회내에서 우리民族교육기관이 지향해야할 길은 日本교육기관 이수자와 동등하게 대접받고 행세할수 있는 보장과, 우리말을 유창하게 사용할줄 알고 조국관이 뚜렷한 완전한 民族교육이다.

해외동포사회의 자녀교육문제는 이제 日本지역뿐아니라 美洲의 韓人동포사회도 그규모가 날로 커져가고 있고 南美, 유럽, 東南亞지역등 세계도처에 우리 동포들이 없는 지역은 없다시피 돼있어 해외자녀들에 대한 民族교육문제는 날이 갈수록 그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大阪支社】

해외 걸작 만화

◇야! 크다。

◇애들아! 씻고 들어가라。

◇하나만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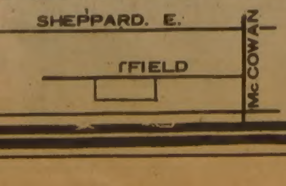
◇慈情

서 울 식 품
교민을 위한 김장철 최대의 써비스! 최고의 저렴한 가격!
— 물건이 매진 될때까지 세일 합니다 —

	REG.	SPEC.
●불고기등심 최상급 Lb.(10파운드제한)	2.69	2.20
〃 중 급 Lb.(10파운드제한)	2.49	1.96
●갈 비 Lb.(BOX제한없음)	1.69	1.29
냉동갈비 Lb.	1.49	1.05
●소 꼬 리 Lb.	1.35	.95
●참기름 깡통(일본제품) A품	10.90	9.50
〃 B품	10.50	7.40
●명 간 장 1gal.		6.90
●양 잠 피 1kg	2.25	1.80
●삼양라면 1박스(50개)당 15봉지 FREE(곧도착예정)		
●삼양냉면 1박스 5인용(1박스제한)	24.00	19.00
●청수냉면 1박스 2인용(1박스제한)	24.00	19.00
●오징어젖 Lb.(특별가격)		.80

	REG.	SPEC
●멸 치 젓 Lb.	2.99	1.99
●어리굴젓 Lb.	4.90	2.90
●한국고추가루 Lb.	3.95	2.90
●각종선물용 상품(gift) —20% 할인		
●마늘·생강(특별가격)		1.45
●찹살고추장	2.50	1.99
●된 장	1.50	.99
●달걀(1다즌, Large)		1.25
가게하시는 분은 1다즌당 1.23에 드림		
●물 미 역	1.39	.99
●무, 배추(1박스 구입시) 김장용 갈치젓($2.90) FREE		
●무, 배추(2박스 구입시) 뒴표간장($2.95) FREE		
●무, 배추(3박스 구입시) 한국산 굴($8.00상당 2파운드) FREE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탈 무엇을 말하자는 表情인가

柳敏榮교수 「한국假面의 造形美」분석

한국의 탈은 곧 한국인의 얼굴이다. 우리선조들의 얼굴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들 자신의 얼굴이기도 하다. 檀國大 柳敏榮교수(국문학)는 한국인의 얼굴인 탈을 造形的으로 분석,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한국의 탈」이란 학술강연회에서 「한국탈의 造形美」란 이름으로 발표, 관심을 모았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할 탈의 造形美를 파헤친 柳교수의 발표내용을 간추려소개한다.

◇山臺탈에 나오는 노장(老長)의 탈. 한국인의 心性이 小宇宙로 표현된 모습이다.

古代한국인의 「정신적小宇宙」표현

짐승조차 사람얼굴… 世界 어느가면보다 人間化

언챙이·절뚝발이등 非正常人 모습을 戱畵的으로

한국탈을 처음 대하면 그 괴상망측스럽게 생긴것에 놀란다. 한국탈이 괴상망측스럽게 보이는것은 대체로 3가지이유일듯 싶다. 첫째 강렬한 원색을 사용한 점이다. 四方과 中央을가리키는 辟邪의 五方色(赤·靑·黑·白·黃)은 서구적 정서에 젖어있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강렬하게 비친다.

…서 표현했기때문에 웃음에 앞서 괴기스럽게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전제로 우리 가면의 조형적 특성을 보면 세계 여러나라의 가면보다 人化되었다는 점을 들수있다. 하다못해 짐승까지도 사람얼굴을 하고있다. 북청사자탈 봉산사자탈 양주별산대나 봉산탈의 원…

…이 상당히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匠人的입장이 아닌 순전히 유희적이고 즉흥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면의 상징성이 비교적 약하고 신비 幽玄感이 적다. 그런 반면 해학적이다. 전체적으로 찡그리고 고민하는 모양의 가면보다는 유머나 놀란 표정이 많다. 우리가면은 자신이 웃지 않으면 남을 웃기는 가면들이 많다. 戱畵的인데 이를 비정상인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통영오광대의 비뚤양반과 鳳山탈춤의 도령탈처럼 입이 비뚤어졌거나 봉산의 말뚝이와 차양반처럼 언청이 또는 나병환자나 옴환자 절름발이등으로 나온다. …

…한회 남녀탈의 특징은 한국인의 양면성이라 볼수있는 諧謔과 悅情을 표현한점에있다. 바로 이점에서 한국탈은 고대 한국인의 정신 小宇宙의 표현이라 볼수있다.

【林敬子기자】

이슬람의 生死觀

오늘의政治現實·과거의 對기독교優越感이 그들의 아픔낳았다

믿음이 生命·財産보다 더 값진것

죽음은 「移徙」로 끝아닌 삶의昇華

宗敎의 執權기도, 創敎이래의 宿命

金定慰교수

<文博·中東史 外大이란語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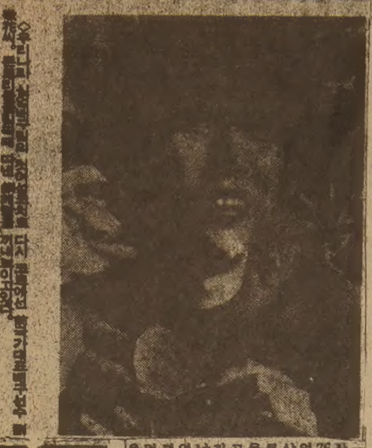
오늘날 이슬람세계에 暗殺및 폭파사건이 자주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하고있다. 그와함께 이것 또 이슬람敎의 특색이 아닌가 하고 의아하는 사람도많다. 그러나 이슬람교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生命의 尊貴함을 …

…좀더 잘 살아보려는 욕망을 그들도 가지고 있다. 즉 인간으로서의 一般性을 인류사회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共通性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우리에게 문제시되는 것이다.

흔히들 이란의 이슬람革命이후에 많은 處刑을 듣고 이슬람교도들은 잔인하다고 본다. 그러나 18세기의 프랑스大革命이나 20세기초의 러시아共産革命과 비교한다면 處刑의 實과量이 그렇게 가혹하다고는 볼수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革命과 反革命이 정치상황의 變動에 있어서 가혹한 斷面을 보여준 예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 예찬론자들은 가혹한면보다는 그것이 가져올 결과적인면을 더 중시하는것 같다. 따라서 오늘날 중동에서 일어나고있는 사건을 단순히 사건 그 자체만 본다면 올바른 이해가 힘들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歷史性에 基因하는 것 같다. 물론 여기서 이슬람의 특수성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

울림픽 메달리스트

몬트리올서 銅메달 땄을때가 제人生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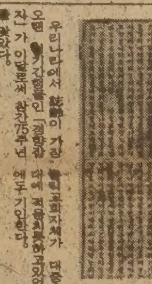
【崔基男기자】

創刊75周年 맞은 『경향잡지』

通卷 1천3백63號 기록

애국·종교·한글계몽先導

◇창간75주년 기념호의 表紙.



◇「경향잡지」의 前身인 「寶鑑」의 창간호 표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잡지가 … 1906년10월19일 … 창간 75주년 … 통권 1천3백63호 …

【丁熹기자】

서울서 「父女전시회」가진 中國人

서예가 林斌씨와 화가 林耘如양

◇父女가 함께 書畵展을 열고있는 自由中國의 서예가 林斌씨와 林耘如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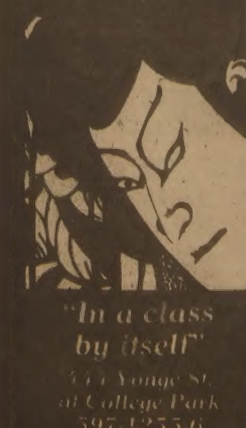
"한국의 丹楓은 일품"

【주】

새모델TV

구독신청은 533-2361

일본스테이크 집



Kabuki

전형적인 일본식

STORE HOURS
평 일:
스페샬점심시간
11:45AM~2:30PM
5:00PM~11:00PM
토요일:
5:00PM~11:00PM

일요일은 문을 닫지만 예약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일을 합니다.

※파티, 단체예약등 환영함.

"In a class by itself"
5?? Yonge St. at College Park
597-1255·6
Reservations accepted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 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약은 없읍니다.

中国商業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 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大中華薬材行

482 DUNDAS ST. W. TORONTO, ONT. M5T1G9
P.O. BOX 5181
STATION 'A' TOR., ONT.
(Spadina와 Dundas북동 코너)
OPEN: WEDNESDAY
CLOSE: TUESDAY
* 영업시간: 9:00AM~9:00PM

977-8858~9

燕山主의 魅力 <7>

한국의 戀人들

憎悪心과 競爭心

全完吉 (太平洋 博物館長)

연산은 아버지와 겨루다가 증오하기 시작한다。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성종과 견주어 능가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신하들이 번번이 성종을 본받으라고 아뢰고 성종의 치적과 어긋난다고 간(諫)했기 때문이다。성종을 좋아한 나머지 성종의 제사날 고기 반찬을 올리라고 명령하였는데 고기나 생선을 올리지 않았다하여 사옹원 관원을 국문하기도 하였다。

이런 일도 있었다。어느 날 내관 박성림(朴成林)이 세자의 처소에서 왔다。연산이 『세자가 얼마나 공부하였나?』 물었는데, 성림이 『세자의 기상이 꼭 성종을 닮았읍니다』 대답하자 대로하여 칼로 치는 바람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또 전하는 말로는 성종의 반신(半身) 영정을 가져다가 표적으로 삼아 활을 쏘기도 하고 술에 취하면 아버지 이름을 부르짖고 선릉(宣陵·成宗墓)을 파오라고 명령하기도 했다는 것이다。<燕山君日記 卷六十>

그러면 연산이 왜 이처럼 부왕을 증오했을까? 그것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너무 무관심했던 아버지에 대한 반감,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반발요인도 컸지만 자기딴에는 성종을 능가하나 신하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줄곧 부왕을 본받으라고 충고했기 때문이다。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성종과 견주어 말하고 따라서 달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연산왕은 궁중에서 활쏘기 대회를 열어 자신이 정승들과 겨루고 말을 달렸으며 활에 능한 무사를 직접 선발하기도 하였다。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가의 근본이 제사와 군사이며 사람의 행동은 활쏘기로 파악된다。상고해보면, 순(舜)임금이 활쏘기를 장려했고 주(周)나라때 제도화되어 주례(周禮)에 실려 있다。학교에서 활쏘기를 가르치고 있지만 과녁 맞히기를 주로 하여 힘만 숭상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옛날의 제왕들은 이것을 모두 중하게 여겼으나 성인의 교화가 쇠퇴해지면서 인심이 예와 같지 않아 비록 영특하고 현명한 임금이 있어도 거행하기 어려웠다。오직 우리 성종대왕께서 이것을 거행하셨으니 청사(靑史)에 미담으로 전하리라。내가 부덕하나 외람되게 왕업을 이어 밤낮으로 근심·걱정하며 항상 부하된 책임을 다 못하여 두려워한다。그래서 어제 3월1일에 공자께 제사드렸으며 좌우 시종(侍從)과 공경대부(公卿大夫)들과 더불어 대사례(大射禮)를 거행했다。』(1502·3·2)

정승들이 반대커녕 오히려 성종때의 대사례 규칙을 아뢰었다。

성종은 비밀 부신(符信)을 만들어 신숙주·한명회 등 두 서너 중신에게 주어서 임금이 부를 적에 증거물로 삼게 하고 불의의 변고를 막도록 하였다。

부신은 임금이 특정한 신하에게 신임의 표시로 주는 것인데 두 조각을 내어 한 조각은 임금이 지니고 다른 한 조각은 장수나 지방관이 지니는 신표(信票)였다。

연산이 이를 모방하여 승명패(承命牌)를 만들었다。승명패는 상아패와 오목패 두가지로, 오목패는 외방관원용이었는데 길가던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승명때를 만나면 꿇어야 했다。

그런데 성종의 부[illegible] 달리 연산의 승명패는 피해가 많으니 어린아이들도 길위쪽에 엎드리되, 말 탄 무너가 놀라 떨어지기 예사며, 도둑이 「승명이 온다」고 외치면 사람들이 모두 손을 거두고 거두지 못하므로 당시 사람들이 승명을 만날리치면 「시랑(豺狼)이 온다」고 하였는데 말투이 비슷하고 폐죽 역시 같았기 때문이다。

연산은 또 성종때와 마찬가지로 내화청(內畵廳)을 설치하였다。성종때는 잠시 설치하였었으나 연산이 상설하므로 사간(司諫)과 장령(掌令)이 『그림을 보고 싶으시면 외화청(外畵廳)에서 그려도 됩니다。어찌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읍니까』 고 폐지를 건의했지만 『내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종때부터 있었다』 고 거절했다。

또 1502년4월 왕세자의 유부(乳父)인 조인(趙禋)을 복직시켰는데 지평(持平:崔淑生)이 이것을 문제 삼자 『성종때에도 나의 유부 김영우(金永恩)에게 군직(軍職)을 주었으나 내가 폐예를 만든게 아니다。이일은 내가 말할 바가 아니다』 고 나무랐다。

이처럼 연산은 신하들보다도 성종의 고사(故事)에 밝았다。성종에 대한 보너스를 보더라도 그렇다。

연산은 일찌기 아우 진성대군(晉城大君:中宗)에게 집을 지어 주었는데 이번에는 딸 휘숙옹주에게 집을 지어주려하였다。그러자 대간들이 반대했는데 왕은 『성종께서도 公主들의 집을 지어주셨는데 성종께서 어찌 조종(祖宗)의 일을 생각지않고 하셨겠는가? 그렇다면 성종께서도 잘못하셨단 말인가』 후 고집을 꺾지 않았다。

기생문제도 그러했다。

당시 기생은 흰 치마를 입었는데 왕이 느닷없이 붉은 치마를 입히지 말고 평상복으로 대궐에 들이라(1503·9·12)하자 승지들이 『기생은 궁중에서 가까이 하게 되어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이 다른데, 만일 평상복으로 궁중에 들어온다면 궁인(宮人)들과 혼동될까 염려됩니다』 하였지만 『성종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경들이 알지 못하는군』 하였다。

연산이 왕위에 있었던 12년 동안 가장 커다란 실수는 민가 철거였다。왕궁이 내려다 보이는 집은 누구의 집이라도 철거하여 이주시키고 왕궁을 넓혔는데 민가철거에 대하여 대신들의 반대가 격렬했고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다。그러나 연산은 선왕(先王)들의 고사를 들어 강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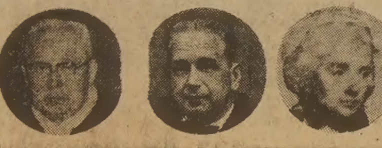
즉 1503년11월에 건축 금지된 경계안에 미은 궁궐 담장밑 인가를 모두 철거케 하였는데 추운 겨울이니 중단하자는 건의에 『세조께서 후원담을 물려쌓고 성종때 함춘원 담을 쌓았는데 그때 헐린 집을 어찌 다 셀수 있겠는가? 지금 헐릴 집은 많지않다。내가 내관(內官)을 보내어 백성이 운반하는 짐을 보았는데 정말 측은하다。그러나 그러다보면 끝내 철거할 시기가 없을것이다』 하였다。아마 세조 성종의 고사가 없었다면 연산이 감히 민가를 철거하지 않았을테고、더할나위없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면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연산왕은 가끔 궁궐을 나와 한 밤중에 산책했는데 당시 사관(史官)들은 이러한 왕의 행동을 정신이상자의 방황이라 표현하였다。그러나 연산의 이러한 행동은 성종모방에서 비롯되었다。성종은 가끔 궁궐을 나와 여기저기 다녔었다。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 모든면서 成宗을 꺾으려 애쓰고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이 사무쳐 父王영정에 활쏘기도

歷史로 본 이 週의 人物들

□咸台永 死亡
□하마숄드 노벨상수여
□넬슨제독, 연합함대 격파



◇咸台永 ◇하마숄드 ◇넬슨

넬슨 佛·西연합함대 격파한 영국의 해군제독
하마숄드 죽은후에 노벨상을 수상한 최초의 인물
咸台永 직접선거 사상 처음으로 부통령에 당선

▲하마숄드 前유엔사무총장에 노벨상 수여(1961·10·23)

前유엔사무총장 다그·하마숄드는 死後 노벨상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다。그는 1905년 스웨덴의 名門貴族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부친은 1914년부터 1917년까지 스웨덴 수상을 지냈고 제1차 대전의 戰火에서 祖國을 지킨 사람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感受性이 강하고 생각이 깊었다。그러나 감정을 노출시키는 법이 없이 언제나 침착했다。한마디로 말해 외유내강의 전형적인 신사였다。

大學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뒤에 學位까지 받았으나 文學을 좋아하여 특히 T·S·엘리어트의 詩를 비롯해서 괴테、프로스트 혹은 조이스의 作品들을 탐독했다。

이러한 내성적이고 사색적인 성격은 오히려 활발한 北歐여성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는지 그는 학생때 한 여성을 두고 同窓한 사람과 사랑의 경쟁을 하다가 지고 말았다。

그 여자는 T·S·엘리어트 같은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후 하마숄드는 결혼하지 않고 죽을때까지 독신을 지켰다。

그가 처음 官界에 발을 들여놓은것이 1930년 26세때다。

한때 모교 스톡홀름大學에서 교편을 잡았다가 1936년 財務次官이 되고 1941년에 스웨덴 中央銀行長、1946년에는 정부재정고문으로 있다가 1949년에 國務長官이 되었고 1951년에 스웨덴國의 유엔대표단에 참가하여 同副團長으로 활약했으며 1952년 同團長이 되어 1953년 유엔 사무총장으로 뽑힐때까지 있었다。

그는 英·獨·佛 3개국어에 능통하여 그의 연설은 언제나 풍부한 引用句와 해박한 知識으로 그득했다。

그는 在任 8년간에 수에즈운하 분규와 이스라엘·아랍國境 분쟁、라오스 戰爭、레바논위기등을 용케 수습해 나갔다。

그러다가 불붙는 콩고에 休戰을 가져오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急逝한 것이다。그러나 그 많은 그의 功勳과 업적 가운데서 특히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직을 단순한 유엔내의 행정기관에서 강력한 유엔결의 사항의 집행기관으로 끌어올린 사실이다。

▲咸台永 死去(1964·10·24)

제3대 부통령을 지낸 咸台永선생은 1964년 10월24일 老患으로 별세했다。그때 나이 91세。咸선생은 1873년 서울서 태어나 大韓國 法官養成所와 平壤神學校를 졸업、大審院判事등으로 활약했다。1921년 목사가 되어 한때 敎會事業과 항일독립운동에 투신、3년간 옥고를 치렀다。3·1운동때는 48인의 민족 지도자의 한사람으로 활약했고、이에 앞서 구한말 독립협회 사건때는 檢事로 月南 李商在선생 등 관련자의 무죄를 주장、석방시킴으로써 官職을 추방당하기도 했다。

1948년 정부수립후 초대 審計院長에 임명되었고 한국신학대학 학장을 거쳐 1952년 李承晩대통령의 러닝 메이트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직접선거에서 부통령으로 당선、1956년 8월까지 재임했다。그는 在職 4년동안 민생을 시찰하며 나라를 바로잡아 보자는 신념으로 일관했을뿐 정치적 야심이나 영화를 쫓지 않았다。

▲英國의 넬슨제독 트라팔가海戰서 프랑스、스페인연합함대 격파(1805·10·21)

12세에 해군에 들어가 프랑스 혁명전쟁까지 西인도에서 활약했다。프랑스와 개전하고 나서는 地中海작전을 담당、오른쪽 팔을 잃으면서도 용감하고 기민한 공격으로 프랑스를 누르고 1798년에 이집트의 아부키르만에서 나폴레옹에게 패승했다。

그 공으로 남작이 되었고 1801년 발트해 함대 부사령관、1805년 프랑스—에스파니아 연합 함대를 트라팔가 바다에서 격멸했다。

이로써 나폴레옹의 영국상륙작전을 좌절시켰으나 그 자신도 가슴에 적탄을 맞고 전사했다。

메아리

암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한 캐나다청년이 지난해 대서양기슭 세인트존즈를 떠나 태평양연안도시 밴쿠버까지 「희망의 마라톤」을 달렸다。이 젊은이는 매일 새벽4시에 일어나 한쪽의 의족에 의지해서 하루 48㎞를 뛰는 초인적인 강행군을 벌였다。

4개월에 걸친 외다리 대륙횡단 레이스는 암연구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였다。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그러나 그가 완주했을때 기금은 2천4백만달러나 모아졌다。이 청년은 끝내 암으로 숨졌으나 캐나다는 그를 시민의 영웅으로 추대했다。「지체부자유」가 이룩한 인간승리였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자의 해—。장애자에게도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것을 유엔은 호소한다。우리는 연초부터 이들을 위한 갖가지 행사와 캠페인을 치렀다。지금 서울에선 첫번째 장애자의 체전이 열렸다。어제는 마라톤경기도 있었다。장애자들의 「희망의 마라톤」이라고 하겠다。

平壤의 안팎

거주·이전은 누구라도 자기뜻대로 선택한다。이것은 자유시민의 기본권리다。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못박았다。우리는 이 조항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당연한 일이 그렇지못한곳이 있다。북한은 거주·이전의자유를 엄격히 통제한다。명령한 마디면 정든 고향도 떠나야만 하는것이 당연한것으로 여겨진다。현재 평양에선 지체부자유자나 불구자가 강제로 쫓겨나고 있다 한다。

「깨끗한 혁명의 국제도시」라는 핑계로 불행한 사람들이 모진 수난을 겪는것이다。남북적회담때 우리대표단에 비친 평양은 「규격도시」였다。밤길엔 띄엄띄엄 조그만 네온간판이 보일뿐 인적도 드물었다。여학생 행진이 눈에 띄는 정도의 거리였다。

얼마전 원산을 방문한 어떤 외국기자는 고층건물뒤에 가려진 빈민의 생활상을 보도했다。이렇게 안팎이 다른것이 북한의 오늘이다。

온세계가 지체부자유자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이때 이들을 오히려 선별하여 강제이주시키는 행위는 「숙청」이라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해도 너무한다」는 말은 이럴때 써야할 말인것같다。

夫婦 아베크 칼럼

今週의 主題

목소리

金良源씨

인간관계의 80%가 대화로 이루어진다。특히 사랑하는 사람은 대화의 연속이며 대화는 목소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외국에서는 목소리를 듣고 성격이나 운명을 판단하는 <성상학>도 있지만 목소리가 상대에게 주는 느낌은 <대화효과>의 38%나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내 아내의 목소리를 아주 좋아한다。

항상 상냥한 목소리로 활짝 웃으며 다가와서 나를 매혹시키던 그 목소리…。지금은 변해버린 아내의 목소리지만 못내 아쉬워 녹음테이프를 들으며 다시 한번 음미해 보기도 한다。

지난해 일이다。아내가 아마 양품점에 들러서 내 Y셔츠를 하나 주문했던 모양이다。나에게 의사를 묻길래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더니 아내가 주문한것과 달라서인지 양품점으로 전화를 했던가 보다。

『미안한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은 나도 얼핏 들었는데 얼마 후 양품점에서 전화가 걸려와 내가 받았다。

아내가 없다는 의사표현을 했더니 그 주문품으로 바꿀수 있다고 전해달라며 『사모님 목소리는 정말 천사의 음성입니다。처음 들었어요。그런 소리는…。』

전화는 끊었지만 아내에 대한 그 사람의 칭찬에 나도 우쭐한 기분이 들었던게 기억난다。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그 뜻에 어울리는 감정의 조화가 목소리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의 여자의 목소리는 천사의 목소리지만 얼마가 지나면 전혀 정성이 담겨 있지 않는 푹 퍼진 아줌마의 목소리가 된다。더 나이를 먹으면 <당신 지옥까지도 같이 가야 해요>하는 마귀할멈의 목소리로 변하고 만다。

아름다운 내 아내의 목소리가 쉬어서 무너지진 않았어도 마귀 할멈의 소리가 되진 않았으면 하는 기대가 자못 크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엿보게 한다。목소리의 변화는 성격의 변화까지 가져오며 운명의 변화를 예시하는지도 모른다。아뭏든 내 아내의 목소리가 계속 나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언어문화원장>

趙東春씨

꾀꼬리 소리 같던 어느 여가수가 데뷔하고 5년이 지나자 목소리가 뚝배기 깨지는 소리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은 은퇴 아닌 은퇴를 하지 않을수 없이 되었다。

지나친 출연과 밤무대의 피로、복잡한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결국 자기의 목소리는 자기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본보기였다。

방송국에 가면 방마다 연기가 자욱하지만 아나운서실만큼은 맑은 공기인것을 볼 수 있다。

아나운서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그들에게는 목소리가 자신이기 때문이다。

때때로 나의 목소리가 아닌 엉뚱한 소리로 바뀌어 날 때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가라앉고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정말 답답하다。

우리 역시 목소리로 밥을 빌어먹는 직업인이라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채플린영화처럼 무성으로 방송을 하거나 강의를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럴때 한가지 다행한 일은 그이의 목소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이는 학생시절부터 웅변을 해왔고 몇번이고 목이 터지고 아물고 하는 반복으로 이제는 하루 12시간 강의를 하고도 그 이튿날 끄떡없이 강의를 한다。

강철같은 사나이라고 주위에서 말하지만 정말 그런것 같다。

성장과정에서 그만큼 훈련이 되지 않았던들 지금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오싹한 기분이다。

그이는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하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 소리가 나에게서 나와 다시 나에게 들어가 반복 암시에 의해 진짜 피로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정말 나는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은 그이라도 참고 참다가 어떤 때는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벼락 소리를 지른다。

그렇게 다정하고 부드럽던 그의 목소리가 도깨비 소리처럼 들려온다고 느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아내회관 실장>

<다음 주제 「자녀교육」>

◇21일하오 全經聯회의실에서 열린 마쓰시다씨의 초청강연회엔 5백여명의 기업인들이 몰려 「마쓰시다씨의 경영철학」을 경청했다。

나의 經營철학

全經聯、마쓰시다·고오노스께氏초청 特別강연회

내셔널商標로 유명한 일본의 電器名門마쓰시다電氣産業社主인 마쓰시다·고오노스께(松下幸之助)씨가 21일하오 全經聯회의실에서 『나의 경영철학』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이날 초청강연회엔 국내 저명실업인등 5백여명이 참석、마쓰시다씨의 기업경영이론을 경청했다。

○…全經聯이 21일 하오 同국제회의실에서 마련한 마쓰시다·고오노스께(松下幸之助)씨초청특별강연회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을정도로 많은 경제인사들이 참석、대성황을 이루었다。

오는11월이면 만87세가 된다는 마쓰시다씨는 한국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訪韓을 통해 『한국과 한국경제가 힘차고 약동있게 발전하고 있는것을 인상깊게 느꼈다』고 그의 訪韓소감을 피력。

마쓰시다씨는 日本의 야쓰까고분에서 발견된 4명의 한국귀부인이 그려진 옛그림이 실증하듯 『韓國과 日本은 오래전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깊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韓國과 日本은 앞으로 더욱 깊은 관계를 유지、적극협조하여 共存共榮의 길을 걸어야할 것』이라고 강조。

경제적인측면에서뿐아니라 정치문화적인면에서도 더욱깊은 교류관계를 가져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말한 마쓰시다씨는 『지금은 나이가 너무 들어 할수도 없지만 韓國말을 배워 韓國語로 강연을 해야할터인데 이처럼 통역을 두고서 강연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방청객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기도。

『나는 아홉살때부터 17세가 될때까지 7년간을 자전거점포에서 심부름꾼을 했다。당시 오오사까市에선 電車가 개통되었는데 전차를 보고 앞으로 전기로 움직이는 사회가 반드시 올것이라고 생각했다。17세때 電燈會社에 들어가 6년동안 室內配線工으로 일했다。이때 얻은 경험으로 1918년 지금의 마쓰시다의 모체인 마쓰시다전기기구제작소를 차리고 소키트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당시 이회사의 자본금은 1백엔이었다。영세한 중소기업이어서 사무실은 다다미 2장정도의 넓이였고、공장은 다다미 4장넓이에 불과했다。영세한 자본으로 장사를 하다보니 곤경에 처한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自轉車점포서 事業꿈키워
아내옷등 전당포에 맡겨 資金 마련도
企業은公器 國家국민에 使命感가져야

장사를 시작한지 5년동안은 자금부족과 판매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나의 옷과 처의 옷을 전당포에 맡겨 회사를 꾸려나가기도 했다。이같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지하나로 열심히 일했다。

친구들이 회사에와 편하게 일해보라는 권유도 있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일에 전념했다。어느날 어느회사 담당이 마쓰시다씨는 일에 열심이고 그에게 일을 맡기면 성실히 해낼것이라고 하면서 소키트를 처음주문해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회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다른회사들도 제품에 신뢰와 호감을 보여 회사는 점차 일어서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여러 곤경을 극복、포기치않고 집념과 정성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지금과같은 대회사를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하루는 자전거에 전기제품부품을 싣고 돌아다니다 땀을씻고 있는데 한거지가 수도물을 틀고 물을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이것이다。물과같이 상품을 대량생산해 싼값으로 공급하면 만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이다』고 느꼈다。

기업가나 생산자는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가져야하는것이다。좋은 물건을 싼값에 대량생산·공급해야한다는 기업사명과 생산사명을 가지면 복된기업발전이 있으리라는 신념을 갖게됐다。

50년전 종업원 1천명을 모아놓고 공기와같이 많은 물건을 생산하면 훔치거나 도둑질하는 惡人은 없을 것이니 여러분들은 좋은 물건을 많이 싸게 만들어 공급하자고 간곡히 협조를 부탁한적이 있었다。

이말에 종업원들은 크게 감동했고 나역시 기쁘게 생각했다。그래서 종업원들은 일치단결하여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에 종사했다。

종업원들은 아침7시 출근、하오5시에 퇴근하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을 않고 일에 열중、다음날 일을 위해 일찍 퇴근하라고 권유할 정도였다。나는 이런 종업원들을 버리지 않기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야겠고 이것이 기업인의 사명감이라고 느꼈다。

과연 사명감을 갖고 목숨을 바쳐 일하겠다는 사람이 이세상에 몇이나 있겠는냐。최근들어 일급이 싸니 비싸니 시비가 많고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는 사람보다 일급에 의해 좌우되어 이동하는 사람이 많은것 같다。

온세계 산업계에는 勞組가 있어 종업원의 인권과 권익을 주장하고 근로조건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주장을 가르쳐주고 있다。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나는 세가지 기본경영철학을 갖고있다。첫째는 한사람이 한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다。성공하기 전에는 다른 사업을 일으켜서는 안되는 것이다。

둘째는 사업이란 개인재산이 아니라 公器라는 점이다。사업자체는 결코 사유재산이 될수 없는것이다。

세째는 기업이 국가 국민 사회에 대해 사명감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 이념의 바탕위에 도덕및 윤리를 가미해서 기업을 해왔다。

바로 이러한 경영철학아래 50년간 기업을 경영했기 때문에 개인이나 사회에 발전을 가져왔다고 믿고있다。

일부에서는 나를 경영의 귀신이니 천재니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평범한 경영인에 불과하다。

현재 마쓰시다電器에는 20만명의 종업원이 있다。종업원들이 나의 말을 사심없이 믿고 따르고 있는것은 나의 경영이념에대한 신뢰라고 생각한다。

VTR등 電子기술 對韓전수에 協力

한편 마쓰시다씨는 마쓰시다電器의 재일동포 채용문제와 관련、현재도 재일동포를 채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유능한 인재는 계속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한국 기술자의 연수에도 적극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VTR등 전자기술의 對韓移轉에도 적극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관심 모으는 「게시판 藝術」

英國포스터 한국 巡廻展

"거리의 畵廊"·"현대의 壁畵"로 각광

◎◎◎◎◎◎◎◎

「게시판의 藝術」인 포스터가 뒤늦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스터에 대한 관심은 지난 9월28일 蔚山을 시발로 전국 순회전시를 시작한 「英國포스터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나, 88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되면서 우리주변 생활공간과 街角에 널린 「反미술적인 요소」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때문에 더욱 강조되고 있는 느낌이다. 월간 「종합디자인」社가 주최하고 駐韓 英國문화원이 후원한 英國 포스터展은 지금까지 포스터를 「조잡한 종이조각」쯤으로 인식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포스터, 또는 그래픽·디자인의 미술적인 뜻을 일깨워주고 있다.

◎◎◎◎◎◎◎◎

「순수의 노래」라는 명칭의 이 전시회는 이미 蔚山, 釜山, 大邱전시회를 마치고 大田(19일~24일·신신화랑) 光州(26일~31일·南道예술회관)·淸州(11월2일~7일·고전화랑)·서울전시회(9일~14일·한국디자인포장센터)를 남기고있다.

여기에는 英國의 포스터수집가·엘런·메이비의 수장작품중 엄선된 1백4점의 포스터가 선보이고있다. 이 포스터들은 19세기말 작품에서 포스터가 예술의 한 분야로 뿌리를 내린 1920~30년대의 작품들이 중심을 이루고있어 포스터의 발달과정을 한눈에 보여준다.

포스터의 개념과 연원에 관해서는 이견이 많으나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라스코동굴벽화나 스페인의 알타미라동굴의 그림도 그 원시적인 형태라고 말하고있다. 이것들은 사회적, 종교적 公示효과를 노린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적인 의미의 포스터는 석판화가 보급되기시작한 18세기말부터로 볼수있다. 「기둥」(포스트)에 주로 부착시켜 「포스터」(Poster)로 불리게된 이인쇄물들은 근대적인 인쇄술을 타고 일약 「거리의 화랑」「현대의 벽화」로 각광을 받게됐다.

18세기이후의 포스터는 산업혁명으로인한 상품선전용으로 크게 발달했는데 예술적인 경지로 승화된것은 파리에서였다.

「근대포스터의 아버지」라는 쥘·셰레가 런던에서 석판인쇄를 공부한다음 파리에돌아와 1866년경 석판인쇄로 다색의 포스터를 내놨다. 이때부터 19세기말까지는 런던과 파리가 포스터미술을선도해왔으나 20세기에 들어오자 미국과 獨逸의 추격을 받았다. 獨逸의 경우 1908년경부터 1차대전이 일어난 1914년까지는 英·佛등을 앞질렀다.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반 미술은 정체및 후퇴했지만 포스터들은 전쟁포스터의 형태로 새다른 발전을 기록했다. 당시 獨逸의 포스터는 정부의 검열제도로 지나치게 전쟁분위기에만 치우친데비해 英佛측은 작가들의 자발적인 참가에 위임함으로써 따뜻한 인간성을 느끼게했으며 결과적으로 더큰 호소력을지녔다.

포스터는 예술과 사회를결합시키는 매체다. 특히 초기의 포스터들은 대부분 일반화가들이 제작하여 회화적인 기법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정보전달과 미적감상의 기능을 다함께 지녔다.

포스터는 오늘날도 별다른 제약없이 모든 미술의 표현기법을 흡수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순수미술분야에서 결론없이 방치되다시피한 구상·비구상의 문제도 포스터분야에서는 거의 완전에 가깝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포스터미술에대한 관심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다해도 지나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터제작을 미술가보다는 기능공의 일거리로 알고있다. 그바람에 조잡하고 판에 박은듯한 포스터들이 대중의 시선을 거슬리고있다.

포스터미술은 단순히 포스터제작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담배갑·우표·엽서·상표·간판·상품포장에서 올림픽 마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용도를 지니고 있다.

국내의 수출관계자들은 한국수출상품의 포장디자인이 뒤떨어져서 겪은 안타까움을호소하는 수가많다. 그러나 그래픽·디자인은 이제수출에만 머무는 문제는 아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은 문화의 祭典이 되어야하고, 특히 눈에 보이는 모든것에 미술적인 안목과 세련미가 깃드는 그래픽文化의 꽃을 피워야 한다.

「英國포스터展」이 시사하는 과제는 이처럼 중요하다는것이 관심있는 이들의의견이다.

美術話題

1896년 런던 데일리극장의 연극 「그리스의 노예」공연때 제작된 포스터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金洪信 作
崔然石 畫

㊻

지난줄거리

춘삼이는 가짜 휘발유 만드는 양계장을 찾아 들어간다. 똘마니들과 간단히 몸을 푼 춘삼은 두목급의 사내가 공기총을 들고 나서는 걸 표창으로 해결하고 그들의 조직이 외팔이의 조직이란 것과 춘삼이 형님의 자전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 가짜 휘발유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캐나가면서 엄청난 이익금을 남기는 장사라는 걸 알게 된다. 춘삼은 계속 캐들어가는데…

마치 커다란 양조장의 지하실 같았다. 어지럽게 널려있는 드럼통과 김치독 같은 것들이 규모가 큰 부정 휘발유 생산장이란 걸 대번에 느끼게 했다.

『이게 그 일제 약이냐?』

『맞아요. 보면 알지만 상표가 없어서 난 무슨 약인지 몰라요.』

『어디서 사는 거야? 화공약품 파는 데야, 일반 수입 약국야?』

『글쎄, 그걸 몰라요. 그 약이 좌우하는 거니까요.』

나는 약병을 호주머니에 넣고 녀석을 구석자리로 끌고갔다.

『솔벤트는 얼마고 톨루엔은 얼마냐?』

『솔벤트는 드럼 당 6만원이고 톨루엔은 8만3천원입니다. 포질 거지요.』

『석유는?』

『한말에 5천6백원요.』

『약은 1천5백원이랬지?』

『예. 큰 통 사면 훨씬 싸답니다.』

『휘발유는 얼마야?』

『드럼 당 14만원요.』

나는 메모지와 볼펜을 꺼내 결산하기 시작했다.

솔벤트 6만원+톨루엔 8만3천원+석유5천6백원+약2개 3천원이면 15만1천6백원이란 계산이 나왔다.

한 드럼에 11만원씩 넘기면 두드럼에 22만원이고 20ℓ가 남는다는 계산이 된다. 그러면 정확한 계산으로 드럼당 7만원이상의 이익금이 생기는 엄청난 장사속이 되는 것이었다.

『한차면 몇드럼이냐?』

『백 드럼요.』

『한차 팔면 얼마 남느냐?』

『경비 빼고 칠십만원요.』

『어음야 현금이야?』

『현금만 받아요. 수표도 안 받는걸요.』

『주유소는 그걸, 위험을 무릅쓰고 왜 사? 걸렸다하면 조지는 걸.』

『휘발유 한 드럼 팔아봐야 4천원밖에 안남아요. 그러나 이걸 사면 드럼당 3만원이란 막대한 이익이 생기는 걸요.』

『안 걸려?』

『더러 걸리죠.』

『무슨 수로 그럼 이 것을 해?』

『다 통하는 게 있대요. 걸리면 즉석에서 현금 빳빳한 거 70만원 다 주니까요. 세상에 돈 싫다는 놈이 어디 있어요. 눈 앞에 70만원이 탁 던져지는 걸요.』

『한차분 이익금 전액을 준다 이거지?』

『그래야 찍소리 않으니까요.』

『여기말고 또 어디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 약 이름을 대라.』

녀석은 죽을 상을 해가지고 나를 훑어다 보았다.

『정말 왜 다 얘기해줬는데 그걸 말 않겠습니까? 정말 모르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살고 싶어요. 정말 모르니까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믿어주세요. 우리 형님이 그 정도로 철저하다는 거 알거 아닙니까.』

나는 호물호물 웃었다. 녀석의 말을 믿어야할지 더 캐들어가야 할지 생각해보았다.

『외팔인지 곰배팔인지 지금 뭐해?』

『주유소하나 인수했잖아요.』

『너 꽤 태연자약하구나. 나불거리는거 보니까 뭐 믿는 데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자신있으면 그 마법의 약이름좀 밝혀보시지 그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정말 모르는거야?』

『정말입니다.』

『말하게 하는수가 있지.』

나는 사내의 왼손을 잡아 혈을 지그시 눌렀다. 사내가 두어번 꿈틀거리다가 앓은채 벽에 기댔다.

『혈이 안풀리면 너는 왕천재이 돼. 어서 살길을 찾아봐.』

사내가 몸을 비비꼬면서 애원했다.

『정말 몰라요. 맹세합니다.』

『알고 왔어. 네가 기술자라는걸. 기술자 잡아다가 다 빼먹고 걷어 찬 것도 알고 왔어.』

『……。』

사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 소굴에 들어오면서 그냥 올 줄 알아? 빨리 털어놔.』

사내는 고개를 더 수그린 채 내 손을 잡았다.

『한번만 살려줘요. 그것만은 안돼요. 우리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도 그것만은 말할 수 없어요.』

다부진 말투였다.

내 짐작대로인 것 같았다. 이 가짜 휘발유 장사의 관건이랄 수 있는 약품을 발설할 수 없다는 그의 말은 이해가 가는 것이었다. 그 약없이 만들어봐야 큰 장사를 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걸리더라도 빳빳한 현금, 70만원이면 다 해결돼요

"죽은 아버지가 살아와도 약 이름만은 말할수 없어요"

『말해. 그렇지 않으면 메달테니까.』

『형님, 한번만 봐줘요. 그건, 그건 안돼요. 우리 목숨줄입니다.』

『결국 말하게 돼. 병신된 뒤에 말하는 것보다 멀쩡했을 때 하는 게 상책일텐데 그래. 그 정도는 알 거 아닌가. 살아있는게 현명한 거 아닐까?』

나는 사내의 관절을 꺾어 쥐었다. 사내가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비명을 질렀다.

『살려줘요. 제발 살려줘요. 그건…。』

『내가 아직 어떤 놈이란 걸 모르는 모양이구나.』

두어번 손을 내두르니까 사내는 벽에 머리를 짓찧으며 통곡소리같은 비명을 질렀다.

『이겁니다…。』

사내는 엉금엉금 기어가 땅바닥에서 엄지 손가락보다 작은 빈병 한개를 내밀었다. 영어와 일본어가 섞여 있는 그 약병을 들고 자세히 보았다.

『실험해봐.』

나는 녀석의 혈을 풀어 주었다. 녀석이 석유통에다 솔벤트와 톨루엔을 섞고 그 위에 석유를 부었다.

『냄새 맡아봐요.』

내가 코를 디밀자 악취가 심하게 풍겨 나왔다.

『이걸 넣으면 감쪽같아요.』

사내가 약을 몇방울 떨어뜨린 뒤 손으로 휘휘 저었다.

『됐어.』

나는 상표가 붙어 있는 그 약병을 호주머니에 넣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녀석의 말대로 영락없는 진품 휘발유 냄새였다. 휘발유 특유의 화공약품 냄새 그대로였다.

『여기다 색소만 뒤으면 정말 웬만한 사람도 모릅니다.』

『한차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금방입니다. 뭐 십분도 안걸려요.』

『통마다 섞어야 할 거 아냐.』

『아네요. 차에 백 드럼 들어가니까 솔벤트 47통 반, 톨루엔 47통 반 채우고 석유 다섯 드럼 부어놓고는 약하고, 색소 넣은 뒤 달리면 자동으로 섞여버리죠.』

『눈감고 돈 버는구나.』

『그런 셈이죠.』

『그럼 주유소 탱크에 쏟아붓기만 하면 현찰 70만원씩 생긴다 이거지.』

『그래요.』

『느네가 직접 차 가지고 하나?』

『형님이 신나반출증 끊어오니까 상관 없어요.』

『개인한테는 어떤 루트로 팔게돼?』

『요즘 탐이 좋았어요. 개인택시들은 가스차로 많이 바꾸니까요.』

『어디어디 거래해?』

『그건 형님이 알아서 하니까 모르겠어요. 근교 주유소는 모두 들어간다는 것만 알아요.』

그것은 사실일 것 같았다. 녀석이 곤죽이 되어 있어서 더 거짓말을 할 힘도 없었지만 그런 큰 장사 루트를 졸개에게 알려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한달이면 보통 몇차 나가?』

『통상 칠 팔차 됩니다.』

나는 얼른 머리속으로 계산을 해보았다. 70차만 잡아도 7×7=49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5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었다.

춘삼이 형님이 눈에 불을 켜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외팔이가 춘삼이 형님에게 못된 손장난을 할 수 밖에 없는 목숨 건 사업이란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춘삼이 형님이 이런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가 외팔이 조직에게 밀려나는 추세인 것 같았다.

내가 손댈 일은 아닌 것 같았다. 아무리 춘삼이 형님에게 신세를 져왔더라도 그들 조직끼리의 알력에 내가 발 걷고 나설 필요가 없다 싶었다.

그러나 이런 어마어마한 지하조직이 있다는 걸 안 이상 그냥 물러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 안에 기름이 얼마나 있어?』

『지금 두어통밖에 없어요. 어제 다 방출했거든요. 우린 절대 쌓아두지 않아요. 만약을 위해서두요. 그리고 요즘 원료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도 경쟁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지하실과 목조건물에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이 조직에게 정면으로 대결하겠다는 의사는 없었지만 누군가 다녀갔다는 강박관념은 주고 싶었다.

밖에 나가서 신고해봤자 증거를 잡아내지 못하는 한 괜히 치사한 사내노릇만 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들의 치밀한 장사속에 그 정도 계산없이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고맙다. 진작 불었으면 고생은 덜했을 거 아니냐. 느네 형님한테 전해라. 다 알고 갔으니 손 떼라고. 그렇지 않으면 두어해 학교 가서 쉬게 될 거라구.』

『네.』

사내는 명료하게 대답했다. 나는 지하실 문을 열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전신에 이상한 예감이 스치고 있었다. 그것은 주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변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건 살기였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사내에게 말했다.

『벌써 잠복시켜 둔 모양이구나. 느이들이 빠르긴 빠르구나.』

나는 사내의 멱살을 잡아 문 안으로 내던졌다. 계사에서 쓰는 낫자루가 힘껏 날아왔다.

나는 재빨리 사내를 끌어당기고 문짝을 걷어찼다. 지하실 문이 힘차게 닫혔다.

『좋게 말할 때 나와라.』

걸직한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드럼통을 문짝 옆에 세워놓고 사내를 그 밑에 앉게 했다.

『좋게 말하면 안나가는 법 아닌가?』

『야, 이 자식 민어회 좀 쳐라.』

걸직한 사내의 손에는 예리한 칼이 쥐어져 있었고 그 뒤로 십여명의 사내들 손에도 모두 무기가 쥐어져 있었다.

한술더떠 아예 불질러 태워버리겠다고 위협공갈만

던진 표창에 맞아 쓰러진 사내가 그렇게 많을줄이야

『민어회는 바다에나 가서 치게나. 여긴 기름들 뿐이라구. 칵 질러 버리면 소방차가 온단 말야. 알아서 물러가는게 좋지 않겠어.』

나는 느물거리며 대꾸했다.

『저 새낄 아예 불질러서 태워버려.』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나왔다. 내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사내가 소리 질렀다.

『형님, 나 여기 있어요!』

밖에다 대고 비명처럼 말했다.

『너도 책임져야 돼. 빨리 불질러 버려. 묻어버리면 그만이니까.』

여전히 걸직한 사내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었다.

『이봐, 네 부하까지 묻는 수가 어디 있나? 구해내고 나만 묻는 게 도리 아냐? 힘께나 쓰는 놈들이 왜 추접스럽게 굴어.』

『빨리 불 댕겨.』

사내가 내 말을 무시한 채 이렇게 말했다.

나는 표창을 꺼내 들었다.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다가는 영락없이 잿밥신세가 될 것 같았다.

『떠드는 자식 누구냐?』

『족제비라구… 형님네 오른팔입니다.』

겁에 질린 목소리였다.

『불나면 너 잽싸게 뛰어. 꾸물거렸다간 진짜 묻힐 테니까.』

『알았어요. 문옆에서 떨어져요.』

옥탄가 높은 인화물질이란 걸 아는 녀석이 나를 비켜서게 했다.

『문고리 벗겨 놔라. 그리고 그 끝에 저 끈을 묶어. 빨리.』

사내는 시키는대로 고리를 벗기고 그 끝에 끈을 묶었다. 끈 길이를 적당히 잡은 나는 사내를 옆으로 숨어있게 했다. 사내 얼굴에서 고마운 빛이 떠돌고 있었다.

『외팔이 본거지가 어디냐?』

『Y동 Y상사라고 있어요.』

『너 혹시 가끌치 형님이라고 알아?』

『말은 들었어요.』

『춘삼이라는 사람 소문 들은 적 있어? 기름장사하는.』

『우리 형님한테 혼났었다고 들었어요.』

『너희들 먹고 살만큼은 주나?』

『그럼요.』

나는 불이 당겨지기만을 기다렸다. 바깥이 조용한 거로 미루어 기름을 뿌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까짓 목조건물 지하실쯤이야 불질러 없애도 아까울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았다. 그들이 지하실로 들어와 나를 채 가지 않는 것은 그들 졸개들로부터 내 솜씨를 들었기 때문일 것 같았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를 아예 없애버릴 생각인 것 같았다. 그들은 그러고도 남을 친구들이었다.

아마도 나를 춘삼이 형님 패거리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악바치게 나오는 것 같았다.

기름이 문틈으로 흘러들어와 지하실 방바닥에 피기 시작했다.

『더 없어?』

『자동차에서 더 빼와.』

『호스째고 빨리.』

두런거리는 목소리 속에 이런 말이 섞여 있었다. 아마 휘발유를 뿌리는 것 같았다. 자동차를 대기시켜 놨다면 내가 탈출하는 데에 훨씬 유리한 것 같았다.

불길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사내가 긴장해서 눈을 옴쳤다. 나는 끈을 잡고 불꽃이 더 퍼지기만을 기다렸다. 지하실문에 불길이 옮겨 붙었다.

『넌 조금 있다가 뛰어.』

『예, 알았어요.』

나는 문고리를 나꾸챘다. 불 붙은 문이 활짝 열렸다. 칼, 낫, 괭이, 삽지창이 우르르 쏟아졌다.

나는 뛰어 나가며 표창을 연달아 던졌다.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나는 사내들의 우두머리인 족제비에게 표창 두개를 던졌다. 족제비가 땅바닥을 굴렀다.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숫자의 사내들이었다. 표창 스무개를 거의 쓰고서야 계사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자동차에는 아무도 없었다. 뒤돌아보니 쫓아오는 사내들이 없었다. 표창이 무서워서 추격않은 것이었다.

자동차 문을 열었다. 열쇠가 없어서 그냥 내달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이빨로 선을 물어뜯고 전선을 시킨 뒤에 시동을 걸었다.

자동차가 스스로 미끄러져 나갔다. 나는 차를 세워놓고 나머지 차 세대의 바퀴에서 바람을 빼버렸다. 차들이 기울면서 바람이 빠져나갔다.

불기둥이 피어 오르는 건물을 뒤돌아보며 나는 손을 흔들어 주었다. 자동차는 최신형이어서 잘 미끄러져 나갔다. 울타리 바깥에 차 두대가 대기하고 있다가 쫓아나왔다. 나는 그 쪽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큰길로 뛰어올랐다. 두대가 [illegible] 밟고 비스듬히 서버렸다.

읍내 입구에서 차를 세워놓고 박지를 봤다.

하나님. 똑똑히 봤지요. 저렇다구요. 하나님은 뭐든 아는 척하지만 기실 아는게 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정 휘발유 만들어서 공해생산의 선봉이 되고 옥탄가가 지나치게 높아서 위험율이 많은데다가 엔진이 쉽게 상한다는 걸 알면서 그냥 두 눈 멀쩡히 뜨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괜찮은 거라면 왜 못하게 하겠냐는 겁니다. 나라에서도 그런걸 인정할수 없기때문이지요.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니까 좋기만 하면 값싸게 만들어 쓰게 내버려 둘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달에 70차만 팔면 5천만원이란 순이익이 났습니다. 남 돈 버는게 배아파서 이러는게 아니라구요. 정당하게 벌면 누가 잔소리 하겠읍니까. 제발 이번에 부정한 자들 좀 모조리 때려가 주세요.

그 기가 막힌 약 이름을 왜 안 밝히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과 부정 휘발유 생산자들은 그 약 이름을 알겠죠. 나도 물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밝혀선 안돼요. 눈깔 뒤집고 그 장사할 친구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하나님. 주유소가 이윤이 박하다고 부정 휘발유 사서 치부를 하는 것까지야 내가 말할 게 못된다 하겠지만 진짜 휘발유 속에 그놈의 가짜 휘발유가 섞여져서 시민들이 숱하게 속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하나님 눈으로 보면 수천군데 좀 그런 비밀장사꾼들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 정당한 사람, 상식적인 사람, 노력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 잘살게 좀 못합니까? 나보고 웃긴다구요? 세상은 적당히 뒤섞여서 사는게 좋은거라 이 말이겠죠.

선량한 사람이 속고 살지나 않게 해주쇼. 그게 하나님 직업아닙니까.

(다음주에 계속)

부부화목 모범가정, 밝아지는 교포사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對民업무 下部기관 委任

「公職者책임風土」細部指針을마련 受任·專決權者가 最終결재

內部權限도 1단계씩 낮춰

中央선 政策·企劃만 맡도록

許可權·단속책임 같은機關서 취급토록

權限포기·無事安逸엔 懲戒 강화하기로

정부는 21일 公職者의 사회책임풍토조성을 위한 全斗煥 대통령의 4大指針시달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認·許可등 對民업무는 下部기관으로 委任하고 위임업무의 처리에있어서는 어떠한경우에도 受任權者또는 專決權者가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며 각급기관의 內部위임專決규정을 고쳐 원칙적으로현행보다 1단계씩 下向조정하는등 細部실천계획을 마련, 곧 실시키로했다.

행정조직 관리의 主務부처인 총무처와 지방행정의 주무부인 내무부, 그리고 상공부가 마련, 司正협의회에 보고된 이 세부실천방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문企劃과 정책 기능만맡게 돼있으며 권한을 위임할때는 人力과 예산등을 동시에 넘기고 위임업무 처리의 경우 위임기관의 사전승인제를 완전 폐지, 事後감독권만 행사하도록 돼있다.

또 중앙과 市道·市郡의 권한사무를 下級행정기관에 대폭 이양하는 한편 許可權과 단속책임을 같은기관에 맡도록해 권한이양의 실효를 높이도록 했으며 권한위임과책임의 명확한 이행을 위해 총무처는연1회 정기행정감사, 각부처는 연2회 정기및 수시자체감사를 실시토록했다.

이 실천방안은 또 책임이행이 제대로 지켜지기위해 부여된 권한을 포기하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할 경우, 책임을 轉嫁할경우 징계를 강화키로하고 소관이 분명치않은 업무처리를 위해 각부처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총무처장관 소속하에설치, 그때 그때 업무별처리기관과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결재서류에 專決처리권자와 受任기관장을 분명히해 처리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기관상호간의 관계재정립을 위해 각급행정기관의 지도·감독및 통제에 관한 기준을 제도화하고 소속2차기관 이하의 기관에 대해서는 중앙기관의 직접감독을 지양키로 했다.

정부는 또 책임과 권한을 소신있게 이행한 垂範공무원 가운데 20명내외를 선정, 오는 12월안으로 포상하고 승진·昇給 특진등의 혜택을 주기로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에보고한 감사방향의 전환 세부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감사는 처벌위주감사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自律的부조리제거확대, 취약분야의 집중척결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부정하고 無事安逸한공직자는 嚴斷하고 깨끗하고소신있게 일하는 공직자와 기관을 도와준다는 방향에서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4級이상 昇進동결 機構축소 後續지침

정부는 21일 기구축소에따른 後續人事지침을 각부처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4급이상 공무원의 승진과 신규채용을 凍結하고▲부처별로 주요부서는 산하단체 근무경력을 의무화하며 ▲산하단체, 교육등에 파견하는 사람은 5년이상장기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선발토록 돼있다.

◇全대통령이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有功경찰관에게 훈장을 수여하고있다。

全대통령、「警察의날」 諭示

警察官은 自身과周邊 깨끗해야

正義깃들게 模範보이도록

全斗煥 대통령은 21일『경찰은 사회각분야의 正義롭지 못한 부분을 가려내고 시정하는일과함께 스스로의 내부에 정의가 가득히 깃들도록 모범을 보이는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따라서 경찰관들은 먼저 자신과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데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6회「경찰의날」기념식에 참석, 諭示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경찰에게는 국민의 기대가 큰만큼 경찰의 조그마한 잘못에 대해서도 국민은 큰실망을 하게된다는점을 각별히 명심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특히 경찰관들의 직무는 매일 매일의 국민생활과 매우 직접적인연관성을 갖고있기때문에 국민에대한 친절과 봉사의 자세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것』이라고 강조하고『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여겨 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것을 직무수행의 座右銘으로 가꾸어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法이 존중되지 않고 질서가 유지되지않는곳에서는 참다운 민주정치의土着化도, 건강한 복지사회의 건설도 기대될수가 없다』고 지적하고『따라서 안정을 이룩하는데 1차적인 책임을맡고있는 경찰에대해 본인은法과 질서를 유지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깊이 인식해 이에 倍前의 노력을 기울여줄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北韓공산집단이 對南赤化의 헛된꿈을 포기하지 않은채 우리의 허점을 노리면서 사회불안의 조성을 끈질기게 획책하고있는 현시점의 여건하에서 경찰은 무엇보다도 완벽한 치안유지를 등한히해서는 안될것』이라고 강조하고『나날이 달라져가는 社會相에 대응해 자기발전을 위한 연구자세도 끊임없이 갖추어나가야 하겠으며 제도적인 면에서 자체교육을 확충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의해야하겠다』고 말했다.

日 마쓰시다氏 全대통령 接見

全斗煥 대통령은 21일하오 청와대에서 일본 松下電器의 마쓰시다·고오노스께(松下幸之助) 相談役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자리에는 鄭周永 全經聯회장과 李元洪한국방송공사사장이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柳興洙 치안본부장과 각시도 경찰국장등 경찰간부18명을 접견, 다과를 베풀었다.

이자리에는 徐廷和 내무장관 孫在植차관이 배석했다.

어제警察의날

제36회 경찰의날 기념식이 21일상오10시 全斗煥 대통령을비롯, 3부요인, 徐廷和내무장관, 柳興洙치안본부장등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世宗문화회관에서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치안본부 趙鍾興경무관등 76명이 훈장, 56명이 근정포장을 받았고 金貳錫경감등 98명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날하오 6시에는世宗문화회관 [illegible]에서 경축리셉션이있었다.

새警察像다짐 4개項결의

경찰은 21일 제36회경찰의날을맞아『최근 일련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국민에게 누를끼친 책임을통감하며 이를 거울삼아 국가와 민족을위해 신명을 바칠것을 다짐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8만경찰을대표, 서울 세종문화회관기념식에 참석한경찰들은 ▲우리는 오늘의 오욕을 슬기롭게극복, 전경찰이 일치단결 치안임무수행에 전력한다 ▲우리는 스스로자질향상에 주력할것이며 정신적체질적으로 과감한 혁신을도모, 신뢰받는 새시대 경찰상정립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부정과불의를 배격하며 무사안일주의를 강력히추방하여 국가보위의 첨병이된다 ▲우리는 국민의 공복임을 재인식하고 공사생활에 있어 수범이되며 항상 국민의편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수행한다고 결의했다.

서울五輪 北韓·中共참가 誘導

國會 常委답변

北傀、金正日집권땐 內部혼란

法官임기·部長判事制 폐지용의는 질문

국회는 21일 農水産 保社 交通委를 제외한 10개常委를 일제히 열고 소관부처별로업무現況을보고받고 法司 外務 文公委등 일부常委는 정책질의를벌였다.

外務委 李範錫통일원장관은『北韓은 20일 統革黨 방송을 통해 88년 서울올림픽개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지만이 문제로 고민하는것 같다』고 말하고『北韓과 中共의 올림픽참가문제는 7년후의 일이기때문에 조급히 서둘지는않겠지만 참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金日成이 朝總聯등에게 서울올림픽 방해指令을 내린것으로 알고있으며 현재 관계當局이 대책을 세우고있다』고 천명했다.

李장관은『80年代를 統一에 대한 희망적인 시기라는전제아래 통일의형태는 국민들이 결정하도록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金正日의 世襲體制는 굳어가고있으며 앞으로『金正日이 정권을 잡았을때 내부혼란의 가능성은 배제할수없다』고 말했다.

이날 李相翼 河舜鳳(이상 民正) 申鉉洙 李閔基 柳漢烈(이상 民韓) 林德圭 李萬燮(이상 국민) 등은 統一院에대한 정책질의에서 ▲서울올림픽개최에 대한 北韓의 반응▲北傀의 金正日後繼체제▲統一에 대비한 국민훈련방안▲南北對話再開와 統一전망등에 대해 질의했다.

法司委 金容喆법원행정처장은 21일『법원이令狀발부에 있어서 소홀한점이 있음을 시인한다』면서『검찰의 영장신청에 소명자료를 첨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영장발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위해 일정기간(3~6개월)이 지나지 않은 初任판사는 영장발부의 심의를 하지못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金처장은 또『仁川支院의 地法승격과 釜山地法의 高法승격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다.

李充雨 金仕龍(이상民正) 黃山城 金永俊 朴炳一의원(이상民韓) 등은▲法官대량增員에 따를문젯점▲法官 업무過重의해소책▲法官停年을 61세서65세로연장▲정치적悪用우려가있는 法官임기와▲副判事 部長判事制 폐지용의▲副判事制도입 여부등에 관해 질의했다.

文公委 李光杓문공장관은 전문적 문화·예술인의 양성과 시설조성이 문화정책에서 가장 力點을 둘 사항이라고 강조,『文藝基金조성에 정부보조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南北韓학자비교토론회같은것을 통일원에서 제의할수있도록 정책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앞으로 활자媒體에 대해 정책적 고려를 하겠다』고 말하고 2백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圖書總販회사의 설립은『출판계와 협의, 공동설립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南載熙 朴源卓 李潤子 沈相宇의원(이상民正)金秉烈 康源采의원(이상 民韓)등은 文公部에대한 정책질의에서 ▲文활자媒體에대한지원▲80년대 새문화정책▲문화·예술시설의확충등 文化진흥방안등에 관해 질의했다.

埃、對아랍政策 바꿀듯

무바라크 言論에 敵對國비난 中止지시

【카이로20日UPI=聯合】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20일 이집트에 적대적입장을 보이고있는 다른 아랍국들에 대한 이집트관영언론의 비난전을즉각 중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故사다트 대통령의 기존對아랍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만은 않을것임을 시사했다.

카이로의 언론계소식통들은 사다트 대통령의 對아랍정책에서 벗어난 최초의사례로보이는 이같은지시는 무바라크 대통령이 이날 이집트 신문편집인들과 가진 회합에서나온것이라고말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에앞서 2명의 카이로주재 美특파원과의 회견에서 이같은의향을 최초로 밝혔었다.

무바라크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후 지난4년동안 사설과 만화등으로 反아랍선전활동을 벌여왔던 3개아랍어신문들은 21일 조간에서 이같은 비난조의 기사를 단한줄도 싣지않았으며 심지어 이집트언론의 주공격 대상이던 무아마르·가다피 리비아국가평의회 의장에 대한 공격도 자취를 감추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날회합에서 1979년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체결이래 관계가 단절된 아랍국들에 그들의 입장을 再考할 기회를 주고싶다고 말하고 자신의결정이 아랍권과의 관계개선으로 발전하기를기대하면서사태를관망하겠다고덧붙였다.

政府·民正합의

農地稅 기초控除 55% 引上키로

정부와 民正黨은 農地稅의 기초공제액을 96만원에서 1백49만원으로 55% 인상시키는것을 내용으로하는 地方稅法 개정안을 마련, 이번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羅碩昊 民正黨 정책위의장은 21일 농민의 과중한 稅부담을 덜어주어 農家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현행 農地稅 96만원(甲類74만원 乙類22만원)을 1백49만원(甲類1백15만원, 乙類34만원)으로 대폭인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정부측과 이미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羅의장은 농지세기초공제액의 이같은 인상으로 현재 全體農家 2백23만8천戶중 45%인 1백1만戶만이 免稅혜택을 받던것이 앞으로는59%인 1백32만8천호가 면세혜택을 받게되며 농지세를부담하는나머지91만戶의농가도 세부담액이 크게줄어 든다고 말했다.

농지세는 벼收入에대한 甲類농지세와 특수작물 소득에대한 乙類농지세로 구분되는데 보리, 콩, 잡곡, 감자등 보통작물과축산, 가금, 양잠, 농축산가공품등에 대해선 과세를 하지 않는다.

住公、내년 住宅 5만건립

주택공사는 내년중에 5만호의 주택을 지을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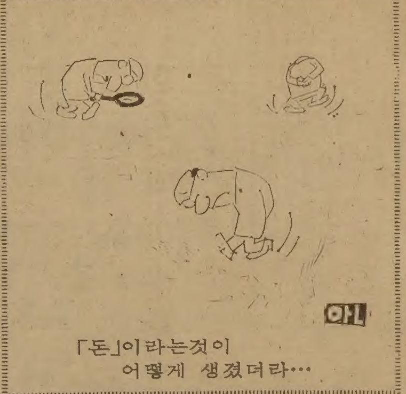
21일 住公에 따르면 이같은 내년중의 주택건설규모는 내년중의 전체 공공주택건설계획 10만호의 50%에 해당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택지는 1백25만평에 달하며 사업비는 6천8백50억원이 투입될것으로 추정되고있다.

레이건 11개국指導者와 小項上회담계획

【칸쿤(멕시코) 21日AP·聯合】멕시코의 칸쿤에서 22일 개막되는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할 각국 지도자들은 21일 일련의 소정상회담을 갖고 각국의 주요정치문제를토의한다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社會漫評



地平線

산란때가 되면 연어는 수만km밖의 바다에서 고향의 냇가로 거슬러 돌아 온다。알을낳기위해 비쩍 마르지만 연어의 精巢만은 날로 커진다。먹이를 안먹어 체중은 주는데 精巢만은 어떻게 발달할수있을까。이 수수께끼를 풀다가 발견한것이 세포의 유전자 ‖ 핵산DNA다。

▼보통인간의 세포에는 46개의 염색체가있는데 23개만 있는 세포가 따로있다。이것이生殖細胞 ‖ 精子와 卵子인데 신비하게도 自體增殖能力과 結合力이 있다。여기에 착안한것이 유전자공학이다。유전자 ‖ DNA는 말하자면 超小型컴퓨터다。인간세포속의 모든 DNA는 60兆개나된다。한 세포속의 DNA는 6백페이지의 책1천권에 해당하는 정보를가지고있고 이정보를 64가지의 암호로 전달하는 RNA(메신저)덕택에 세포 하나로 크론생물을 창조하거나 개조할수있다。또 DNA와RNA 즉 유전자를 응용하는 새로운시대가 우리생활에도 닥쳐오고 있다。

▼해바라기콩, 콩뿌리에 자라는 보리, 바다 토마토, 슈퍼라이스등 유전자공학이 바로 그것이다。이 유전자공학은 식량뿐아니라 새로운 생명(人工개구리1號)까지 창조하는 마법이다。암의 특효약이라는 인터페론, 석유를 대체할 새 연료, 비료없이 자라는 쌀·보리, 비단을 짜는 대장균, 不老長壽약등 인간의 수명을1백50년으로연장하는 유전자공학이란「괴물」은 과연 무엇일까。

▼새鍊金術인 유전자공학을 외국에서는 증기기관이 일으킨 산업혁명과 2차산업혁명이라고 까지말한다。하나 인류를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 낼 위험성마저 있다。철강, 자동차, 컴퓨터, 전자산업등 20세기 기술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일본에 가르쳐준 미국에서도 이 유전자공학만은 핵비밀보다 더 무섭게 문을 걸어잠그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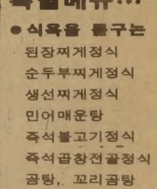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매일같이 유전자공학 회사가 창립되고 32살나이에 20만원을 들여 40억을번 로버트·스원슨사장의 제네티크사를 비롯해서 화학공업, 제약, 화장품, 청량음료, 섬유, 과자회사등모든기업이 유전자 공학부문을 신설하고 수백건의 특허신청을내고있다。동물과 식물의 세포를 융합했다는 새로운식량 프란츠가 나오는가하면 소나양이 먹는 사료만넣으면 그것이 우유나 버터, 고기로 둔갑하는 공장을 만드는라고 투자경쟁까지 벌이고있다。

▼보이지않는공정을 향해서 뛰기시작한 세계각국의 학자나 기업들이 눈이 벌건 이때 자원없이 머리와 기술만 가진 우리들에겐 이 이상 더 좋은 경쟁산업이 있을수없다。유전자공학에 눈을 더 크게 떠야되겠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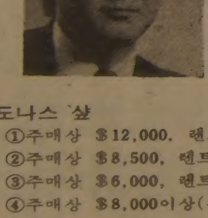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531—0277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염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중앙 AUTO-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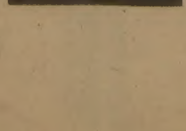
금주의 새 리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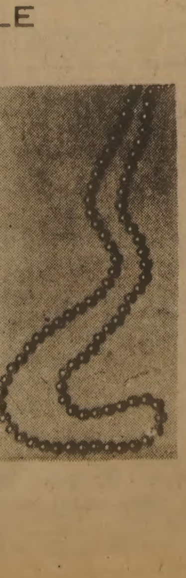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토타리오 인컴 넷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햄버거 샾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세일즈맨
신 영 하

KORYO
카나다보석협회 회원
확장 이전 1주년 기념 SALE
20 % OFF





고려보석
EATON CENTRE (Level 1 분수대옆)
979-3196

波最惡의 街頭폭력示威

南部카토비체市 5천群衆 경찰서 습격

◇경찰車輛뒤엎는 波데모대 폴란드 카토비체시의 젊은이들이 20일 경찰서앞에 서있는 한경찰차량을 전복시키고있다。【카토비체20日AP電送=聯合】

反蘇신문 販賣員체포 抗議

對勞組 유화정책에 不滿도

【바르샤바20日UPI·聯合=聯合】 폴란드노조운동 이래 최악의 가두폭력사태가 20일 폴란드 남부 카토비체시에서 발생하여 경찰은 체루탄과 곤봉을 사용하여 5천여명의 데모대를 해산시켰다.

폴란드 정부의 자유노조유화정책에 불만을품은 공산주의 강경파학생들은 이날 카토비체시의 한 제철소내공산당사무소를 점거한 한편지방방송국을 장악하고 무능한 지방공산당관리들의 사임을 촉구하는 방송을 하고있는것으로 보도되었다。

탄광도시인 카토비체의 주민 약5천명은 이날 경찰이 반소내용의 지하신문과 자유노조간행물을 판매하는 3명의 노조행동대원을 체포한데 항의하기위해 시내 중심가에 운집, 데모를 벌이기시작했으며 일부 군중은 경찰서를 공격하여 투석으로 창문들을 파괴했다고 노조측이 발표했다。

또한 폴란드국영TV방송은 성난 군중이 한 경찰차를 탈취、이를 전복시키고 시위를 벌였으며 데모지도자들은 이자동차위에 올라가 확성기로 시위를 선동했다고 보도했다。

카토비체시자유노조지부대변인은 데모가 격화되자 폭동진압경찰이 출동, 최루탄을 발사하고 곤봉을 휘두르며 군중을 해산시켰다고 말했다。

폴란드노조사태가 14개월전 발생한 이래 일련의 산발적인 가두폭력사태가 있어왔으나 이날의 충돌은 한 정치문제를 에워싸고 발생한 가장 심각하고도 최악의 대규모폭력사태였다。

카토비체시의 자유노조지부는 소련을 풍자하는 신랄한 반소간행물을 자주 발행해온것으로 유명하며 당국은 이날 2천5백여장의 간행물을 압수한것으로 알려졌다.

쿠바軍、니카라과浸透

1千정예부대 左翼게릴라支援

美ABC·TV보도

【워싱턴20日=東洋放送特派員】 쿠바의 카스트로는 니카라과의 좌익세력을도와 이웃 엘살바도르의 좌익게릴라들을 지원하기위해 1천1백명의 정예쿠바군대를 니카라과에 침투시켰다고 美ABC·TV방송이 美정보소식통을인용, 20일 보도했다.

레이건행정부는 소련수송기에의해 쿠바군대가 한달전 니카라과의 정글로 수송됐다는정보를 공표하기전에 여러각도로 신중히 조사하고있다고 이방송은 보도했다.

폴리사리오 陣地 모로코空軍 폭격

【엘아이운 (서부사하라) 20日=聯合】 서부사하라주둔모로코공군이 19일 인접국 모리타니영내의폴리사리오전선게릴라진지를폭격했다고 모로코가 모리타니국경을넘어 알제리의 지원을 받는 폴리사리오게릴라를 공격하기는 1976년 사하라분쟁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서부 사하라주둔 모로코군사령관 아메드·돌리미장군은 기자들에게 모로코공군기들이 모리타니영내 10내지 15㎞에 자리잡은 폴리사리오전선게릴라들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게릴라들이 지난주 길타·제무르의 모로코수비대를 미사일과 탱크로 공격한후 모리타니로 피신했었다고 말했는데 폴리사리오전선은 이전투에서 게릴라들이 모로코군 2천1백명을 죽였다고 알제리에서 발표했으며 모로코의 친정부지는 오히려 폴리사리오 게릴라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美·蘇의 制限核戰、유럽서 可能"

波紋 몰고온 레이건 發言

各國서 경악·우려

【파리·런던AP=聯合】 유럽에서의 制限核戰발발가능성을 지적한 레이건 美대통령의 발언은 20일 소련을 비롯, 영국, 서독등 유럽국가들을 우려 또는 경악케하는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지난16일 백악관에 초치한 지방신문편집인들에게 『나는 美蘇두강대국중의 하나가 핵무기단추를 누르지않고도 야전군에대한 전술무기의 교전이 가능한 지역을 알수있다』고 발언했기때문이다. 다음은 이에대한 각국의 반응이다.

▲西獨=정치소식통들은 레이건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본에서의 대규모 평화주의자데모를 야기시킨 중성자탄생산결정발표에 뒤이은『새로운 대실수』라고 보고있으며 집권사민당의 지도자들은 그같은 발언이『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억지력을 약화시키는것』이라고 말하고『유럽의 파괴를 고려하는 1개강대국의 정책은 서독으로서는 용납할수없다』고 말했다.

▲런던=보수당정부는 레이건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내용을 아직 입수치 못했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야당인 노동당의 론·헤이워드사무국장은 그 발언에『공포』와『경악』을 느꼈다고 말하고 유럽비핵화를 지향하는 노동당의 입장을 확인, 강화시켰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외무성대변인은 워싱턴측에 해명을 요구했다면서 『네덜란드와 관계되는한 유럽에서 전쟁가능성을 원치않는다』고 말했다.

▲프랑스=클로드·셰송외상은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의 SS20미사일에 대처할중거리미사일생산을 정당화시키기위해 그같이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외무성대변인은 레이건 대통령의 발언에 『놀랐다』고 말했으나 정계에서는 이번주말 로마에서시위를 벌일계획인 좌익평화주의자들에게 좋은 구실을 주게될것이라고 말했다.

▲東獨=레이건 대통령의 발언이『엄청난』것으로 西유럽인들에 대한 경멸을 보인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위험增大·나토 抑止力弱化" 유럽

"自殺원하는者만이 核전쟁 유발" 蘇聯

"西方단결 瓦解시키려는 惡宣傳" 美國

核戰에 勝利없다

【모스크바20日UPI=聯合】 소련공산당서기장겸최고회의간부회의장 브레즈네프(74)는 20일 레이건미 대통령에게어떠한 핵공격도 이를 반대한다는 공개성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브레즈네프는 이날 소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와의 회견에서 소련이 핵전쟁에서의승리를 확신하고 있다고 비난한 지난16일자레이건 대통령의 발언에 언급, 핵전쟁에서의 승리를 믿는것은『위험스러운 미치광이짓』이라고 말하고『자살을 결심한 者만이 승리를 믿고 핵전쟁을 일으킬수있다』고 강조했다.

소련관영 타스통신에 의해 전재된 프라우다와의 회견에서 브레즈네프는 또 레이건 미 대통령이 범죄행위로의핵전쟁을 거부하는 명백한 성명을 발표했으면 좋겠다고말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의 군사위협 운운한것은 미국의 핵무기증강을 정당화하려는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전세계를 破局으로

【유엔本部20日AP=聯合】 소련은 미국이 핵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생각을 고취시킴으로써 전세계를 파국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20일 비난했다.

이날 유엔정치안보위원회의 군축토의 개막식에서 유엔주재 소련대사 올레그·트로야노프스키는 핵전쟁에 대한 미국의 이같은생각이핵무기를 인정하는 심리적 분위기를 낳고 있다면서 핵무기의 선제사용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유엔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촉구했다.

나토、최대곤경에

【뉴욕20日AP=聯合】 월터·먼데일 전미국 부통령은 20일 레이건 행정부가 위험스럽게도 유럽맹방들과의관계를 잘못 이끌어가고있으며 도덕적 지도력을 소련에 넘겨주고있는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먼데일 전부통령은 외교정책협회에서 행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연설에서 오늘날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어느때보다도 곤경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먼데일씨는 나토 운영문제가 미 대통령이 당면한 최고의 시련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하면서『내 견해로는 현 대통령이 그같은 시련에 대처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그는이어 미국은유럽맹방과의 관계를 잘못 이끌어왔다고 밝히고 유럽과의 완전한 동반자로서 행동할수있는 능력이 미국에 있는가에 대해 회의와 혼란만을 조성해왔으며 맹방을 다스리는 고삐가 풀려나가도록 방치해왔다고 덧붙였다.

나토戰略 변함없다

【글렌이글스 (영국) 20日AP UPI=聯合】 미국은 20일 개막된 제30차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회의에서 유럽은 미국핵우산의 보호아래 있다고 다짐하고 미국이 유럽대륙만의 제한핵전에 관심을 갖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일부주장은 서방측의 단결을 약화시키려는 반핵주의자들의 고의적인 선전공세라고 비난했다.

나토13개국의 국방상과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핵기획회의의 첫날회의가 끝난후 고위미국방관리는 레이건 대통령의 지난16일자 발언에 대한 유럽일각에서의 거센 반핵선전공세에 논평하면서 미국이 미대륙의 참전없이 유럽만의 핵전쟁을 예상하고있다는 일부주장은미국정책의 실체를보지못한 악의에 찬 선전』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유럽에 핵전발발과 동시에 미국무기를 즉각사용한다는 수십년간의 나토전략을 고수하고있으며 이같은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짐했다.

와인버거미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에서 전술핵무기에의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전면핵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서구방위공약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레이건發言 옹호

【워싱턴20日AP=聯合】 美국무성은 19일밤、미·소강대국들이 유럽에서 제한핵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레이건미 대통령의 발언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장기對歐대응전략개념』과『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국무성은 이날 레이건행정부가 유럽을 핵전쟁 전초기지로 만들려든다는 서독정계및 소련으로부터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뒤 이와같이 말하고 나토가『재래전이든 핵전이든 어떠한 수준에서도 대소 대결능력을 갖추는것이 나토억지정책의 필요불가결한 요체』라고 강조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신문편집인들과가진 오찬회석상에서『미국과 소련간에 제한핵전쟁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받고『유럽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서독집권사민당의 고위안보전문가 한스·코슈니크씨는이와같은 레이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발、미행정부가 이문제에 관해『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촉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모스크바 PLO 사무소 蘇서 大使館級으로 格上

對中東 영향력 增大노려

완전한 外交的地位 부여

【모스크바20日AP·UPI=聯合】 소련은 20일 故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死後 중동에 대한 영향력 강화노력의 일환으로 모스크바 주재 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사무소를 대사관급으로 격상, 『완전한 외교적 지위』를 공식부여했다.

관영 타스통신은 소연방최고회의 간부회의장 (국가원수)겸 공산당서기장인 브레즈네프가 이날 약1시간동안 진행된 아라파트 PLO의장과의 회담에서 모스크바주재 PLO사무소의 외교공관으로의 지위격상을 직접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모스크바의 관측통들은 蘇聯의 이같은 조치가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死後 中東에서 그 역할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美·이스라엘 군사동맹에 대한『부분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했다。

브레즈네프는 이날 아라파트의장과 중동사태를 논의하는 가운데 中東평화와 국민적 독립국창설을 달성하려는 팔레스타인인민의 투쟁을 지지했으며 이에대해 아라파트의장은 소련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앞으로 보다강화시켜 나가겠다는 팔레스타인人의 결의를 강조했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소련공산당 서기장레오니드·브레즈네프(왼쪽)와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이 20일 크레믈린 宮에서회담하고있다。브레즈네프옆은 안드레이·그로미코소련외상。【모스크바20日AP電送=聯合】

蘇、이라크에 精密防空體制구축

【런던20日AP=聯合】 소련은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지난6월 이라크의 타무즈원자로를 폭격한것과같은 사태가 재발하지않도록 하기위해 이라크내에 정밀방공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영국의 데일리·메일紙가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런던에 들어온『믿을만한 정보들』을 인용, 5명의 방공관계전문가와 2명의 보안장교등 모두 7명의 소련관리들이 지난주 이 방공체제구축작업을 감독하기위해 이라크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自由中國 實業人 2명 中共방문 經協등협의

中共소식통 밝혀

【福州(중공)20日=聯合】 대만실업계의 주요인사2명이 최근 중공福建省의 福州를 방문、福建省정치지도자들과회담했다고 중공의 정치소식통들이 19일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대만 10대기업에 속한『최고경영인』이라고만 밝힌 이 2명의 실업인이 福州를 방문、중국통일촉진을 위한 중공·대만간의 경제협력을 지지하는 발언을했다고 주장했다。

중공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廖承志는 앞서 중공을방문한 일본共同통신사절단에게 중공은지난9월30일의 대대만평화통일제의에 앞서 대만과의 사전접촉이 있었다고 지난9일 밝힌바있으며 대만관리들은 중공의 이같은 주장을 완강히 부인했었다。

아프간 反政府軍 카불周邊압박

【이슬라마바드20日AP=聯合】 아프가니스탄 회교반군들은 수도카불이외지역의 전투가 소강상태에빠진 이래 카불주변으로 전선을 압박해가고 있다고 서방외교소식통들이 20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무자헤딘게릴라들이 카불교외 10㎞지점의 카르데즈고속도로를『효과적으로 장악』하는등 회교반군들은 카불주변을『근접 포위』하고있으며 분계선이 형성되고있는 가운데 정부군의 검문초소들은 이미 철수됐다고말했다。

經濟短信

▲鑛業製錬서 金1백㎏수출=韓國鑛業製錬은 내수부진으로 재고가 늘어남에따라 올들어 세번째로 金1백㎏을 뉴욕金시장에 팔기로했는데 수출가격은 온스당 약4백40달러선。

▲에너지合理化자금2억달러借款=정부는 내년중 ADB서 에너지합리화자금 2억달러를 도입할예정인데 이자금은 老朽보일러改替、熱併合發電업체지원、低效率窯爐개체、高效率설비개체 高溫應縮水回收설치등에 지원예정。

旅行者휴대품檢査 간소화

物品기준서 金額기준轉換

관세청은 해외여행자의 휴대품검사업무를 간소화하기위해 간이세율적용방법을 현행 물품기준에서 금액기준으로 전환시키기로했다。

21일 관세청에따르면 공항에서의 신속통관으로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지금까지는 반입하는 물품별로 세금을 부과하던것을 금액별 간이세율기준을 책정、이를 적용하는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은 현장에서 즉시통관시키는것을 원칙으로하며 電算化에의한 과세품목을 확대하는 반면 현재 감시가 요망되는 14만명의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수록해놓고 이들의 출입국동태감시를 강화하는 등 밀수요주의인물에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메아리

가을의 거둬들이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유형거 되돌 신명의 잔치가 열린다。올해로 22회가 되는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오늘、22일부터 3일간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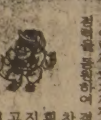
해마다 주관하는 여러 행사 가운데 오래 지속되어온 아니라 해마다 행사 자체의 내실을 기해、일반의 호응도 예기를 더해가고 있어 새삼 저해의 서민적인 생활감각과 밀착된 민중의 오랜 지니는 질박과 같은 생명력을 느낄수가 있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시·도청 소재지에서 열리던 행사가 올해는 인천시 승격을 기념하는 뜻도겸해 인천에서 개최케 됐는데 이북5도를포함한 17개 시·도의 대표 19개팀에서 1천48명의 다수가 참가한다。

한말로 민속예술의 경연이라 하지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기다양하여 농악·민속극·민속놀이·민요·민속무용들이 어울려 관중들은 전국의 풍류를 앉아서 고루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전통문화를 보호、육성하는 측면에서 볼때 이 대회에서의 공연·발표로 지역사회에서만 알려졌던 민속예술이 널리 전국적으로 번지고 나아가서 국가의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民俗藝術의 興



한동안 수상을 목적으로 오랜 고유색을 변형시켜서 재구성하고 심사과정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대형화를 시도하여 자칫 대회가 본래의목적에서 벗어나는듯한 일면이 있었으나 근자에는 그와같은 폐단도 가셔졌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당초 지방행정기구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경연의 대형화로만 치닫았다가 차츰 그 오류를 깨닫고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학자나 안목을 지닌 인사들에게 맡겨 철저한 고증을거쳐 원형을 되찾게되면서부터 올바른 방향을 찾기에 이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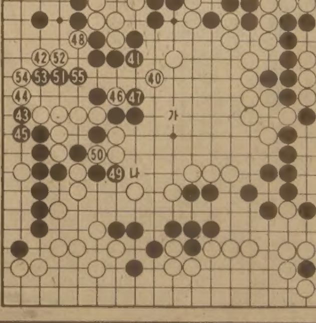
다만 한가지 아쉬움이있다면 본디 여러사람이 함께 놀이나 굿마당에 어울려 얼씨구 절씨구 신명을 하게마련인 민속예술의 경연이 공설운동장에서 연희자와 관중이 확연히 나뉘어져 서로 사이에 연결이 없게된 일이다。

경연이라고는 하나 모처럼의 잔치이니 관중도 동원되어져 있을것이 아니라 공연종목에 따라서는 흥을 함께 나눌수 있는 배려도 있었으면 하는데 당사자들의 생각은 어떤것인지 모르겠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5局 第7譜 140~155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 姜哲民〈1敗〉
黑(4段) 姜 勳〈1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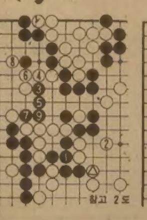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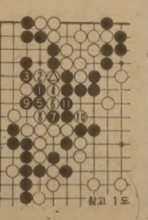
상변과 우변의 흥정에서 횡재를 한 姜6단은 白40을 선수하고 42에 벌려 우세를 과시한다。이때 黑43으로 젖혀이은것은 白이먼저 45자리에 젖혀잇는 수를 예방한 역끝내기로서 상당히 큰곳이지만 대세는 도저히 白을따를수가 없다。

여기서 白이얌전히「가」정도로 중앙과상변을 확보하면 樂勝이었다。그런데 姜6단은 갑자기 白46에 끊고 다시48。棋諺에서는「不得貪勝」이라하여 욕심을 삼가하라고 이르고있다。이 棋諺을 굳이어기고 大勝을 거두려한 데에서 문제는 발생하게된다。

白46、48의 관련성을 말해보면 46으로 먼저48에 끊는 참고1도의 수는 黑1이하11까지白이낭패다。그래서 11(실전보46) 자리를 먼저끊은것이다。목표는 물론 상측黑대마를 크게잡아 보겠다는 데에 있다。그러나 黑49가

白、지나친 욕심





수순의묘。白50으로는「나」에 막고싶지만 참고2도△표에대해 黑1이하의 수단이있어 오히려 좌측白6점의 통말이 떨어진다。그야、대신 좌상귀黑은잡지만 이왕잡으려면 黑대마를 끝까지 추격할 생각이다。【一凡】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 ●Rodenstock

*돈테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333-0664

영업시간 ●월~토 9:30AM~6:00PM ●월~토 11AM~7PM

SHANGHAI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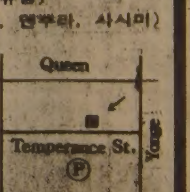
메 뉴: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화~금 11:30AM~12PM
일요일 11: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864-9347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식 중국음식 벵컷 카드에 담아서 원하는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Spadina코너)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밥(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아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월~목 11:00AM~10:30PM
금요일 11:00AM~11:00PM
토요일 5:00PM~11:00PM
일요일 5:00PM~10: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366-2470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416) 222-9480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363-9527
CHINA ROYAL RESTAURANT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4PM~4AM 토~일: 12PM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977-9734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刑事1審 내년부터 궐석裁判 가능

서울형사지법 종전엔 抗訴審서만 가능…永久未濟쌓여

召喚狀송달 6개월넘으면

死刑·무기·징역3년이상 제외

형사제1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출정하지않아도 재판이 진행되는「궐석재판제도」가 내년 1월초부터 시행된다. 서울형사지법은 21일 지난3월1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따라 이같이 시행일자를 확정했는데 이제도에 따르면 재판을 고의로 기피해오거나 주소지 변경으로 법원의 소환장 송달이 안돼 재판을 받지못한 불구속 피고인들은 빠른시일안에 법원에서 재판기일을 확인하고 재판에 응하는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된다.

◇어떤경위로 불구속 피고인이 됐든 궐석재판을 받게되면 자신에게 불리하다.

피고인 빠른시일에 재판응해야 유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형사제1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수없을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단기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76조규정에의해 형사1심공판에서의 궐석재판은 못하도록 돼있었고 다만 제365조규정에따라 항소심에서의 궐석재판만 허용됐었다.

또 대법원규칙은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접수한때로부터 6개월동안 경찰에 피고인소재조사를 의뢰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하고 이기간동안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2회의 공시송달절차(법원게시판게시·1차14일·2차5일)를 거쳐야한다. 이때도 피고인이 출석하지않으면 피고인진술없이도 재판할수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법원의 궐석선고가 가능해짐에따라 현재 전국 각 1심재판부에 쌓여있는 영구미제사건은 특례법대상이 아닌 사건을제외하고는 궐석재판에의해 자동적으로 처리돼 법원의 일손을 크게 덜게된다.

영구미제사건은 ▲불구속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소환장을 받고도 출정하지않고 도피해버리거나 ▲불구속입건됐던 피의자가 기소사실을 모른채 주소를 옮기거나 재판진행도중 거주지를 옮겨 재판부의 소환장송달이 안되고 ▲구속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난후 달아나버린는등의 이유로 재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사건들인데 지난8월31일 현재 전국적으로 6천1백16건이나되고 서울형사지법에만 2천5백23건에 달하고 있다.

이가운데 궐석선고가 가능한 사건은 전국에서 6천여건, 서울형사지법에서 2천4백98건이나 된다.

특례법시행이전에는 영구미제사건은 기소후 15년이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판결을 받았지만 특례법에따라 궐석선고가 가능해진셈이고 이때문에 도피가 아니고 기소된 사실이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채 재판을 못받아온피고인들은 출정해서 재판을받는게 유리하게 된것이다.

金炯琪서울형사지법원장은『법원으로서야 법에따라 궐석선고를 해버리면 일손이덜어지지만 법원의 일손이 든다해도 영구미제사건 관련피고인들이 이제라도 재판에응하는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金원장은『궐석선고시에는 실형이 선고될 사건도 피고인이 출정, 변소를 하고 또 정상이 참작되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등이 선고될수도 있고 특별한 사건의 경우엔 무죄판결도 될수 있을것이다』면서 지금이라도 관련피고인들이 법원에나와 재판기일을 확인한후 출정해 재판을받을것을 권유했다.

또 許正勳 서울형사지법수석부장판사도『영구미제사건의 대부분이 불구속기소된사건인 만큼 벌금형으로 끝날사건이 많다』고 밝히고『사안의로 도피한게 아니고 사안이 경미해 재판계류사실을잊어버리고 있던 피고인들은당정해 떳떳이 재판을 받는것이 본인을위해 유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형사지법은 최근『궐석 선고시에도 증거조사는 새로하는지』여부를 대법원에 질의,『피고인이 출정하지않았을때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피고인이 동의한것으로 간주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규정을 적용할수 있다』는 회답을 받았다.

이는 법원이 앞으로 기록만 검토한 후 증거조사없이 궐석선고하는 일만 남아있다는 것이된다.

이때문에도 영구미제 사건관련피고인들이출정해증거조사부터새로하는것이유리하다는게법원관계자들의답부다.

또 지난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형실효등에 관한 법률」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벌금형은 3년, 금고형은 10년이 지나면 자동말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궐석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형의 집행도 피하게 되면 평생을 전과자로 지내게 된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崔奎植기자】

소매치기 단속하자 竊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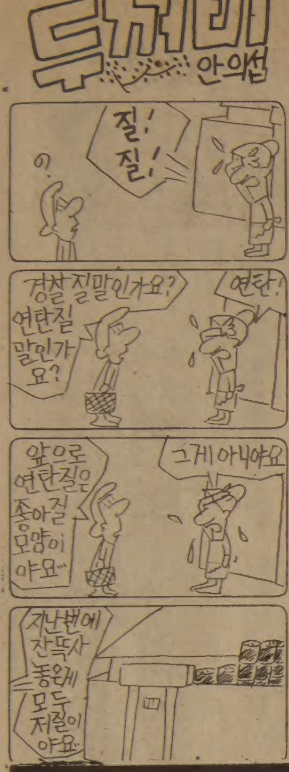
住宅街돌며 21차례털어…4명구속 셋手配

法廷탈주범 李相勳 一黨

서울시경은 21일 江南、江西동 주택가에서 금품을훔쳐온 權仁德(30·전과8범)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훔친 물건을 사들여온 羅永煥씨(32·江西區禾谷5洞81)등 3명을 장물취득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의하면 權등 일당5명은 10년전부터 서울永登浦상시장을 무대로 소매치기를해왔는데 소매치기에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지난해7월부터 주택침입 절도로 변신, 江南·江西區의 주택가에서 21차례에걸쳐 귀금속 전자제품등 3천1백여만원상당을 훔쳐 장물아비들에게 팔아왔다는것。

이들은 지난번 법정탈주로 물의를 빚었던 李相勳과도 관계를 맺고있었음이 밝혀졌는데 장물아비 李在述(33·전과10범·永登浦區永登浦2洞5街421)은 지난 19일밤 잠복한 형사들이 체포하려하자 식칼을들고 달려들어 30여분간의 격투끝에 붙잡혔다.



障碍者올림픽 열려

東京서 한국등 55國참가

【東京=金晴錫기자】세계에서 처음열리는 장애자올림픽인 국제장애자기능경기및 스포츠대회(ABILYMPIC)가 21일 상오10시 東京都센다가야(千駄谷)체육관에서 개막됐다.

한국선수27명(기능선수17명·스포츠10명)을 포함, 55개국에서 3백97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날개막행사는日本황태자부처와 각국 외교사절단및 각국임원, 보호자등 2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2시간동안 섬대하게 베풀어졌다.

아르헨티나를 선두로 알파벳순에따라입장한 각국의 장애자선수들은 휠체어와 목발에 의지하고 들어왔으나 한결같이 자립의지를 뽐내면서 밝고 투지만만한 표정들이었다.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이룩되기를 기원한다」는 황태자의 축사에답해 참가선수들은『직업을통해 연마한 기능과 노력을 정정당당히 겨룰것』을 선서했다.

대회는 건축·선반·기계설계·양재·영문타자등 17개종목으로 나누어 日本지바(千葉)市 중앙기능개발센터에서 숙련도를겨루는 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이어 24일부터는 오오사까(大阪)府 오오츠(大津)시에서 장애자스포츠대회가 3일동안 진행된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搗精업자 구속

농부가 保管한벼 멋대로 팔아넘겨

【禮山=聯】충남禮山경찰서는 21일 농민들이 도정한뒤 보관의뢰한 벼를 탈곡하여멋대로 팔아챙긴 정미업자 李永夏씨(38·충남禮山郡挿橋邑頂里803)를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자기집에서 정미소를 경영하며지난9월30일 張長淳씨(48·插橋邑上城里산19)가맡긴벼 39가마를 도정,보관중 임의로 팔아버린것을 비롯, 지난해10월부터 최근까지 같은수법으로 모두 39명의 농민들이 맡긴 1천3백44만원 상당의 쌀을팔아 횡령한 혐의이다.

유행성出血熱환자 첫발생

醴泉서 두통·高熱 50代남자 重態

【安東=聯】경북북부지방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유행성출혈열환자 1명이발생했다.

경북醴泉郡下里面矢項洞381 金일수씨(50)가 20일하오 고열·두통등 유행성출혈열증세를 일으켜 安東성소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있으나 중태이다.

金씨가 갑자기 고열이 나고 두통이 심해지고 입천정·가슴등에 빨간점이 생긴후 혈압이 내려가는 증상을 보여 이날 가족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병원측은 이병이 10월부터 12월사이에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 잔디에 침구나 옷을 말리지말고 들쥐배설물에 접촉을 피하도록 당부했다.

鑛夫2명 坑속매몰

함태鑛業所 地下水터지며 죽탄덮쳐

【太白=聯】20일밤 11시께 강원도太白市所道洞 소재 함태광업소 태백갱입구로부터 1천8백90m지점 지하막장에서 채탄작업중이던 광부崔達集씨(27·太白市所道洞)와 광부安喜善씨(21·太白市所道洞)가 갑자기 지하수가터지는 바람에 캐논 탄이 갱구를 막아 21일낮 현재까지 갱속에 갇혀있다.

이날 같이 채탄작업을 하다가 먼저나온 동료광부 李철현씨(29·선산부)에 따르면 崔씨등 2명은 운반작업종료 1시간을 앞두고 채탄된 탄을 실고나오던중 지하막장에서부터 갑자기 물이 터져나와 운반갱도 15m정도를 물에젖은 죽탄이 덮쳐 매몰됐다는것.

사고가나자 함태광업소측은 구조반 15명을 긴급구성, 구조작업에 나섰으나 또다시 사고를낼 가능성이 많아 접근을 하지못하고 있다.

來賓향해 큰절

大邱東部署「경찰의날」기념식서

河현사 파문을 계기로 경찰이 결의를 새롭게 하고있는 가운데 경찰창설 36주년을 맞아 한 경찰서의 기념식장에서는 도열한 경찰관들이 기념식에 앞서 참석한 축하객들에게「사죄의 큰절」을 올리고있다. 21일상오11시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서는 식장 앞자리에 서있던 吳達鎬서장을 비롯 4백80여명의 정·사복 경찰관들이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위해 참석한 지방유지·시민등 2백여명의 하객들을향해 두루를 풀고 큰절을해 참석자들을 당황케했다. 이날 식장에서 굳은표정을한 吳서장이 먼저 내빈석을향해 큰절을하자 전직원들도 누구의 지시도 없이 일제히 모자를벗어 땅위에놓고 국민앞에 사죄하는 뜻으로 큰절을 올린것.【大邱=聯】

적부심석방률 42%

구속적부심제도가 부활된 금년1월1일부터 지난 8월말까지 모두 4천9백30명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이가운데 42%인 2천72명이석방된것으로 나타났다.

傷害교사에 "무혐의"

검찰 통고 물구나무罰준것은 懲戒해야

釜山、敎權침해사건

【釜山=聯】釜山지검李炅在검사는 20일 수업중 체벌로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키게 했다는 학부모의 고발에 따라 상해혐의로 불구속송치된 釜山沙下중학교 교사李海元씨(28)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체벌로 정신이상증세를 일으켰다는 沙下中1년 金모군(14)의 병명은 소아정신증이며 현재의 각종증세는 李교사의 체벌에의한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진행돼온 것이라는 釜山대학병원 신경정신과 李구열·李득범씨등 2명의 전문의 정밀감정과 자체조사 결과에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결정과는 별도로 李교사의 金군에대한 체벌은 교육상 적절하지못한 조치였다는 점을들어 釜山시교위에 징계토록 통고했다.

검찰이 지적한바에 따르면 李교사가 金군을 ▲급우들이 보는앞에서 노래를 부르게하고 ▲물구나무서기를 시켰으며 ▲급우와의 태권도대련에서는 다리를 다쳤다는 호소를 확인하기위해 바지를 벗겼고 ▲피교육자의 심리상태를 도외시한 사실등은 교육방법상 적절한 조치였다고는 볼수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4월8일 상오11시께 沙下중1학년11반 체육시간중에 변소를 간다며 빠져나가 30분이 지난뒤 돌아온 金군의 뺨등을 체육교사 李씨가 3~4회때린데서 발단됐다.

그후 金군의부모는 金군이 학교에서 돌아온후 헛소리를 하는등 정신이상증세를 보이자 李교사를 상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두外大生 구속

校內시위 선동

서울淸凉里경찰서는 21일 교내에서 유인물을 뿌리며반정부시위를 선동한 한국외국어대생 金鍾三군(22·불어과3년)과 金聖元군(24·서반아어과4년)등 2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이들은 지난달29일 낮12시30분께 교내학생회관 4층옥상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뿌리며시위를 선동했다는것이다.

發癌性코피 여과지

50여다방 계속사용

【金泉=聯】보사부가 지난 13일 발암물질이 섞였다는이유로 사용을 전면 금지시킨 원두코피여과지가 1주일이 지나도록시중다방에서대부분 그대로 사용되고있다.

경북金泉市의 경우 도당국이 보사부결정 4일후인 지난17일 각시·군에『다방의여과지를 모두 수거할것』을지시했음에도 21일현재까지 여과지사용금지계몽은물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표주박

오리만한 황개구리를잡아

뒷다리만22㎝ 몸길이36㎝

○…오리만한 크기의 황개구리(사진)가 서울근교 연못에서잡혔다.

○…이개구리는 지난18일 하오1시경지기 廣州郡東部邑望月里700 二和산업앞 연못에서고기를 잡던 郭喜炳씨(42·용운)가 잡은 것으로 몸길이가 36㎝、몸통이 32㎝、뒷다리만도 22.5㎝나 되는데 郭씨는 철망으로 개구리집을만들어 키우겠다고。

한국일보 詩壇

漢江 말씀

金時哲

세월의 뒤안길을
눈물같이 흘러서 가는
江。

그 오랜 세월
그대 낳아 보듬어 본 至純의
나는 당신의 젖줄입니다。

어머님입니다。
조상입니다。
고향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 한 마리
송사리도 잉어도 그네들도
떠나가 버린
품안。

버림받은 어미의
恨맺힌 눈빛으로 흐르다가
구원 손짓해 부르는
애절한 손길로 흐르다가

끝내、
통분으로 쓰러진
悲亡으로 흐르다가
그리 흐르다가

어찌 내 이대로 죽어갈
恨江이옵니까。

감사의 말씀

고인되신 어머님을 위해 지난19일부터 사흘동안 불순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참석, 지도해주신 여러분께 우선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 우

심 용 웅 배

한인업체를 도웁시다!

많은 한인업체들은 불철주야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경영란에 부딪치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믿고,

서로 도와 굳게 모아진 힘으로

한인업체를 키웁시다.

한인업체의 경제적 발전은
한인사회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한국일보사 광고부
533-2361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새 리스팅

도넛샾:
①주매상 $3500. 6개월된 전망 밝은지역
렌트: $3000, 10년+10년 옵션. $90000다운
가격: $180,000
②월순수익 $9000보장. 운영이 간단하고 시간짧음
렌트: $1,060. 8년+10년옵션. $140,000다운
가격: $185,000

커피샾
①5일간 영업. 7시부터 5시반까지 오픈.
주매상: $2,500. 렌트: $1,225. 3년+3년옵션
가격: $75,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①주매상: $5,500. 렌트: $750. 5년+3년
가격: $50,000
②주매상: $6,700. 새로꾸민 전망 밝은가게

넓은 방갈로
(던다스와 Hwy427)교통이 편리하고 벽돌로 된 단층집, 3 베드룸, 파이어 플레이스 2개, 65×170, 뒷 마당크고 잘 단장된 큰 지하실 $65,000다운, 17% 2년간 몰개지 잡아줌.
가격: $164,900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한국50大財閥을 벗긴다 ②

한국일보 (특집판)

빚위에 서있다

어두운 財務구조 이대로 좋은가

20大그룹 평균資産규모 5千億臺

不況…건설업黑字속 重化學은赤字

財閥은 많다。그러나 그실체를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현대자본주의 사회는 기업의공개를 요구하고있지만 재벌의 實像은 베일에 가려진채 좀처럼 그참모습을 드러내지않는다。소유와경영의 분리, 기업내용의공개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사회적요망사항。정부의 기업공개정책에 힘입어 일부기업의 내용이 공개되고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氷山의 一角이다。계열기업군을 망라한 재벌그룹의 경영실태가 공개된적은 없다。그러나 국민은 財閥의 身上明細를 알아야할 까닭이있다。재벌을 키우고 재벌의 성장을 뒷받침해온것은 다름아닌 國民經濟이기 때문이다。한국일보사經濟部는 독자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위해 前人未踏의 처녀지를 개척해내기로했다。국내유력재벌그룹을 대상으로 3개월에 걸쳐 자료를 수집·분석·정리하여 마침내 50대재벌의 신상명세서를 엮어내놓기에이르렀다。취재진도 깜짝놀란 매우 충격적인 리포트였다。【編輯者註】

經營실태

불황의 深度는 깊고 넓었다。불황과 인플레가 동시에 엄습한 지난 80년중 한국의 기업은 인플레景氣를 만끽하면서 매출액은크게 늘어났으나 부채의 증가, 수익성및 각종재무구조의 악화등 기업의 경영상태는 크게 나빠졌다。특히 많은 재벌그룹들이 큰 폭의 적자를 내어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계열기업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재벌의 實勢를 측정하는 척도로서는 여러가지 지표가 이용될수있으나 가장널리사용되고있는것은 賣出額기준。매상고로본 재벌랭킹은 現代그룹이 3조2천6백21억원으로 70년대중반 三星그룹을 앞지른이래 재계랭킹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다음은 럭키 2조9천7백9억원, 三星2조9천50억원, 鮮京2조6천6백92억원등이 바짝뒤를 쫓고있다。

그러나 재벌의 랭킹을정하는데는 다소 가감해야할 사항이 있다。럭키그룹의 경우 湖南精油에대한 주식지분은 25%에 불과하지만 럭키측은 湖油의 한국측대표 주주로 군림하면서 각종금융편의를 보고 이를계열기업에 포함시키고있는데 만일 칼텍스측이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하고있는 연간매출액 1조5천6백30억원규모의 湖南精油를 럭키그룹과 별도취급한다면 럭키의 순매출액은 1조4천79억원으로 現代·三星·大宇에 이어 랭킹 4위로 처지게된다。

鮮京도 역시 마찬가지。지난연말 인수한 매출액1조8천1백6억원규모의油公을 80년그룹매출액에서 공제하면 그룹자체의 매출액은 8천5백82억원으로 재계랭킹 9위로떨어진다。

現代, 럭키, 三星, 鮮京에이어 大宇가 1조6천1백32억원, 雙龍 1조3천2백26억원, 曉星 1조1천9백17억원으로 이들은 1조원그룹을 이루면서 財界정상을 달리고 있다。이어 國際商事(9천1백99억원) 韓進(8천9백38억원) 大林産業(7천8백61억원) 韓國火藥(7천3백47억원)등이 후속주자로 달리고있는데 연간매상고가 10억달러(7천억원)가 넘는 세계적인 빅·비즈니스는 11개그룹을 헤아린다。

50대재벌은 연간매출액이 대개 1천여억원을넘는다。본사가 선정한 50대재벌은 43개그룹이 1천억원대를넘고 7개그룹이 1천억원미만인데 永豊, 三都物産, 韓國合板, 全紡, 韓一시멘트, 韓國유리, 海成産業 등 7개그룹은 업종별안배, 창업역사, 조직의짜임새, 지명도등 매출액이외의 기준에따라 선정되었다。그러니까 재벌행세를하려면 연간 매상고가 1천억원은 넘어야한다。

50대재벌의 총매출액은 28조2천26억원。80년중 우리나라의 GNP 35조3백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물론 매출액의 합계에는 이른바 2重계산된 부분이 포함되어있어 GNP계산방식에 따른 매출액의 합계(순계)는 훨씬 적어지겠지만 대재벌의 국민경제상의 지위가 막중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안된다。한편 능률협회가 조사한 우리나라 5백대기업의 80년중 매출액 총액은 29조2천8백억원。대기업의대부분이 재벌계열기업에 포함되어있음을 쉽게 알수있다。

재벌의 규모를 측정하는 총자산은 現代그룹이 2조9천8백40억원으로 역시 한국최대재벌의 면모를 과시했으며 다음은三星(2조1백20억원)大宇(1조7천7백억원) 럭키(1조7천3백96억원) 鮮京(1조5천12억원) 曉星(1조5백15억원) 韓進(1조3백75억원) 雙龍(9천7백57억원) 大林(8천3백11억원) 國際商事(6천8백27억원) 韓國火藥(5천6백15억원) 롯데(5천2백53억원) 東亞건설(5천2백43억원) 순으로 되어있다。자산규모면에서도 50대재벌에끼는 비즈니스그룹은 대개1천억대가 넘는 대재산가들。

매출액과 자산을 종합해서본 한국10대재벌은 現代·三星·럭키·大宇·鮮京·雙龍·曉星·韓進·國際商事·大林産業등。美國에 내놓아도 2백대기업랭킹에 낄만한 빅·비즈니스로 성장했다。

한편 20대그룹의 총자산규모는 24조4천6백77억원。평균자산규모는 5천억원을 헤아린다。우리나라國富통계가없어 비교할수없는게 유감이지만 재벌의 실력이 엄청난 규모임에는 틀림없다。

재벌은 동시에 많은負債를 짊어지고 있다。50대재벌의 총부채는 20조6천6백6억원。그룹당 4천억원이상의 빚을 안고있는셈이다。

그룹별로는 역시 자산많은 現代가 2조3천4백40억원으로 가장많은 빚을안고있으며 三星(1조7천3백67억원) 럭키(1조4천7백41억원) 大宇(1조4천1백76억원) 鮮京(1조4천3백48억원) 韓進(9천6백9억원) 曉星(9천4백21억원) 雙龍(8천1백59억원) 大林産業(6천3백57억원) 國際商事(5천9백64억원) 등 자산규모에 비례해서 부채도 많다。재벌의 문패를 내건 비즈니스그룹은 대개 1천억원이상의 부채를 짊어지고있다。

역시『빚더미위에 세워진 재벌』이라는 일반의 통념을 계수적으로 입증해주고있다。

재벌의 진짜실력을 나타내는것은 자기자본이다。자기자본은 기업의 소유자가 출자한자본(자본금) 기업내부에서 적립된 자본(재평가적립금과 경영활동결과 발생한 이익)으로 구성된다。자기자본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수 기업자금。자기자본규모는 현대가 6천3백99억원으로 가장많고 大宇 3천5백69억원, 三星 2천8백19억원, 럭키 2천6백55억원의 순으로 되어있으며 이밖에 雙龍, 曉星, 大林, 東亞건설, 롯데, 韓山등 10대재벌이 1천억원이상의 자기자본을 갖고있다。

이에대해 몇개그룹은 자산보다 부채가 더많아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로나타났거나 빚을갚고나면 자기돈은 한푼도 없는셈인 재벌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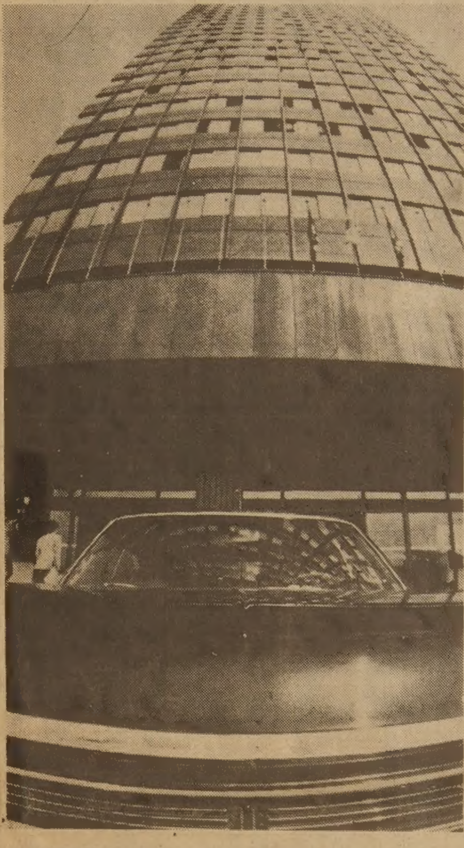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경우 만일 이시점에서 계열기업을 한꺼번에 처분한다면 모자란분만큼 웃돈을 얹어주어야 팔린다(영업권을 도외시할경우)。그렇지않으면 누가 빚만남은 회사를 인수하겠는가。

기업의 경영실적이 이처럼 나빠진것은 지난해동안 불황으로 입은 상처가 너무 깊었기때문。확실히 80년은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보면 최악의凶作이었다。대다수의 기업이 적자를 숨기기위해 분식결산을 서슴지않았지만 50대재벌그룹중 무려24개그룹이 그룹전체로 적자를 냈다。만일 정상결산을 한다면 적자기업은 훨씬 많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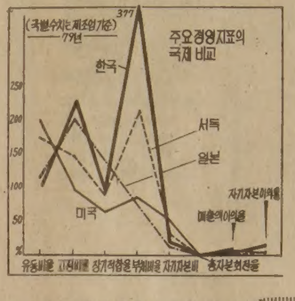
80년중 가장많은 이익을 낸 비즈니스그룹은 現代의 4백18억원, 東亞건설(3백29억원) 大林(2백21억원) 럭키(1백83억원) 韓山(1백40억원) 漢陽주택(1백38억원) 三煥企業(1백20억원) 大宇(1백2억원) 國際(1백27억원) 등 7개그룹이 1백억원이상의 흑자를냈다。50대비즈니스그룹중 건설업이 주력을 이루는 그룹이 6개인데 이중 5개그룹이 1백억원이상의 흑자를내어 건설업의호황을반영해준다。

건설업이 흑자기업의 주종을 이룬데 대해 重化學관련기업은 赤字기업의 대종을 이루었다。지난 77~78년의 호황을타고 러시를 이루었던 중화학투자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준공단계에 이르렀으나 가동과 동시에 불황이 엄습하여 중화학관련기업의 경영수지는 극도로 악화되었다。赤字재벌그룹의 리스트에는 三星, 鮮京, 롯데, 韓進, 韓國生糸, 雙龍, 韓國火藥, 忠紡, 코오롱, 기아산업, 大農, 三美社, 大韓電線, 東國製鋼, 遣公, 泰和, 韓國合板, 盛昌企業등 명문기업이 다수포함되어있는데 상당수는 重化學에대한 투자가 화근이 됐다。

例컨대 전실경영의 대명사로 이해되고있는 三星그룹이 많은 赤字를 낸것은 重工業·造船·石油化學등 3대핵심중화학관련기업의적자폭이 너무컸기때문。또 鮮京은 油公, 韓進은 韓國特殊鋼, 三美社는 三美特殊鋼의 과다한 적자때문에 적자재벌의 불명예를 감수해야했다。【朴炳潤기자】



◇까마득하게 높이올려다보이는 富의城을 쌓아올리고 그꼭대기에 올라앉아있는 財閥들。이들은 군림하는지배자인가 아니면 단순한 돈의포로 요일의노예에불과한것일까。



作業경위

賣出額중심 總資産·知名度등 감안 50개 선정

각기업체 80년말財務諸表수집 分析

系列社97%커버…業體따라 약간誤差

본사가 선정한 韓國의 50大財閥은 경제학적정의를 참작하면서 産業別로 해당부분에 지배력을 행사하고있는 계열기업군을 망라했다。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백16개계열기업군중 50개재벌그룹을 선정했다。선정방법은 系列企業群의 賣出額을 중심으로하되 총자산, 그룹의 역사및전통, 업종별분포, 경영조직의 짜임새, 계열기업군의 구성, 지명도등을 감안하여 50대재벌을 선정했다。

그때문에 매출액이나 자산등 규모면에서보면 당연히 50대재벌에 들어가야할 일부건설업체가 빠진대신 모든 업종의 대표주자들이 골고루 망라되었다。全紡, 韓國유리, 海成産業그룹이 포함된것은 역사와 지명도가 크게 작용했기때문이다。

자료의 수집은 본사경제부 취재진을 총동원하여 2개월여에 걸쳐 50대재벌의 계열기업 5백34개업체의 80년말현재의 공표재무제표(貸借對照表)를 수집하여 (일부는 79년말실적 참조) 三逸會計法人(대표 徐廷植)이 20여일에 걸쳐 수집된자료를 집계분석하고 그결과를 본사가 다시 10여일에 걸쳐 재정리 했다。자료의 수집에서 최종분석이 나오기까지 3개월여의 작업과정이었다。

재벌그룹별 계열기업은 당해기업의 原籍을 중심으로 소속을 결정했다。그때문에 現代, 曉星, 錦湖등일부 그룹은 분가했거나 비계열화한 기업이 포함되었다。일반의 인식에 충실하기위해서였다。또 일부 재벌그룹에서는 사용목적에 따라 계열기업수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하기때문에 원적중심의 그루핑이 불가피했다。

이렇게해서 수집된 자료의 범위는 50대재벌그룹산하 5백34개업체。기업수로 보면 총계열기업의 92%를, 웨이트로 따지면 97%를 커버했다。

또 수집된자료는 모두공표재무제표(대차대조표및 손익계산서의 일부항목)를 기준으로 했다。일부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한 자료를 수집할수 있었지만 수집된 자료의 통일성을 기하고 같은 기준에 따라 비교분석을 해야했기때문에 공표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할수밖에 없었다。물론 공표대차대조표에는 당해기업의 자의성이 포함될 가능성이있고 자산재평가의 유무, 분식결산등의 이유로 기업의 실세와 얼마간 오차가 있을수있다。그러나 통계에는 항상 얼마간의 오차가 인정될수있고 기업의 공표재무제표는 항상 진실성 공개성등이 문제되고 있기때문에 이런점을 감안하면 『50대재벌의 80년도 경영분석』은 실세를가장近似하게반영한것으로자부한다。

한편 그룹별 경영실태및 재무구조는 공표 대차대조표를 종합하여 총합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이것을 분석정리했다。만일 연결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면 재무구조는 훨씬 나빠질것이 틀림없다。일부재벌그룹은 子회사 혹은 계열기업에대한 출자금을 은행대출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많다。이경우 계열기업에 출자한 자본금은 자기자본이 아니라 빚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또 분식결산을 통해이익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을 과소책정하는 경우가있다。예컨대 지난 80년중 중화학기업은 대부분 많은적자를 냈으나 분식결산을통해 손실을 과소계상했고 綜合商社는 海外現地法人의 손실을 반영하지않고있다。

이를테면 9개종합상사의 66개에 달하는 해외현지법인은 11억달러에 달하는 부실현지금융과 10억달러가 넘는 부실재고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들을 母企業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않고있다。만일 해외부실재고및현지금융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4~5천억원의 결손이 불가피하다。이에대해 9개종합상사의 자기자본총액은 고작 1천9백60억원。母기업은 말할것도 없고 계열기업의 자기자본을 몽땅털어넣어도 감당할수없는 경우도있다。

전문가들은 종합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50대재벌의 평균자기자본비율은 15%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결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면 자기자본비율은 5%내외에 불과할것이라고 분석하고있다。實勢와 公表値와의 차이는 신용재벌일수록 크고 역사가 있는 재벌일수록 작다。

財務諸表 보는법

流動比率 대개 200%이상돼야

負債比率 100%이하라야 良好

賣出利率 비율 높을수록 좋아

企業의 내용은 경영분석이나 재무분석을 통해 알수있게된다。경영분석이란 대차대조 손익계산서등의 재무諸表나 원가보고서를 분석, 검토하여 기업의 財政상태와 경영성과의 適否상황을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수단이자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영 또는재무분석을 하는 목적은 기업의 實態(內容과 利益획득력)을 검토하여 기업의 유지및 발전을 꾀하는데 있다。통상 기업의 재정상태를 알기위해서는 기업재무의 유동성과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파악한다。利益을 낼수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收益性을 파악해봐야 하는 것이다。기업의 안정성,수익성,성장성등을 알아볼수있는 주요비율을 간추려 본다。

◀流動比率=유동자산과 유동부채와의관계를표시해주는 비율。유동부채 1백에대해 유동자산이 몇배또는 몇%가 되는가를나타내는 비율로 기업의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비율이다。이비율은 2백%이상이어야한다고 믿고있으나 이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負債比率=기업들이부채를 자기자본으로 어느정도 충당할수 있는가, 또는 부채가 자기자본의 몇%정도되는가를표시함으로써채무의 보증한도를 나타낸다。1백%이하를 양호한 것으로 보고있다。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눠 1백을 곱한것이 부채비율이다。

◀固定比率=기업이 소유하는 固定자산이 어느정도 자기자본에의해 조달되었는가를 보여준다。固定長期적합률은 고정자산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할수 없는 경우에 자기자본과 비교적 안정도가높은 장기부채에의해 어느정도 충당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1백%이하를 이상으로 보고있다。고정비율 역시 표준비율은 1백%이하인데 고정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백분비한 것이 고정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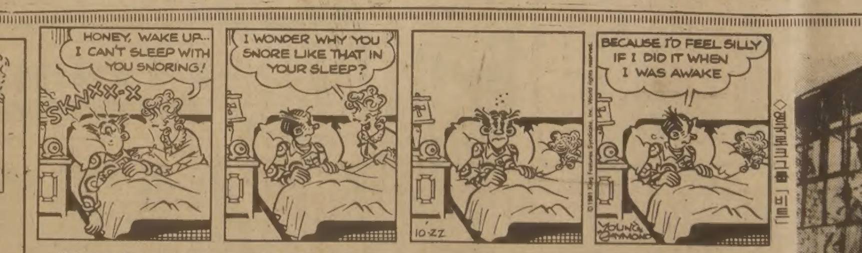
◀자기자본이익률=自己資本에 비해 稅後순이익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이때 자기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을 포함하나 순이익은 제외한다。기업들이 투하한 자본에 비해 얼마의 利益을 올렸는지 즉企業의 收益力을 나타낸다。

◀매출액이익률=기업이 일정기간동안 영업활동을 하여 올린 매출액과 거기서 발생하는 利益과를 비교하는 비율。매출액 이익률이 몇%이상이어야 한다는 절대평가는 있을수없으며 同一업종 또는 해당기업의 과거기간과 비교해收益性을측정해본것이무방하다。이 비율은 높을수록 좋다。

◀總資本回轉率=1년간에 매출액이 총자본의 몇배였는가를 나타낸다。즉 총자본의 利用度 총자본의 회전상 활동능률을 종합적으로 표시해준다。이 비율은 높을수록 양호하여 기업간경쟁이 치열한 경우에는 기업수익성향상을 위해 이 비율을 높여야한다。【乾】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여보, 일어나요…당신이 코고는 바람에 잠을 잘수가 없잖아요?"
크르르륵…
"아니 자면서 왜 그렇게 코를 골죠?"
"깨 있으면서 코를골면 멍청하게 여겨질테니까 그러지"

◇영국로크그룹「비트」

팝토픽

美 맹인가수「밀샙」 재기로 다시頂上에

★…『다시 태어난것같다』 미국의 맹인가수 로니·밀샙은 재기의 기쁨을 이렇게 털어 놓았다。

얼마전 새로 내놓은 싱글레코드「There's no gettin' over me」가 인기를 타고 오르면서 77년이래 빠져들었던 슬럼프에서 벗어나 재기의 발돋움을 하고있는것이다。그해 밀샙은「그해의 엔터테이너」로 선정되는등 정상의 가수위치를 굳혀왔었다。

밀샙의 노래는 컨트리뮤직 스타일이나 전자기타를 사용하는것이 특색。그는 태어날때부터 맹인이었으나 가수로데뷔하면서 재능이 피어났다。

무대위에서 정열적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눈이 보이지않아 마이크의 줄을 끊거나 넘어지는등의 실수를 자주범한다。따라서 그는 무대공연을「모험」이라고한다。

그의 음악산실은 내시빌의 스튜디오。그 스튜디오엔 48트랙에 컴퓨터가 장치되어있다고。

비트 社會告發노래 젊은팬들에게 人氣

◇맹인가수 로니·밀샙

★…「영국의 목소리」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로크 그룹「비트」는 사회고발적인 내용을 담은노래를 불러 젊은팬들사이에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고。

60년대중반 미국가수·보브·딜런이 그의 음악속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담아 화제를 모았었는데 6년전부터는 이같은 풍조가 영국으로 건너가「비트」에도 영향을 미친듯。

「비트」는 20~56살의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된 多民族그룹으로 노래로서 영국의 정치가들을 신랄하게 공격하고있는데 오늘날의 영국문제를 대중음악속에 융화시켜 성공을 거둔 그룹으로 평가받고있다。

「비트」가 부른 노래중 「목욕탕의 거울」에서는 비정없는 젊은이들을 날카롭게 비꼬았으며 스모키·로빈슨의「광대의 눈물」을 리바이벌하여 히트하기도 했다。

벡커 프렌차이스 협회 정기총회 공고

현회장단이 단결과 승리를 표어로 걸고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함께 출범한지도 2년의 세월이 흘렀읍니다.

생각하면 여러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고 흉겨 웠던때도 많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회원 제위께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앞두고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현회장단은 협회정관을 엄중히 준수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시련기가 될지도 모르는 앞으로 2년동안의 새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하여 정기총회 일자를 확정하고 모든 준비를 서두르고 있읍니다.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하면 따라 간다는 식의 비 적극적인 생각이나),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되겠지)하는 아니란 생각이 남아 있다면 계약갱신이나 프렌차이스 휘는 본사의 임의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본사는 우리들의 그 약점을 노리며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는 다시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철석같은 단결을 보여주십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권익과 생존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장　소 : 900 YORK MILLS RD. (프린스호텔)

때　: 1981년 11월 13일 금요일 오후1시

회　비 : $15　(1인당 식사비)

벡커 프렌차이스 협회장 김 병 진

한국일보 (특집판)

한국50大財閥을 벗긴다

富의城

負債 千%초과社 12

「남의돈」 끌어들이는 일에 급급

財務구조

①『負債도 資産이다』 복식부기원리에 의하면 빚을 끌어다 사업을 벌여도 한편(貸邊)에는 부채가 늘어나지만 다른 한편(借邊)에서는 자산이 늘어난다. 負債가 늘어나도 기업의 규모는 확대된다. 그때문에 기업가들은 빚을 끌어다 기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다. 비록 負債로 사업을 벌이더라도 인플레가 빚을 갚아준다. 또 국민경제가 급성장하면 負債의 부담은 그만큼 가벼워진다. 그때문에 심한경우에는 銀行돈 끌어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없지않다.

②80년말현재 50대재벌의 재무구조를보면 이같은 사회적병리가 어렵잖이나마 손에 잡히는듯 싶어진다. 무엇보다 자기돈이 없다. 문제는 화려하지만 살림살이는 모두 빚으로 마련한 것. 그나마 80년의 불황으로 많은 기업이 자기자본을 크게 잠식해 버렸다.

③50대재벌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겨우 15%남짓. 단순평균으로는 14·94%, 가중 평균으로는 15·5%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표준비율 30%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24개 그룹은 15%미만이고 15개 그룹은 10%미만, 4개그룹은 자기자본을 몽땅 까먹었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밖에 롯데, 韓一合纖, 東亞建設, 太平洋化學, 韓一시멘트, 三煥企業, 東部그룹등이 25%가 넘는 안정된 수준.

④국내다른기업이나 국제비교를 해보아도 재벌계열기업의 자기자본은 빈약하기짝이 없다. 79년중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의 平均자기자본 비율은 21·0%, 美國의 제조업 평균 비율 53·0%, 西獨의 32·0%는 말할것도없고 日本의 18·3% 보다도 낮다. 日本과 대비해보면 큰차이가 없는듯싶지만 日本의경우 자기자본비율은 낮지만 금리수준이 우리의 절반에도 못되기때문에 금리부담이 가볍고 경쟁력도 그만큼 차이가 난다.

⑤자기자본비율과 대칭적인 관계에 있는 부채비율을 보아도 재벌계기업의재무구조는 위험수위에 와있다. 부채비율은 기업자본구성의 안전도를 표시하는 비율. 자기자본은 타인자본(부채)의 담보가 되는데 그러려면 양자가 동등하거나 자기자본이 타인자본보다 많아야한다. 회계학에서는 1백%이하를 표준부채비율로 보고있다.

우리나라 50대재벌의 평균부채비율(加重値)은 표준비율의 5배가 넘는5배24%.

우리나라제조업 평균치(79년) 377·1%보다 훨씬 높다. 또 50개재벌중 표준비율을 충족시키고 있는 재벌은 1개도없다. 泰光産業, 朝陽商船, 起亞産業, 鮮京, 韓進, 大農, 三都物産, 韓洋, 韓國火藥, 泰和, 韓國生糸, 盛昌企業등은 부채비율이 1000%가 넘는다. 기업의 측면에서보면 경영이 불안하고 기업가적측면에서보면 자금조달이 기업경영의 가장 주요한 업무가되어버렸다. 확실히 재벌그룹의 오너는 남의돈 끌어들이는데는 천재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다.

재벌그룹의 재무구조가 나쁘기로는 유동비율·고정비율·고정장기적합률등을 보아도 여실히 나타난다.

流動비율은 유동자산에 대한 유동부채의 비율. 유동부채는 1년이내에 이행되어야할 지급의무이고 유동자산은 1년이내에 현금화되어서 지급수단이 될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지급능력 또는 유동성이 좋은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은행이 대출할 때 대부받는 기업의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 검증수단으로 사용되어왔기때문에 은행가비율이라고도 한다.

기업을 청산할경우 유동자산은 장부가액의 2분의1이상을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유동비율은 2백%이상을 이상적인 수준으로 본다.

한국의 재벌은 모두가 예외없이 고정비율이 높다. 회계원칙이 요구하는 1백%이하는 하나도 없고 東亞건설 三養社 太平洋化學 東洋化學 海成産業 三煥企業 永豊 東部 벽산등 9개그룹이 2백%이하.나머지 41개는 2백%를 웃돌고있다. 개중에는 1천%가 넘은 그룹도 있는데 이런재벌은 아무래도 정상적인눈으로 볼수가 없을성싶다.

왜냐하면 고정비율이 높아진것은 과다한 시설투자뿐아니라 부동산투자가 많아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 이를테면 빚얻어 부동산에 투자해도 고정비율은 높아진다.

우리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고있는 부동산투자를 몽땅 치부공식이 재벌계열기업의 대차대조표에 그대로 나타나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있다. 고정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것이 가장 바람직한자본운영이라 하겠으나 실제로 거액의 설비투자를 필요로하는 특수업종(중화학 또는 기간산업)의 경우는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을 자기자본에 의존한다는것은 사실상 어려운일이며 이원칙이 지나치게강조되면 기업의 설립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족한자금은 일부 타인자본 (부채)에 의해 충당할수도있는데 이경우라도 투자설비를위한 타인자본만은 비교적 안정성이 큰 장기부채라야한다. 이것을 고정장기적합률이라한다. 즉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장기자본(자기자본+고정부채)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이비율은 1백%이하를 표준비율로보고있다.

총자본회전율은 총자본이 1년동안 몇번회전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므로 기업이 투하한 총자본의 운용능률을 총괄적으로나타내는 지표라 할수있다. 이비율이 높으면 외상매출금·재고자산등의 회전율도 역시 높은것이 보통이다. 반대로 이비율이 낮은경우에는 유휴설비 또는 불건전한 영업외자산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이익의 증대를 위해서는 총자본회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총자본 회전율은 어느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확실한기준이 없으나 가급적 높은것이 소망스럽다.

80년중 50대재벌의 매출액이익률은 0·65%. 79년중 우리나라제조업의 2·7%, 美國의 5·29%, 日本의 3·0%, 西獨의 0·95%보다 훨씬낮다. 그만큼 어렵게 장사를했다. 뿐만아니라 자기자본이익률도 매우낮다.

일속에 파묻힌 財閥總帥의 24時

金宇中 大宇그룹會長의 경우

돈 많은 재벌들은 한가하고 여유가 있으며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生活이 곧 그리 희생될 만큼 바쁘고 고통스러운 하루 하루를 보낸다는 말도 있지만 바빠봐야 얼마나 바쁘겠으며 머리 아프다는것이 서민들의 生活苦와 비교가 되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것 같다. 李秉喆회장이나 金宇中회장 鄭周永회장같은 정상급 재벌들은 그 하루생활이 과연 어떤 것일까. 金宇中회장의 하루 생활을 記者가 직접 現場取材해서 재벌의 생활의 한 단면을 벗겨본다.

子正지나 잠들어 5시半 정확한 起床

조깅후 朝刊…점심은 비빔밥 3分만에

24일 새벽 5시30분. 정해진 기상시간에 눈을 뜬 金宇中씨는 트레이닝복을걸치고곧바로 대문을 나선다. 방배동 자택에서 남부순환도로 큰길까지 왕복 3㎞를 15분정도 걸려 달린다.

이제막 밝아오기 시작하는 새벽길을 아무 생각없이 열심히 달리고나면 온몸이 땀에 흠뻑 젖고 맑고 상쾌한 새벽공기가 전신에 가득찬다. 건강을 생각해서 3년전부터 시작한 조깅은 한번도 빠뜨리지 않는 하루의 첫 일과다. 조깅과 샤워가 끝난 시간은 5시55분. 이때부터 6시45분까지 50분간 한국일보를 비롯한 조간신문들을 모조리 다 읽는다. 한시간 가량 신문을 정독하는 것도 두번째 일과로 고정돼있다.

6시50분. 보통때 같으면 가족들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는 시간이지만 오늘은 바이어와 약속이 있다.

집을 나선 金회장은 7시정각 新羅호텔에 도착, 미국의 석유회사인 C社의 C회장과 만나 조찬을 겸한 商談을 한다. (商談이 진행중이므로 實名을 피해달라는 金會長 요청으로 편의상 이니시얼만 표기한다) C회장과는 造船관계 상담을 위해 사흘전에 약속을 했다. 1시간에걸처 상담을 마친 金회장은 8시에 호텔을 떠나 회사로 출근한다. 회사에 도착한것은 8시15분. 차속에서의 15분간은 독특한 숙면법으로 깜박 잠을 자고있다.

8시 정각에 열리기로 예정됐던 理事會는 C회장과의 상담이 길어지는바람에 15분 늦게 시작 됐다. 1주일에 한번씩 열리는 이사회는 金회장이 경영실적을 점검, 평가하고 새로운 지침을 시달하며 경영진들로 부터 보고와 건의를듣는 시간이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병원에서의체험을 예로 들어 임원들을 훈시하고 하청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지도를 지시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열린 사내 친선 축구대회에 선수로 출전했다가 왼쪽 가운데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金회장은 이틀간 제일병원에 입원 했었다. 여기서 간호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느낀 점을 임원들에게 훈시한 것. 金회장이 병원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일을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가 끝난 것은 9시30분. 이때부터 내부결재가 시작 됐다. 해외출장자현황보고, 경비지출관계 결재, 섬유류대량수주보고등이 잇달아 이루어졌다.

10시 15분, 결재를 끝내고 회사를 나섰다. 한성실업金회장과의약속때문이다. 11시정각에는약속된同窓金寶寅씨와의면담때문에회사로돌아왔다. 면담은 12시까지 계속 됐다. 12시 정각 손님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점심을 시켜 먹었다. 메뉴는 비빔밥. 외부약속이나 손님이 없는 평상시에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함께 점심을 든다.

金회장은 대단한 速食家다. 이날 비빔밥 한그릇을 먹는데 정확하게 2분30초가 소요됐다. 웬만한 식사는 3~4분 또는 5~6분이면 끝나버린다고 주위사람들은 말한다.

12시30분부터는 기혼여사원 공채면접이 시작됐다. 崔銘杰부사장,李海範상무와 함께 25명을 5名1組 5개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면접에서 金회장은 호칭을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는가, 보너스는 목돈으로 받는게 좋은가, 다달이 조개 주는게 좋은가, 유니폼을 입겠는가, 안입겠는가, 희망하는 월급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등을 물었다. 관리직사원은 모두 金회장이 직접 면담한후 채용하는것이 大宇의인사원칙이다. 오후1시15분. 예정에 없던 손님이 찾아와 15분간 시간을 쪼개어만났다. 제일은행 姜전무였다. 손님이 간후 면접이 계속되다가 오후2시20분 정부고위인사를 만나기 위해 중앙청에 다녀왔다. 3시에 회사로 돌아와 면접이 다시 계속됐다.

오후4시 면접이 종료되고 海外주재임원들의 귀국보고가 시작됐다. 洪性夫부사장과 李德俊상무로부터 大宇의 해외건설현황을 보고받고 경영전략을 숙의했다.

오후 5시 洪寅基 대우조선사장으로부터 玉浦조선소 준공행사준비상황과 造船商談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협의했다.

오후6시 이탈리아의 건설회사인 S社의 S社長과 만나商談. 4시이후부터는 계속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고있다.

6시30분에는 바이어인 미국J社의 B회장과 면담, 수출상담을했다. B회장과는 저녁약속까지 돼있어 7시30분 함께 나갔다. 저녁을 한곳은 롯데호텔. 10시10분까지 만찬을겸한 商談이 계속됐다.

金宇中회장이 방배동집으로 돌아온것은 밤 10시30분. 마침 큰아이 선정(15세)이 자지않고있어 부인 鄭여사와 함께 잠시 집안일로 얘기꽃을 피운다.

밤11시. 석간신문을 모두갖고 서재로 들어가 빠뜨리지 않고 다 읽는다. 석간신문 읽는것도,조간신문 읽기와 마찬가지로 정해진일과다.

12시가 거의 다 됐을 무렵, 金회장은 마지막 일과를 시작했다. 메모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할일로 적어놓았던것 중에서 한일은 지우고 못한 일은 다시 정리해 둔다. 그리고 내일 해야할 일을 다시 메모한다. 메모를 정리하는 시간은 하루를 총정리 결산해보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다.

메모정리가 끝나면 金宇中회장의 하루도 끝난다. 취침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 【朴武기자】

우리나라 50大재벌그룹 80년도 경영분석

(賣出額順位) (단위 : 백만원)

순위	그룹명	매출액	유동 자산	고정 자산	자산 총계	유동 부채	고정 부채	부채 총계	자본금	당기순익	자본총계	유동비율(%)	고정비율(%)	고정장기적합률(%)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총자본회전율(회)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1	現代	3,262,100	1,665,658	1,318,363	2,984,021	1,520,186	823,853	2,344,039	267,765	41,892	639,982	109·57	206·00	90·06	366·27	21·45	1·09	1·28	6·55
2	럭키	2,970,900	1,128,518	611,132	1,739,650	1,223,955	250,191	1,474,146	144,303	18,342	265,504	92·20	230·18	118·51	555·23	15·26	1·71	△0·62	6·91
3	三星	2,905,000	1,119,255	892,802	2,012,057	947,935	770,985	1,730,760	197,715	△17,527	281,193	118	317	84·9	615	13·9	1·44	△0·60	△6·23
4	선경	2,669,287	1,154,616	346,604	1,501,220	1,210,210	224,627	1,434,837	131,890	△89,274	66,383	95·41	522·13	119·10	2,161·45	4·42	1·78	△3·34	△134·38
5	大宇	1,613,232	1,046,284	728,310	1,774,594	991,489	426,188	1,417,677	254,776	32,729	356,917	105·53	204·06	93·00	397·20	20·11	0·91	2·03	9·17
6	쌍용	1,322,600	263,459	712,316	975,783	251,313	564,682	815,997	79,657	△4,480	159,789	104·83	445·79	98·32	510·67	16·38	1·36	△0·34	△2·80
7	효성	1,191,724			1,051,520			942,110		2,231	109,410				861·08	10·4	1·13		
8	국제상사	919,955	476,060	206,698	682,758	482,216	114,193	596,409	49,944	12,011	86,349	98·72	239·38	103·07	690·70	12·65	1·34	0·19	2·04
9	한진	893,861	351,311	686,190	1,037,503	362,167	598,772	960,939	69,010	△23,479	76,763	97·00	893·91	101·58	1,251·83	7·40	0·86	△2·63	△30·56
10	大林産業	786,131	395,506	435,605	831,111	395,811	239,918	635,729	94,282	22,174	195,382	99·92	222·95	100·07	325·38	23·51	0·95	2·82	11·35
11	韓國火藥	734,785	373,531	188,053	561,584	370,958	140,703	511,661	39,374	△19,992	49,923	100·69	376·69	98·65	1,023·90	8·89	1·31	△2·72	△40·05
12	東亞건설	640,185	339,424	180,900	524,324	239,102	135,968	375,070	27,945	32,954	149,254	141·96	123·88	64·83	251·30	28·47	1·22	5·15	22·08
13	롯데	565,209	234,099	291,247	525,346	253,246	132,348	385,594	136,813	△7,757	139,752	92·44	208·40	107·04	275·91	26·60	1·07	△1·37	△5·6
14	코오롱	445,556	193,829	150,801	344,630	205,357	74,648	280,005	33,542	△1,549	64,625	94·4	233·3	108·3	433·3	18·7	1·29	△0·34	△2·40
15	錦湖	444,624	219,568	164,896	384,464	221,595	115,062	316,657	31,130	6,108	67,807	99·09	243·18	90·17	467·00	17·64	1·16	1·37	9·01
16	大韓電線	403,248	234,169	204,701	438,870	255,364	95,107	350,471	57,636	△2,220	88,399	91·70	231·56	111·55	396·46	20·14	0·92	△0·55	△2·51
17	삼미사	398,276	191,362	184,940	376,302	169,890	166,349	336,239	25,900	△5,749	40,063	112·64	461·62	89·0	839·28	10·65	1·06	△1·44	△14·35
18	斗山	385,382	396,492	243,629	640,121	384,431	150,764	535,195	43,434	14,027	104,926	103	232	95·3	510	16·4	0·60	3·6	13·3
19	동국제강	384,527	260,063	134,540	394,603	253,679	82,892	336,571	672,159	△2,571	58,032	102	232	95	580	14·7	0·97	△0·6	△4·4
20	한일합섬	383,733	165,697	194,081	389,578	105,140	164,068	308,508	35,179	3,420	89,170	157·60	214·29	76·22	297·24	25·17	0·94	1·01	3·78
21	기아	351,047	244,878	195,318	440,196	239,212	165,253	404,465	32,423		35,731	102·37	546·63	97·18	1,131·97	8·12	0·80		
22	한양주택	344,162	273,276	89,855	363,131	267,594	48,452	316,046	21,846	13,839	47,085	102·12	190·84	94·05	671·22	12·97	0·94	4·02	29·39
23	미원	260,834	102,058	91,142	193,200	107,465	40,279	147,744	28,548	250	45,456	94·97	200·51	106·31	325·03	23·53	1·35	0·10	0·55
24	해태	252,738	272,399	65,021	337,420	252,402	36,297	288,699	30,125	10,183	48,721	107·92	133·46	76·48	592·56	14·44	0·75	4·03	20·9
25	동양세멘트	229,800	83,221	112,410	195,631	81,221	81,186	162,407	19,043	1,738	33,224	102·46	338·34	98·25	488·82	16·98	1·17	0·76	5·23
26	대농	226,438	112,456	152,047	264,503	157,223	118,694	275,917	25,509	△8,319	△11,414	71·53		141·73			0·86	△3·67	
27	삼양사	219,529	104,576	77,463	182,039	107,725	45,225	152,950	17,948		29,089	97·08	266·30	104·24	525·80	15·98	1·21	0·62	4·45
28	삼환기업	214,070	147,738	74,285	222,023	125,128	39,004	164,133	19,413	12,757	59,094	118·1	125·7	75·7	277·7	26·6	0·96	5·2	21·6
29	태광산업	206,328	134,208	88,870	238,078	84,970	129,860	214,830	10,585	1,664	8,248	157·95	1,077·47	64·35	2,604·63	3·70	0·92	0·8	20·17
30	동부	203,230	123,608	68,602	192,210	108,955	34,884	143,839	22,291	7,413	48,371	113·45	141·82	82·40	297·37	25·17	1·06	3·65	15·33
31	忠紡	190,004	124,765	171,316	296,081	130,183	138,242	268,425	21,067	△2,143	27,656	95·84	619·45	103·27	970·59	9·34	0·64	△1·13	△7·75
32	조양상선	166,660	71,791	124,185	195,976	44,252	140,615	184,867	8,898	1,350	11,109	162·23	1,117·88	81·95	1,664·12	5·67	0·85	0·81	12·15
33	성창	161,091	65,056	54,440	110,505	100,396	23,275	123,671	12,260	△26,160	△4,166	64·81		284·89			1·35	△16·24	
34	삼호주택	161,051	124,659	60,176	184,835	147,212	19,222	166,434	17,600	△531	18,401	84·7	327	160	104	9·9	0·87	△0·33	△2·9
35	태화	161,000	81,094	64,842	145,936	89,809	47,217	137,026	12,800	△13,890	8,910	90·3	727·7	115·5	1,537·9	6·1	1·10	△8·6	△155·9
36	太平洋化學	149,093	88,715	48,444	137,159	71,158	16,904	98,062	15,245	5,387	39,097	124·67	123·91	73·40	250·82	28·50	1·09	3·61	13·78
37	한국생사	135,813	135,762	530,521	88,814	163,391	118,583	181,974	14,825	△4,061	6,840	83·09	775·61	208·68	2,660·44	3·62	0·72	△2·99	△59·37
38	벽산	133,000	85,144	39,547	124,691	84,385	17,711	102,096	18,510	742	22,595	100·90	175·03	98·12	451·85	18·12	1·07	0·56	3·28
39	진양	125,775			104,814				15,993			80·17	2,810·57	214·43	8,775·68	1·13	1·52	△7·66	△1032·33
40	진로	123,495	59,234	39,978	99,212	68,786	15,495	84,281	6,900	356	14,931	86·11	267·75	131·39	564·47	15·05	1·24	0·29	2·38
41	造公	116,578	89,313	93,677	182,990	70,844	86,080	156,924	13,955	△9,625	26,066	126·07	359·38	83·53	602·03	14·24	0·64	△8·26	△36·93
42	江原産業	107,560	76,229	79,956	156,185	70,908	52,161	123,069	14,062	401	33,116	107·50	241·44	93·76	371·63	21·20	0·69	0·37	1·21
43	동양화학	105,496	34,425	68,589	103,014	37,324	30,690	68,014	8,311	474	35,000	92·23	195·97	104·41	194·33	33·98	1·02	0·45	1·35
44	영풍	94,130	35,227	56,463	91,690	23,394	28,942	52,336	22,202	1,888	39,376	150·58	143·39	82·65	132·91	42·94	1·03	2·01	4·79
45	삼도물산	89,791	39,237	20,270	59,507	40,360	25,877	66,237	5,910	△13,741	△6,730	97·22	105·87				1·51	△15·30	
46	한국합판	89,293	32,686	43,420	76,106	40,257	25,677	65,934	12,950	△5,579	10,172	81·19	426·86	121·12	648·19	13·37	1·17	△6·25	△54·85
47	全紡	75,338	32,675	40,789	73,464	36,194	28,085	64,279	5,954	△762	9,185	90·28	444·08	109·44	699·83	12·51	1·03	△1·01	△8·30
48	한일시멘트	59,751	23,497	35,652	59,149	12,342	31,892	44,234	10,395	1,857	14,915	190·4	239·0	76·2	296·6	25·2	1·01	3·11	12·5
49	한국유리	51,011	26,094	84,926	121,020	28,866	64,538	93,404	15,000	△547	27,616	90·4	307·5	92·2	338·2	22·8	0·42	△1·07	△1·98
50	해성산업	42,682	18,952	22,339	41,291	18,023	8,749	26,772	4,967	498	14,519	105·2	153·8	96	184·4	35·2	1·03	1·16	3·43

流星의 賦

<21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秋風何處至 ⑫

『연작(燕雀)이 어찌 대붕(大鵬)의 뜻을 알랴』

하고 호기를 부린 자는 지함두.

『무주산하(無主山河)가 득주인(得主人)이면 무의창생(無依蒼生)이 득환희(得歡喜)란』

고 뽑내어 보인 것은 변승부.

『혈맹동지회(血盟同志會)강개지유고(慷慨志猶高)』

라고 읊은 것은 반년령.

계남이 읊기론 말마다에 가시가 있고 소리마다에 뼈가 있었다.

그러다가 끝에 가선 모두들 소리를 합쳤다.

『성군(聖君)에 충(忠), 사직(社稷)에 성(誠), 충성!』

마지막 충성은 아우성이 되었다.

교묘한 사술이었다. 자기들 내부엔 기한바 있으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귀엔 임금에게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것처럼 들릴것이니 말이다.

연회가 파하자 계남의 일행에게 산마하나를 빌려주었다. 피로와 취기가 겹쳐 계남과 문정봉 배석환은 깊은 우물에 돌이 가라앉듯 잠에 빠져들었다.

그 이튿날 아침 계남이 잠을깨 꾀나리봇짐에서 활을꺼내 시울을 죄었다. 일인(日人) 글강광의 숙소에 경고의 화살을 쏴넣은 그 활이다.

『오늘 한번 비구어 보시렵니까』

활을 다루고있는 계남의 옆으로 와서 문정봉이 말했다.

『사수(射手)로서 어젯밤 후대를 받았는데 가만있을수가 있는가』

하고 단단히 죄어진 시울에 화살을 갖다대어 겨누어 본곤 다시 시울을풀며 회심의 웃음을 웃었다. 궁술엔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더벅머리 총각이 나타나서

『선생님께서 아침진지를 자시러 오시랍니다』

고 했다.

계남이 수원을 데리고 여립이 기다리고 있는 막사로 갔다.

『해장을 하셔야죠』

하고 산채국 사발과 함께 대배에 술을 따랐다. 그러면서도

『승부에 사담이 있을것 같으면 드시지 않아도 좋소이다』

하는 말을 보탰다.

『조주 3, 4배가 승부에 유관하다면 그런 궁술은 하나마나지요』

하고 계남이 거리낌 없이 대배를 단숨에 비웠다.

『실로 장부의 호기요』

여립이 다시 계남의 잔에 술을 가득 채웠다. 그것도 계남이 사양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마디 했다.

『어젯밤 보고 들은바, 임금님께 대한 충성이 지극하심을 알았소이다. 그러한 충성엔 도저히 소생과같은 졸부로선 아득히 미치지 못할까 합니다. 어떻게 목불인견(目不忍見)한 꼴을 보고서도 이불인문(耳不忍聞)한 양을 들으면서도 변치않는 마음, 실로지성지인(至誠之人)으로 보았소이다』

여립의 얼굴에 애매한 웃음이 있었다.

그러나

『여공가론(與公可論)으로 알았소. 사궁(射弓)이 끝난뒤에 또 만납시다』

할뿐 더 이상 말하진 않았다.

아침밥을 해장을 겸하여 먹고나니 해는 이미 중천에 가까와 있었다.

『그럼 우리 시작해 봅시다』

하고 정여립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人文科學부문에 金玉根교수

釜山市 文化賞 시상식 거행

【釜山=聯】 제24회 釜山市문화상시상식이 20일상오10시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金武然시장을 비롯해 문화계인사, 심사위원, 역대문화상수상자·시민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수상자는 ▲인문과학부문에 金玉根(釜山산업대교수) ▲자연과학부문 金熙鏞(東亞공대교수) ▲문화부문 張秉植(국제상사 부속병원장) ▲체육부문 金實元(釜山市축구협회전무이사) ▲지역사회계발부문 鄭漢祥씨(부산일보이사겸편집국장) 등5명으로 이들은 상패와부상으로 상금1백50만원씩을받았다.

佛 레비·스트로스 慶州 박물관들러

【慶州=聯】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초청으로 방한중인 프랑스대학 레비·스트로스교수는 20일하오 국내외학자 17명과 함께 국립慶州박물관을 방문, 강우방학예연구실장의 안내로 진열품을 관람했다. 레비·스트로스교수는 국보제29호 聖德大王 신종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종의 두께와 조각등을 만져보고 섬세한 조각솜씨에 감탄을연발했다.

인 사 말 씀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모시고 성장해온 본 아리랑식당이 그 동안 여러분께 불편을 드렸던 주차장문제를 해결 하였읍니다.

그간 코리아타운 번영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본 식당 뒷쪽에 58대분의 주차장이 마련 되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아울러 몇가지 메뉴를 추가하였아오니 배전의 애용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하우스

요리부

중화요리
탕수육
탕수어
탕수새우
라조기
깐풍기
팔보채
해삼탕
양장피
전복요리
란자완스

한국요리
잡채
고추잡채
낚지볶음
오징어볶음
게요리
소고기튀김
돼지고기튀김
새우튀김
생두부
전복회
민어회

식사부

한식
갈비정식
불고기정식
조기매운탕
순두부백반
된장찌개
김치찌개
곱창정골
육개장
갈비탕
만두국
떡국
비빔밥
함흥냉면
비빔냉면
평양냉면

중국식사
짜장면
짬뽕
간짜면
삼선짬뽕
삼선짜장
삼선간짜장
울면
삼선울면
우동
삼선우동
군만두
짜장밥
잡채밥
잡탕밥
소고기볶음밥
돼지고기볶음밥
새우볶음밥
야채볶음밥
닭고기볶음밥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716 BLOOR ST.W. TEL : 532-2727

한국대표、單複式완패

金榮煥、金春浩、周昌男·金奉洙組 역부족

해테盃 프로테니스 親善戰

해태盃국제프로테니스대회 첫날 경기인 국내대표선수와 외국프로선수들간의 친선경기가 21일 잠실실내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美國의 T·걸리슨(세계랭킹44위)과 V·아마야(랭킹40위)—B·스캔론(35위)조는 金榮煥(대우중공업)과 周昌男(대우중공업)—金奉洙(울산공대)조를 각각 2—0으로 완파했다.

1천여명의 테니스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美國에서 새로 도입한 슈프림 코트위에서 벌어진 첫 단식에서 먼저 서브권을 잡은 金榮煥은 안정된 스트로크로 첫게임을 따냈다. 그러나 포핸드 롱스핀을 주무기로하는 걸리슨은 둘째 게임부터 절묘한 네트플레이와 상대방의 빈 곳을 찌르는 강스매싱으로 게임의 주도권을 잡아 3—1로 역전시켰다.

추격에 나선 金은 백핸드 슬라이스와 강한 스트로크로 3—3, 동점을 만드는데 성공했으나 역부족으로 첫세트를 6—3으로 내주고, 둘째 세트에서도 여유있는 걸리슨에 6—4로 무릎을 꿇었다.

이어열린 복식경기에서 金榮大 대신 나온 노장 周昌男과 신예 金奉洙는 호흡이 맞는 콤비플레이로 첫세트초반에 2게임을 따내 앞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외국선수중 2m1、102kg의 거인인 V·아마야와 B·스캔론은 강한 서비스와 발리로 추격에 나서 6—3으로 첫 세트를 끝냈다.

둘째세트에서도 周—金조는 듀스를 거듭하는 열전을 벌인끝에 5—3까지 추격했으나 아마야·스캔론의 강공에 밀려 6—3으로 패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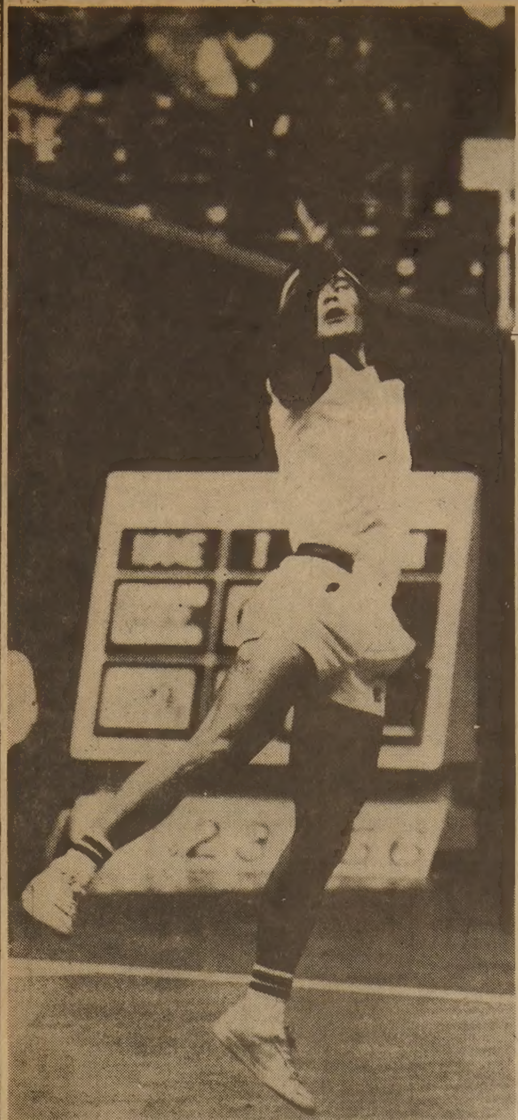
한편 세계 최연소 프로선수인 미국의 지미·아리아스(17)는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金春浩(명지대)를 6—1、6—2로 대파, 프로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출전하고 20일밤 귀국한 金春浩는 그동안 너무 무리했던 탓인지 오른발을 약간절면서 출전했으나 첫세트에서 J·아리아스의 좋은서브와 그라운드·스트로크에 눌려 한게임밖에 따내지 못하고 6—1로 무릎을 꿇었다.

◇첫날전적

T·걸리슨 2 (6—3 6—4) 0 金榮煥

V·아마야 B·스캔론 2 (6—3 6—3) 0 周昌男 金奉洙

J·아리아스 2 (6—1 6—2) 0 金春浩



◇美걸리슨과의 친선경기서 大宇의金榮漢이 점프 백발리로 볼을쳐내고있다.

大學축구 리그

成均館·朝鮮大 8強戰 진출

成均館大와 朝鮮大가 제17회추계대학축구연맹전 8강 결승 대열에 올랐다. 成大는 21일 孝昌구장에서열린 대회 5일째 조별리그 최종3차전에서 게임종료4분전 林告石이 극적으로 결승골을기록, 忠北大를 1—0으로꺾고 2승1패로 C조2위로 8강에 진출했다.

朝鮮大—서울大경기는 승패를 떠나서 종료1분을 남기고 서울大가 2골을 터뜨려 3—3동점을 기록했다.

◇제5일 전적

▲C조

성균관대 1 (1—0 0—0) 0 충북대

중앙대 0—0 강원대

▲동순위=①중앙2승1무 ②성대 2승1패 ③강원1무2패 ④충북 1무2패 (3、4위 다득점차)

▲A조

조선대 3 (2—0 1—3) 3 서울대

亞洲 여성射擊

金메달 13개 따

제3회 아시아 여성및 청소년 사격대회(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 참가한 한국은 20일열린 최종일 경기서 4개의 金메달을 추가,모두14개종목에서13개의금메달을따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

한국은 최종일 소구경 스탠더드3자세 단체전서 1、652점으로 우승했고,개인전서도崔東實(지도단)이 555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스탠더드 권총 단체서 한국팀은 1、690점으로 우승했고 개인전서도 金惠英(지도단)이 571점으로 우승했다.

2위는 金메달 1개를 차지한 日本이, 3위는 銀메달 8개를 획득한 인도네시아가 차지했다.

國際유도大會 來14일 개막

【東京19日UPI=聯】국제유도선수권대회가 오는 11월14~15양일간 한국을 비롯한 세계 14개국에서 1백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가운데 도오꾜(東京)에서 개막된다고 대회조직위원회가 19일 발표했다.

韓國은 朴鍾學외에도 네덜란드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인 河亨柱·黃正五도 이번대회에 참가한다.

대진표는 11월12일에 확정된다고 日 유도협회측은 밝혔는데 참가국은 다음과같다.

韓國·日本·불가리아·캐나다·핀란드·英國·프랑스·東獨·헝가리·이탈리아·폴란드·체코·蘇聯·美國.

世界女子J排球

한국、中共꺾고 4強에

끈질긴 守備로 逆轉勝

한국청소년 여자배구팀은 21일(한국시간) 멕시코의푸에블라에서 벌어진 제2회세계여자주니어 배구선수권대회 준준결승리그 中共과의 첫경기서 3—2로 승리, 2승으로 남은 페루와의경기(22일상오7시20분·한국시간)에 관계없이 4강의 결선에 진출했다.

한국은 이날 金貞順·李恩敬(이상현대) 金允子·黃光善(태광산업) 朴美姬(광주여상) 崔貞淑(일신여상)등을 스타팅멤버로 내세워 눈부신 속공과 끈질긴 수비를 바탕으로 장신의 中共과 2시간40분간의 풀세트 접전을 벌인끝에 역전승 했다.

한국은 제1회대회(77년)에 준결승리그에서 中共에 3—1로 역전패당했으나 이번에 설욕전을 한셈이다. 中共은 제1회때 예선서 한국에 3—0으로 패한바있으나 불과 4년사이에 급성장, 한국의 2連霸에 가장위협적인 팀으로부각됐다.

4강이 겨루는 결승토너는 24일부터 장소를 멕시코시티로 옮겨 갖게된다.

◇준결승리그

▲B조2차전

한국 3 (15—9 15—8 9—15 12—15 15—?) 2 中共

한국·쿠바·蘇등 8國 참가

월드컵 女子排球 내달7일 開幕

제3회 월드컵국제여자배구대회가 오는11월7일부터 16일까지 한국을 비롯 2회 우승팀인 쿠바、日本、美國、中共、蘇聯、불가리아、브라질등 세계강호8개국이 참가한가운데 日本서 펼쳐진다.

풀리그로 우승을 가리게될 이번대회서 한국은 첫날인 7일 美國과 서전을 갖는데 경기는 도오꾜、오오사까등지를 순회하면서 16일까지 7차전으로 열린다.

여자대표팀은 현재 泰陵선수촌에서 마지막 합숙훈련을 펼치며 마지막기량완성에 힘쓰고있는데 협회는 세계주니어선수권에 참가중인 李恩敬을 포함 모두 13명을 오는10월3일 日本에 파견키로했다.

◇월드컵한국팀경기일정

▲1차전(11월7일·아께오)=對美國 ▲2차전(〃8일·도오꾜)=對日本 ▲3차전(〃10일·에베스)=對中共 ▲4차전(〃11일·이와미자와)=對蘇聯 ▲5차전(〃13일·고리야마)=對브라질 ▲6차전(〃15일·고오또)=對불가리아 ▲7차전(〃16일·오오사까)=對쿠바

釜山産業大學 野球팀 창단

【釜山=聯】釜山産業大學에 야구팀이 창단된다. 産業大는 내년2월 졸업할 釜山과 慶南의 5개교야구선수 19명과 朱性魯감독(釜山高감독)으로 구성, 오는30일하오3시 동교에서 창단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다.

내년 시즌부터 전국무대에 등장할産業大야구팀투수진은 내년도 慶南高를 졸업하는 辛在根·周仁煥을 비롯, 安性洙(馬山高) 車正柱(釜山商)등 4명으로 慶南高6명 釜山商 5명 馬山商高4명 慶南高와 馬山高 각2명이 스카우트 되었다.

◇야구부명단

▲부장=辛貴喆(학생처장) ▲주무=秦勝國(학생과장) ▲감독=朱性魯(前釜山高감독) ▲선수=辛在根 周仁煥 姜炯植 安辰雨 丁奎榮 林哲浩(이상 慶南高) 車正柱 鄭志洋 林相根 金萬柱 姜秀京(이상 釜山商) 劉載寅 尹英勳 安熙哲 李碩勳(이상 馬山商) 安柱洙 金五權(이상 馬山高) 河忠孝 李龍根(이상 慶南商)

2·百年만에 閑山歌 정리

統營郡, 7旬老人대상 6개월취합

【忠武=聯】慶南統營郡閑山島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던 閑山歌가 2백여년만에 정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21일 統營郡내무과장 高鋼桂씨(40)에 따르면 閑山面일대에서 내고장 전통가꾸기 사업을추진하면서 노인들에 의해 불려지고있는 閑山歌를 듣고 구전의 원문을 찾기위해 70이상 노인 7명을 대상으로 6개월동안 이들이 부분적으로 알고있는 閑山歌를 정리, 취합했다는것.

高과장은 이가사가 귀절이 끝날때마다 15개마을의 명칭이 붙여져있어 그당시 이곳 주민들의 향토애를 잘나타내고있다고 밝혔다.

가사의 한귀절을 보면 현재 閑山面頭億里는 이노래중 3째번 귀절로『일진병난이 났어 외적은 함몰되고 베어버린외적머리 부지기수 두억 리라』라고 돼있다.

西江女商 人文系로 校名도「西江」改名

【釜山=聯】부산시교위는20일 北區大渚1洞421 西江여자상업고교(교장 金道慶)을 인문계로 개편, 학교명을 西江여고로 바꾸고 82학년도에 인문계지망생만 모집토록했다.

교위의 이같은 결정은 金海편입지구를 포함해 35만의 주민이있는 北區관내에 인문계여고가없어 여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있다는 주민여론에 따른것이다.

부산시내 인문계여고는 13개교에서 14개교로 늘어났으며 여상은 18개교에서 17개교로 줄어들었다.

파튼 映畵주제곡「최우수 컨트리송」

★…코미디영화「9시에서 5시까지」에서 주연을 맡은 돌리·파튼이 부른 이 영화의 동명주제곡이 美방송음악회사가 선정한「최우수 컨트리송」으로 뽑혔다.

「9시에서 5시까지」는 여비서의 생활상을 뮤지컬로 코믹하게 엮은 영화.

女性短信

자원봉사자 모집

盲人들을 돕기위해 맹인전용의 한벗식당(남대문로5가365)을 운영하고 있는「한벗회」는 극빈 맹인들을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있다. 연락전화 ㉗5847.

주부클럽 젓갈바자

주부클럽은 20일~30일 신세계백화점 지하식품부에서 김장용젓갈바자를 실시한다. 문의전화 ㉘4227.

주부교실서도 28일

주부교실중앙회는 28일~12월5일 롯데쇼핑센터 지하식품부에서 여러가지 젓갈바자를 갖는다. 문의전화 ㉘3627.

생명의 말씀
CITY-TV : 채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채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나의 이력서 윤치영 ⑭

〈題字·尹致暎〉

毒舌에 맞선낮잠

감격의 9·28 서울收復을 직접내 눈으로 못보고 떠난 나는 미국에서 연합군의 平壤入城소식을 들었다. 정말인가 싶었다.

외신에 보도된 平壤에 진주한 국군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실감이 났다. 그뒤 10월말 李承晩 대통령이 平壤의 시민환영대회에서 연설하는 사진을 보았을땐 감격이 복받쳐올라 당장이라도 태평양을 날려가고싶은 심정이었다.

유엔무대에 나선 나는 美國대표들앞에서 떳떳이 가슴을 펴고 기개를 보일수가 있었다.

내가 뉴욕에 발을들여놓기전 현지에선 張勉駐美대사와 任永信특사가 유엔과 美정부등을 발이 닳도록 오가며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거기에 유엔대표단장으로 파견된 林炳稷외무장관과 내가 加勢했다.

워싱턴에서 우리는 美행정부、의회의 지도자들과 접촉, 對유엔전략을 설명하고 세계각국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기위한 방침을 숙의했다.

나는 마셜국무장관을 2차례만나 유엔군의 對共전략을 협의하기도했다. 6·25가 터지기 전 極東전략에 눈이 어둡던 미국행정부고위인사들도 이젠 딴사람처럼 되어 우리의견의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당시美국무성측은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北韓의 收復지구에 대한 통치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눈치였다.

나는 또 美의회에서 上院의원을 만나 미국의 對韓 지원문제에 대한 전폭적인 후원을 당부하는 등 수십명의 정계인사들과 접촉을 벌였다. 특히 保守派의 리더인 매카디의원이 말을 걸어 붙이고 對韓지원을 거듭 강조할 때의 모습은 퍽 인상적이었다.

마침 유엔제5차총회에는 내가 만나야되는 프랑스의 슈만外相이 참석중이어서 그를 쉽게 만날 수가 있었다. 그에게『내가 駐佛대사로 부임길에 이곳에들러 유엔에서 할 일이 많아 지체하고 있다』고 말하니 슈만외상은『國難중에 고생이많겠다』며『일을 끝낸뒤 파리에서 만나자』고 했다.

슈만외상에게 한국입장을 설명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지원을 청하자 그는 재차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잘 알겠다는 적극적인 표시였다.

蘇 유엔총회서 6시간동안"北侵"생떼

눈감고外面…조는 사진 外信타고 話題

유엔에서 소련대표 비신스키는 毒舌을 늘어놓으며 6·25는 한국이 먼저 北侵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떼를 썼다.

비신스키는『美제국주의자의 앞잡이인 李承晩도당이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北侵을 南侵이라고 주장하며 선량한 시민을 학살하고 양민의 집을 파괴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의 침략을 응징해야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어댔다. 비신스키는 이어『유엔은 한국의침략행위를 다스려야하는데 오히려인민공화국군대를 저지하는것은 국제법의 모순이다』라며 詭辯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비신스키의 발언에 이어 東歐의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불가리아와 白러시아등 소련의 사주를 받은 공산권대표들이 저들끼리 말을이어가며 6시간동안 유엔총회장에서쉴 새없이 떠들어 댔다. 이처럼 저들끼리 바통을 돌려가며 발언을 집중적으로 계속하는것은 공산권외교술법의 특색이었다.

비신스키가 같은 허무맹랑한 모략과 毒舌을 계속 퍼붓고 있을때나는 듣다못해 졸았다. 그랬더니 外信에『대한민국 대표가 비신스키의 말을 아예 외면하고 자고있다』는 설명과함께 내가 졸고있는 사진을 크게 실었다. 그것이 유엔外交街에서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

◆1950년 9월28일 戰火로 부서진 중앙청중앙홀에서 열린 서울收復기념식에서 李承晩대통령이 式辭를 읽고있다. 뒷자리는 맥아더元帥㊄와 무쵸美대사(중앙).

유엔에선 印度의 로우대표가 한국의 中立을 주장하며 우리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였는데 수려한 정통영어를 물흐르듯 구사하는 그의 말씨엔 감탄했으나 말끝이 심히 고약해 분노가 일었다.

당시 미국대표는『유엔정신에 의거, 침략자를 응징해야 한다. 북괴의뒤엔 이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으며 한국전쟁은 순전히 꼭둑각시인 金日成을 앞세운 代理戰爭』이라고 공산측을 몰아세웠다. 영국、필리핀、엘살바도르、자유중국등 30여개국은 한국에대해 무척이나 우호적인 발언을 해주어 우리를 감격케했다.

유엔총회의 후반기엔 張勉대사가 국무총리로 임명돼 귀국하고 梁裕燦씨가 대사로 부임을 해왔다. 그때쯤 유엔무대엔 심상찮은 공기가 감돌았다. 中共軍개입설이 나돈 것이다. 얼마 뒤엔「中共軍、韓國戰개입」이란 커다란 제목이 미국지 신문의 머리를 장식했다.

대표는 유엔에서 中共개입을 공식으로 통고했고 林炳稷외무장관은 11월말 유엔安保理에서 한국에서의 中共軍철수를 요구했다.

해가 바뀌자마자「1·4후퇴」의 悲報가 날아들어 우릴 경악케했다. 본국에선 빨리 귀국하라는 急報가 동지들한테서 계속 왔다.

나는 대사부임이고 뭐고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마음이 조급한 판에 병까지 났다. 유엔총회가 파장이 된 1월말 나는 서둘러 귀국했다. 결국 나는 駐佛全權公使로 발령받은지 5개월만에 任地에는 가지도 않은 채 番外의교활동을 벌이다 돌아온 것이다. 귀국하니 戰都 釜山에는 뜨거운 政治熱風이 점차 타오르고 있었다.

聖歌 대중화 물결

20여歌手가 불러 레코드 市場석권

1년사이 음반1백여종

찬송가 가사약간 변형시키고 唱法 대중음악쪽으로 기울어

◇崔安舜

◇金世煥

◇芳銀美

◇尹福姬

◇許琳

◇李鍾鏞

종교영화제작이 러시를 이루는것과 함께 가스펠송(福音聖歌)이 레코드계의「매력있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崔安舜 崔聖都부부가 부른「사랑」을 비롯해 20여가수의 가스펠송이 쏟아져나와 레코드시장은「복음의 합창」을이루고 있다. 이들 가스펠 송은 복음전도가 목적이지만 최근들어 제작자의 영리타산을 업고 대중화물결을 타고 있기도 하다.

지난 1년사이에 출반된 가스펠송 레코드는 줄잡아 1백여종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가스펠송 효시는 68년 貞信여고합창단이 내놓은「노래할 이유있네」가 꼽힌다. 그후 수년간은 공백상태였다가 70년대중반 趙英男、芳銀美등이「저 높은 곳을 향하여」「제짐 많은 우리구주」「내일 일은 난몰라요」등을 내놓으면서 바람을 몰아왔다. 이어 77년 정두영작곡(美새크라멘토한인교회성가대지휘자)의「사랑」(고린도전서13장발췌)이 貞信여고합창단에 의해 출반되고 연예인교회 가수신도들이 다투어 가스펠 송을 불러, 최근들어서는 양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스펠 송 가수는 거의가 기독교신도들이다.「사랑의주」「순례자의 노래」등 10집이나 내놓은 崔귀라는 당초 미8군무대에 섰던 가수였으나 요즘은 부흥회의 성가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스펠송을 부른 가수로는「사랑」등 6종의 카세트를 낸 芳銀美,「슈퍼예수그리스도」의 金道鄕을비롯,徐守男, 유준 李鍾鏞 許琳 김윤희 조이풀·보이즈 尹亨柱 金世煥 尹福姬 崔美오남매 쌍비둘기 玄美 김유정등을 들수있다.

가스펠송은 외국에선 섬가와는 완전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약간 변형시키고, 창법을 대중음악쪽으로 기울인 정도다. 따라서 가볍고 흥겨우면서도 종교색채가있는 외국의 대중성향의 가스펠송과는 차이가크다.

또 美아틀랜타에는 6개의 가스펠송 전문 라디오 방송국이 생겨 헌금으로 운영하는등 가스펠송 방송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에비하면 우리나라는 극동방송과 CBS의 전파가 고작이다. 가스펠송은 당초 非신도를 교회로 유도하는것이 첫째 목적이고, 신도대상의 판매목적이 두번째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일부제작사나 가수들이 기독교의 교세에 편승, 디스코아닌 카세트 테이프로 손쉽게 제작해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판매방법도 레코드시장을 이용하는 한편으로는 가수가 교회의 집회에 나가 노래를 부르고 현장에서 카세트를 파는 형태의 판매방식도 있다는 것. 가스펠송 카세트는 악단의 연주없이 피아노나 오르간의 반주만으로 간편하게 제작돼 제작비가 적게 투입된다. 이러한 잇점을 이용, 가스펠송이 쏟아져나오고 있으나 토착화는 요원하다는 것이 가요계의 눈이다.

찬송가를 약간 변형시킨정도만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것. 따라서 적어도 국내 가스펠송 최고의 히트작으로 꼽히는「사랑」이나, 가스펠송은 아니지만 성가냄새를 풍기는 李泳和의「저 높은 곳을 향하여」같은 대중성향의 노래가 창작으로 제작돼야 할것이라고 가요계는 분석한다.【李亨基기자】

LIMITED TIME ONLY!
Oct. 18 through Dec. 17, 1981

ZENITH

THE GREAT CANADIAN REBATE

UP TO $60 INSTANT REBATE

with the purchase of this

ZENITH SYSTEM 3

26" Remote Control Cons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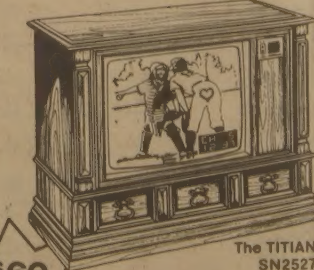
ZENITH T.V. 특별 세일

모든ZENITH 씨스템3 T.V세일

…… 기간 : : 10월18일~12월17일까지 ……

※제니스 Co. 에서 $30~$60까지

CASH REBATE를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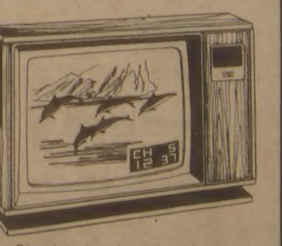


$60 INSTANT REBATE

The TITIAN SN2527

Classic styling. Wood and simulated wood products in Dark Oak finish (SN2527DE) or Pecan finish (SN2527P). Casters.

●REMOTE CONTROL로 조절, 내부에 전화까지 달려 있어 편리.



$30 INSTANT REBATE

The HOLBEIN SN1961W

Simulated grained American Walnut finish. Black pedestal base. Brushed Aluminum color accents.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 282-2820

아카데미 T.V.& STEREO CO.